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年 2月
博士學位論文

韓國近代建築 登錄文化財의 變容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峰 守

韓國近代建築 登錄文化財의 變容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r

2010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峰 守

韓國近代建築 登錄文化財의 變容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剛 澈

이 論文을 工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李 峰 守

李 峰 守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委 員

委 員

委 員

委 員

2009年 1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1. 序論

| | |
|-----------------------|---|
| 1.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 1 |
| 1.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 1 |
| 1.3 用語의 使用 | 3 |

2. 理論考察

| | |
|------------------------|----|
| 2.1 登錄文化財의 概念 | 8 |
| 2.1.1 導入의 背景 | 8 |
| 2.1.2 制度의 特徵 | 9 |
| 2.1.3 指定文化財와의 比較 | 15 |
| 2.2 變容의 概念 및 原因 | 17 |
| 2.3 先行研究考察 | 19 |

3. 韓國近代建築의 導入과 形成

| | |
|--------------------------|----|
| 3.1 近代建築의 導入 | 26 |
| 3.1.1 아시아의 近代建築 導入 | 26 |
| 3.1.2 朝鮮의 近代建築 導入 | 28 |
| 3.2 韓國近代建築의 地域別 形成 | 32 |
| 3.2.1 釜山 | 34 |
| 3.2.2 仁川 | 39 |
| 3.2.3 木浦 | 42 |
| 3.2.4 群山 | 44 |

4. 登錄文化財의 建築的 特徵

| | |
|---------------------------|-----|
| 4.1 建築的 特徵 | 48 |
| 4.1.1 用途別 建築特性 | 48 |
| 4.1.2 時期別 建築特性 | 68 |
| 4.2 登錄文化財 事例 | 81 |
| 4.2.1 宗教施設 | 81 |
| 4.2.2 業務施設 | 85 |
| 4.2.3 教育施設 | 90 |
| 4.2.4 其他施設 | 94 |
| | |
| 5. 登錄文化財의 建築的 變容 | |
| 5.1 平面的 變容 | 102 |
| 5.1.1 업무시설 | 103 |
| 5.1.2 교육시설 | 106 |
| 5.1.3 종교시설 | 108 |
| 5.1.4 기타시설 | 109 |
| 5.2 立面的 變容 | 112 |
| 5.3 修理에 의한 變化 | 118 |
| 5.3.1 修理現況 | 118 |
| 5.3.2 修理事例 | 125 |
| 5.3.3 修理에 의한 變化 | 151 |
| | |
| 6. 登錄文化財의 保全 方案 | |
| 6.1 制度 및 政策의 轉換 | 158 |
| 6.1.1 指定 및 登錄基準의 改定 | 159 |
| 6.1.2 保存方式의 多樣化 | 163 |
| 6.2 修理技術과 紀錄의 아카이브화 | 164 |
| 6.2.1 修理技術에 관한 記錄管理 | 164 |
| 6.2.2 修理 專門人力的 擴充 | 170 |

7. 結論

표 목차

| | |
|-------------------------------------|----|
| 표 1. 분석대상 등록문화재 | 3 |
| 표 2.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건조물 중심)의 비교 | 15 |
| 표 3. 근대건축물 지정 및 등록현황 | 16 |
| 표 4. 학위논문 선행연구 | 19 |
| 표 5. 학술논문 선행연구 | 19 |
| 표 6. 개항장의 조계 및 거류지 요약표 | 33 |
| 표 7. 현존 인천지역의 근대건축물 | 41 |
| 표 8. 종교시설 목록 | 49 |
| 표 9. 종교시설 평면특성 | 50 |
| 표 10. 종교시설 구조와 마감재료 | 52 |
| 표 11. 업무시설 문화재 목록 | 53 |
| 표 12. 업무시설 건축물 평면 구성 | 54 |
| 표 13. 업무시설의 구조와 마감재료 | 55 |
| 표 14. 교육시설 문화재목록 | 57 |
| 표 15. 교육시설 평면특성 | 58 |
| 표 16. 교육시설 구조 및 마감재료 | 59 |
| 표 17. 기타시설 문화재목록 | 62 |
| 표 18. 기타시설 평면특성 | 62 |
| 표 19. 시기별 건축현황 | 68 |
| 표 20. 개항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69 |
| 표 21. 개항기 건축의 지붕구조 | 69 |
| 표 22. 무단정책기의 건축물 | 70 |
| 표 23. 무단정책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71 |
| 표 24. 무단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71 |
| 표 25. 문화정책기의 건축물 | 72 |
| 표 26. 문화정책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73 |
| 표 27. 문화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74 |

| | |
|--|-----|
| 표 28. 민족말살정책기의 건축물 | 74 |
| 표 29. 민족말살정책기의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75 |
| 표 30. 민족말살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76 |
| 표 31. 해방이후 건축물 | 76 |
| 표 32. 해방기 이후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77 |
| 표 33. 해방기이후 건축의 지붕구조 | 78 |
| 표 34. 시기별 건축물의 용도 | 78 |
| 표 35. 시기별 평면 유형 | 79 |
| 표 36. 시기별 구조 및 지붕형태 | 80 |
| 표 37. 시기별 지붕구조 | 80 |
| 표 38. 고찰대상 등록문화재 | 81 |
| 표 39.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의 시기별 용도와 건축적 변화표 | 82 |
| 표 40. 본당의 시기별 건축적 활용과 변화 | 83 |
| 표 41. 시기별 익옥수리조합 연혁표 | 85 |
| 표 42.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시기별 건축현황표 | 86 |
| 표 43. 시기별 건축물 주요연혁표 | 88 |
| 표 44. 시기별 건축물 활용에 관한 주요연혁표 | 91 |
| 표 45. 강경의 화교와 강경 화교학교의 시기별 건축적 용도 | 93 |
| 표 46. 기간별 건축적특성과 활용현황표 | 94 |
| 표 47. 공화춘의 시기별 건축물 연혁표 | 96 |
| 표 48.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현황표 | 98 |
| 표 49.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현황표 | 99 |
| 표 50. 용도별 평면변용 빈도 | 102 |
| 표 51. 입면변용의 유형 및 빈도 | 112 |
| 표 52. 지역 및 연도별 등록문화재의 수리현황 | 118 |
| 표 53. 등록문화재 수리현황 (최근 6년간) | 120 |
| 표 54. 등록문화재 수리 사례 | 125 |
| 표 55. 여수에양병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26 |
| 표 56.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28 |

| | |
|--|-----|
| 표 57.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0 |
| 표 58.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1 |
| 표 59.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3 |
| 표 60. 조선대학교본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5 |
| 표 61. 여수장천교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7 |
| 표 62. 함평천주교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38 |
| 표 63.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0 |
| 표 64.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1 |
| 표 65. 곡성삼기우체국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4 |
| 표 66. 구풍양금융조합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6 |
| 표 67. 구녹동우편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8 |
| 표 68. 화순농협동부지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149 |
| 표 69. 부위별 수리내용 | 156 |
| 표 70. 한국근대건축의 보존유형 분류 | 163 |
| 표 71. 기록 관리의 세부 지침 안 | 168 |
| 표 72. 근대건축의 수리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분야 | 170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등록문화제와 연구대상 건축물 | 4 |
| 그림 2. 연구의 진행과정 | 5 |
| 그림 3. 변용의 원인 | 18 |
| 그림 4. 保存 및 活用방안 | 21 |
| 그림 5. 활용방안 | 21 |
| 그림 6. 보존방안 | 22 |
| 그림 7. 미활용 요인 | 23 |
| 그림 8. 현황 사례 | 23 |
| 그림 9. 변천과정 | 24 |
| 그림 10. 거류지시기의 시가지구역과 주요 시설물 | 36 |
| 그림 11. 개항기 부산의 주요 건축물 위치 | 38 |
| 그림 12. 내리교회 | 39 |
| 그림 13. 성누가병원 | 40 |
| 그림 14. 1900년 초의 목포교회 | 43 |
| 그림 15. 군산각국조계도(1899) | 44 |
| 그림 16. 군산의 1899년~1905년 사이에 신축된 건축물 위치 | 46 |
| 그림 17. 옥천천주교회 | 51 |
| 그림 18. 목포중앙교회 | 51 |
| 그림 19. 제일은행 여수지점 | 56 |
| 그림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 56 |
| 그림 21. 구 부안 금융조합 | 57 |
| 그림 22. 광주 수창초등학교 | 60 |
| 그림 23.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 60 |
| 그림 24.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 61 |
| 그림 25.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 64 |
| 그림 26. 구 통영 청년단체관 | 64 |
| 그림 27. 효목동 조양회관 | 65 |

| | |
|--|-----|
| 그림 28. 여수 애양병원 | 65 |
| 그림 29.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 66 |
| 그림 30. 구 서울구치소 | 66 |
| 그림 31. 평면도 | 84 |
| 그림 32. 정면도 | 84 |
| 그림 33. 반야월 역사 전경 | 87 |
| 그림 34. 반야월역사 평면도 | 87 |
| 그림 35. 반야월역사 정면도 | 87 |
| 그림 36. 반야월역사 대합실 및 역무원실 지붕 트러스 상세도 | 87 |
| 그림 37. 구 나가사키18은행 평면도 | 88 |
| 그림 38. 구 나가사키18은행 정면도 | 88 |
| 그림 39. 구 나가사키18은행 우측면도 | 89 |
| 그림 40. 구 나가사키18은행 전경 | 89 |
| 그림 41.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평면도 | 90 |
| 그림 42.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정면도 및 배면도 | 90 |
| 그림 43. 건립당시트러스 구조 | 91 |
| 그림 44. 건립당시 트러스 구조 | 91 |
| 그림 45. 교사 평면도 현재 및 추정 | 92 |
| 그림 46. 2004년 이후 모습 | 92 |
| 그림 47. 정면도 | 92 |
| 그림 48. 전주중앙동 구 박다옥 배치도 | 95 |
| 그림 49. 전주중앙동 구 박다옥 1층 평면도 | 95 |
| 그림 50.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2층 평면도 | 95 |
| 그림 51.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3층 평면도 | 95 |
| 그림 52.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정면도 | 95 |
| 그림 53.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평면도 | 97 |
| 그림 54.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입면도 | 97 |
| 그림 55. 구 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전경 | 98 |
| 그림 56. 구 제중원과 현재 제중원 1층 평면도 | 100 |

| | |
|---|-----|
| 그림 57. 제중원 정면도 | 100 |
| 그림 58. 구 소록도 갯생원 감금실 평면도 | 101 |
| 그림 59. 구 소록도 갯생원 감금실 정면도 | 101 |
| 그림 60. 구 소록도 갯생원 감금실 전경 | 101 |
| 그림 61. 부안금융조합의 변용과정 | 103 |
| 그림 62. 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의 변용과정 | 105 |
| 그림 63. 익산 구이리농림학교 축산과교사의 변용과정 | 106 |
| 그림 64. 도갑사의 대웅전의 건축시기 추정 자료 | 107 |
| 그림 65. 옥천천주교 변용과정 | 108 |
| 그림 66. 애양교회 변용과정 | 108 |
| 그림 67. 일본우선주식회사 변용과정 | 110 |
| 그림 68. 부위별 변용빈도 | 113 |
| 그림 69. 출입구 변용 | 113 |
| 그림 70. 지붕 변용 | 113 |
| 그림 71. 조흥은행 대전지점 주출입구 위치변경 | 113 |
| 그림 72.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의 설립당시 모습 | 114 |
| 그림 73. 현재 정면의 모습 | 114 |
| 그림 74. 목포 舊 청년회관 우측면 출입구 폐쇄 | 114 |
| 그림 75. 부출입구 | 114 |
| 그림 76. 목포 舊 청년회관정면 출입구 | 114 |
| 그림 77. 지붕의 재료 변용사례1(전주 중앙동 舊 박다옥) | 115 |
| 그림 78. 지붕의 재료 변용사례2(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 115 |
| 그림 79. 지붕의 형태변화 사례(여수 애양교회) | 116 |
| 그림 80. 등록문화재의 지역별 지원 금액 | 118 |
| 그림 81. 등록문화재의 보수부위 | 118 |
| 그림 82. 지역별 연도별 등록문화재의 수리현황 | 120 |
| 그림 83. 여수애양병원 현황사진 | 126 |
| 그림 84. 여수애양병원 보수부위 | 127 |
| 그림 85. 구 소록도 갯생원 검시실 현황 | 127 |

| | |
|---------------------------------------|-----|
| 그림 86.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 보수부위 | 128 |
| 그림 87. 구 소록도 갱생원 사무본관 및 강당 현황 | 128 |
| 그림 88.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 보수부위 | 130 |
| 그림 89. 구 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현황 | 131 |
| 그림 90.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보수부위 | 131 |
| 그림 91.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현황 | 132 |
| 그림 92.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보수부위 | 134 |
| 그림 93. 조선대학교본관 보수부위 | 135 |
| 그림 94. 여수 장천교회 현황 | 136 |
| 그림 95. 여수장천교회 보수부위 | 136 |
| 그림 96. 함평천주교회 보수부위 | 138 |
| 그림 97. 순천 매산관 현황 | 139 |
| 그림 98.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보수부위 | 141 |
| 그림 99.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커티스 메모리얼홀 현황 | 141 |
| 그림 100.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보수부위 | 141 |
| 그림 101. 곡성삼기우체국 현황 | 143 |
| 그림 102. 곡성삼기우체국 보수부위 | 145 |
| 그림 103. 구 풍양금융조합 현황 | 145 |
| 그림 104. 구풍양금융조합 보수부위 | 147 |
| 그림 105. 구 고흥녹동우편소 현황 | 147 |
| 그림 106. 구녹동우편소 보수부위 | 148 |
| 그림 107. 화순농협동부지점 보수부위 | 150 |
| 그림 108. 부위별 보수현황 | 151 |
| 그림 109. 벽체의 수리 시 재료변경 여부 | 152 |
| 그림 110. 수리의 원인 | 153 |
| 그림 111. 지붕재의 수리에 따른 재료변경여부 | 154 |
| 그림 112. 창호재의 수리에 따른 재료변경 여부 | 155 |
| 그림 113. 수리재료의 변화 양상 | 156 |

1. 序論

1.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최근 다양한 국토개발,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의 개수와 기능의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근대 건축물은 급속히 손실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건축물이란 일정기간 사용하여 노후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극단적 경제논리가 팽배하였던 시대는 지나가고 역사적·문화적가치를 논하지 않아도 “리노베이션” 혹은 “리모델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새로운 경제논리가 도래한 현 시대에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활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어떠한 가치가 있어 보존해야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등 보존 대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보존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당위성 이전에 역사적으로 우리와 친근하였던 전통건축과 달리 근대건축을 대별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외세에 의한 강압의 시기로 우리의 주체성이 없었던 시기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며, 건축물도 또한 그러했다고 본다. 서구에서 근대기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이며, 이 근대화의 물결은 이후 오랜 기간의 과도적 현상을 겪으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전통 봉건사회체제를 고수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은 산업과 상업체제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로의 강제 편입을 맞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체제 및 상업구조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겪게 되었다.

이 시기 우리는 서구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에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개항이후 식민화의 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서양식의 건축물 유입은 한국인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립된 것이 태반이었다. 한국근대건축은 이러한 서구문물의 유입 가운데 절충주의 양식의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되었고, 현재까지 우리의 근대기를 나타내는 유형의 산물로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연 ‘우리의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대건축에 대한 회의를 가

지고 많은 논란을 갖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이외의 많은 건물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인 소유자의 인식에 따라 보존되기도 하고 혹은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금세기 들어 국가에서는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현재를 있게 한 20세기의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전근대와는 차별되는 시기이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사적 시기로 보고, 당시의 대표적 문화유산들에 대해 보존과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역사적·문화적가치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즉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대시기의 문화유산을 「근대문화유산의 적극 보존」이라는 보도자료¹⁾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는 건축물이 소멸과 훼손의 위험이 크며 이후 복원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시급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지정제도 이외에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보존방법을 강구하면서, 향후 보존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은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다종다양이며, 또한 대량·대규모적이며, 동시에 비교적 최근의 우리생활과 밀접한 대상물을 다루기 때문에 대상물의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근대문화유산의 범위와 대상물의 선정·분류기준 및 보존의 범위 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지정 혹은 등록될 한국근대건축에 대한 보존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기등록된 근대건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근대건축과 등록문화재의 선행연구와 이론고찰을 통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근대건축의 도입과정을 아시아와 조선의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료구축이라는 견지에서 용도, 평면, 입면의 변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변용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등록문화재의 수리에 대해서 재료와 공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보존의 방안에 대해 제도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을 위주로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실질적 자료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 동시게재(2000. 2. 1)

1.2 研究의 方法 및 範圍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보존방안, 활용방안, 보존 및 활용방안, 미활용분석, 현황과 사례, 변천과정 분석의 6가지 유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순서는 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근대건축의 도입과 형성을 통하여 건축적 특징을 용도별 시기별로 밝히고 보존 및 활용현황을 수리보수상태와 미활용상태로 나누어 분석하며 기능적 개념의 변용과 기술적 개념의 변화를 파악하여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문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근대건축기록화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및 수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고 외국의 서적은 원서와 번역본을 활용하였으며 한국근대건축과 관련된 도면은 기록화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및 수리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등록문화재 452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동산 및 터를 제외한 363건의 건축 관련 등록문화재를 선별하였고 다시 기록화보고서가 있는 건축분야의 등록문화재 115건을 추렸다. 그러나 115건 중에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근대한옥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였고 상대적으로 평면변용이 심하여 원형 확인이 어려운 주거건축 역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기록화보고서가 있는 등록문화재 중 비주거 건축물로 한정하여 59건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각 장마다 대상의 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등록문화재

| | 종교시설 | 교육시설 | 업무시설 | 기타 | 합계 |
|--------|------|------|------|----|----|
| 1900년전 | | | 1 | | 1 |
| 1900년대 | | 1 | | 1 | 2 |
| 1910년대 | 1 | 1 | 4 | | 6 |
| 1920년대 | 2 | 3 | 2 | 8 | 15 |
| 1930년대 | 3 | 5 | 4 | 4 | 17 |
| 1940년대 | | 1 | 3 | 1 | 5 |
| 1950년대 | 5 | 5 | 2 | | 12 |
| 1960년대 | 1 | | | | 1 |
| 합계 | 12 | 16 | 16 | 14 | 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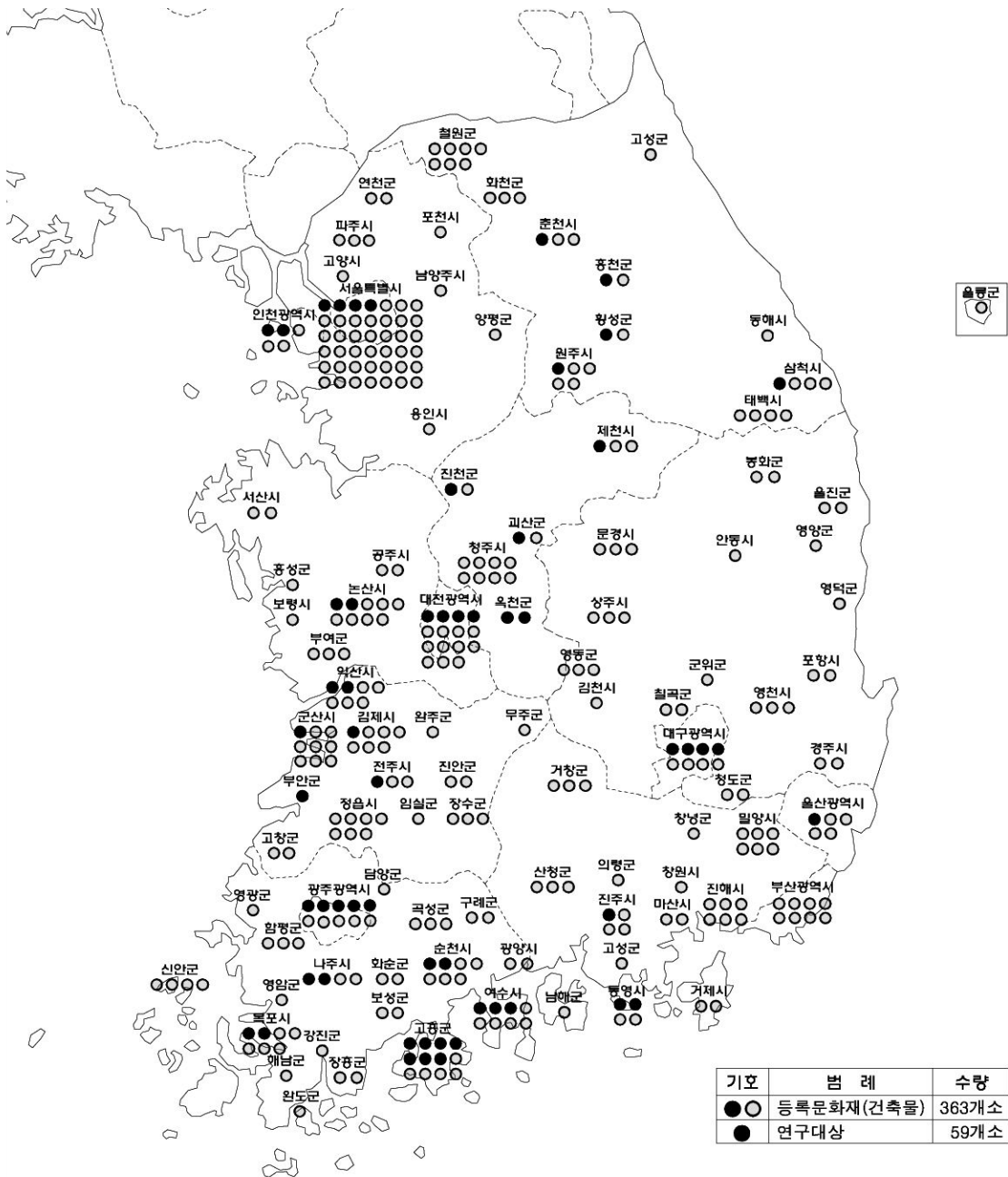


그림 1. 등록문화재와 연구대상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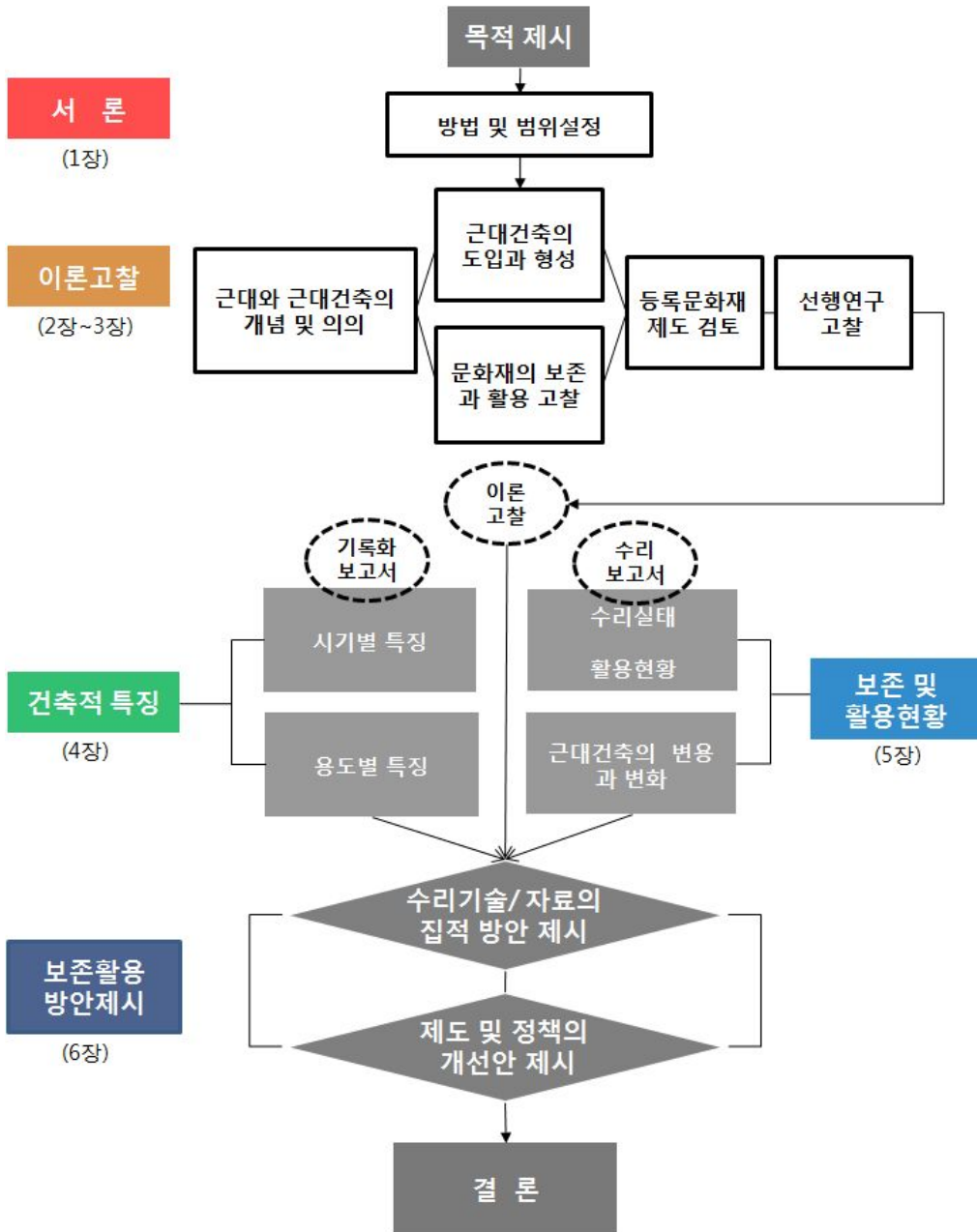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진행과정

각 장에 대한 연구의 진행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고찰의 장으로 등록문화재의 개념, 배경, 특징을 살펴보고 지정문화재와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보존 활용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아울러 변용의 개념과 원인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근대건축의 도입과 형성을 아시아의 근대건축 도입과 조선의 근대건축 도입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고 지역별 형성은 개항지였던 부산, 인천, 목포, 군산을 중심으로 도입과 전파과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대상 59곳을 중심으로 용도별,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기술하였고 대표적인 사례를 용도별로 정리하여 각 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변용현상을 용도와 평면 및 입면으로 나누어 변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변용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보존 및 활용현황을 수리현황과 활용현황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기술하였고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적인 공간의 변용과 기술과 재료적인 변화 즉 수리 후 발생하는 근대건축의 변화사례와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대하여 제도 및 정책의 전환은 지정 및 등록기준의 개정과 보존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였고 수리기술과 기록의 아카이브화는 수리기술에 관한 기록관리, 수리전문인력의 확충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법과 흐름에 관계된 세부적인 전개는 다음의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요약해 볼 수 있다.

1.3 用語의 使用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고 원활한 전개와 일관성 있는 서술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축물로 한정한다.

■ 근대 / 근대건축

“근대”는 시간과 사상이 결부된 단어로서 중세와 현대사이의 단계이고 인간중심으로 변화된 시대사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의 근대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개항(1876년)이후부터 50~60년까지를 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전반의 일들을 『근대』로 보자는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기상으로 1876년 개항이후부터 해방이전 까지로 하고자 하며 아울러 근대건축은 시기상의 근대에 형성된 건축물로서 전통건축과의 절충양식을 비롯해 양식풍의 건조물로 한정한다.

■ 변용/변화

변용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편 요소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행해진 수선, 수리, 변경, 개조, 증축 등의 모든 물리적 환경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상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변화는 수리 등의 행위를 통해 가시화 되는 물리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외의 용어들은 해당부분에서 문맥과 논리의 흐름에 맞게 적용하였고 별도의 정의가 필요할 경우 각주로 처리하였다.

2. 理論考察

2.1 登錄文化財의 概念

2.1.1 導入의 背景²⁾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이래로 지정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정문화재 제도란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대상 문화재를 지정하고, 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일정한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정문화재 제도의 취지는 문화재 중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선정 국가의 강한 규제와 지원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지정문화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 문화 환경의 변화, 즉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증거물의 보존과 역사적 의미의 재해석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통사회에 기반을 두어 문화재를 바라보던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화재로 인식되게 되었고, 이들 문화재의 보호제도로서 지정문화재 제도는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문화재보호 방법에 대한 다양화의 도모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은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신고제도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완만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문화재 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하게 되었다.(2001. 7. 1시행)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종래의 지정제도로는 한계가 있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동산문화재 보호의 보완조치로서 등록제도가 폐지(1984. 12. 31)된 이후 등록제도로서는 두 번째의 도입이고, 건조물 문화재보호의 보완조치로서 집단적 전통건조물의 보호

2)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05, p.177-178

제도인 전통건조물보존법 폐지(1999. 7. 1) 이후 건조물보호제도로서도 두 번째의 도입이다. 특히, 등록문화재제도 도입당시 그 등록대상이 근대문화유산 중 건조물 또는 시설물에 한정되게 되었던 것은 근대건조물의 경우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래의 역사와 관련되는 문화유산이 전승된 것도 있는 반면, 외래문화가 이입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심지어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그 이전시대에 존재하지 않던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어서 그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여 극히 일부만이 보호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성 등으로 이미 멸실되었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가 시급하였음에 기인한다.

2.1.2 制度의 特徵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의 보완조치로서 문화재의 지정기준에는 미흡하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에 생성된 모든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에 기초하는 신고위주의 문화재 보호제도이다.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동결 보존을 목적으로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는 것과는 달리 등록문화재 제도는 해당 문화재의 외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경우 지정문화재와 달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지도·조언·권고 등의 권한행사가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로 건축기준의 완화,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수리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 소유자 등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등록문화재 제도는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며,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하고,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가

다.³⁾

가) 등록의 대상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⁴⁾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 자체로서도 보존가치가 있기는 하나 지정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하여 이미 지정된 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⁵⁾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다. 또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배경을 고려할 때에 당초 등록대상은 주로 근대의 건조물 및 시설물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2005. 7. 28 공포시행)에 의하여 지금은 근대이전의 건조물 및 시설물 뿐만 아니라 미술공예품 등의 동산문화재도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나) 등록의 기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별하기 위한 등록기준⁶⁾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 ①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②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③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3) 김창규, Ibid. p.178

4) 문화재보호법 제47호제1항

5) 문화재보호법 제52호제2항

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또한 위의 등록기준에 해당하고,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등록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⁷⁾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등록문화재를 등록하게 된다.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등록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때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⁹⁾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등록문화재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때에는 등록문화재등록증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¹⁰⁾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¹¹⁾

7)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9) 문화재보호법 제10조

1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11)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라) 관리 및 수리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¹²⁾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정을 받아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고나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¹³⁾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기술지도 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¹⁴⁾

마) 현상변경 등의 신고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채택하여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제도를 채택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에 머물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¹⁵⁾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하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해당 문화재 외관의 4

12)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1항, 동법 제2조의 규정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3)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 제3항

1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15)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¹⁶⁾

다만,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 조언, 권고등을 할 수 있다.¹⁷⁾

바) 특례

등록문화재제도의 운영활성화와 다양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등록문화재의 수리 등에 국가보조금(5:5)을 지원하고, 세제감면조치로서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징수유예를,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및 시군구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50% 감면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을 하여 주고 있다.

① 보조금의 지원

국가는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당해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및 기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하게 한다.¹⁸⁾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등록문화재가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관리·보호·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¹⁹⁾

1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17) 문화재보호법 제50조

18) 문화재보호법 제39조

③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²⁰⁾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²¹⁾

④ 기타 세제지원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문화재청에서는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²²⁾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징수유예²³⁾를,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과 시·군·구별 세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²⁴⁾해주고 있다.²⁵⁾

사) 등록의 말소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1조

20) 문화재보호법 제51조

2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그 중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1주택의 경우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에서 등록문화재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상속자가 양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와 같은 효과가 있다.

24)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구세감면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시·군·구별세감면조례에 이를 반영·시행하고 있다.

25) 김지성, op. cit. p.27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는데,²⁶⁾ 이는 등록제도가 지정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지정에 의한 보호가 등록제도에 의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²⁷⁾

2.1.3 指定文化財와의 比較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가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기존원칙으로 하는 동결 보존을 목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지극히 큰 것을 엄선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지정 기준에는 미흡하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토목구조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보호 의지를 바탕으로 두고,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신고에 의해 유연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문화재의 건조물 중심의 지정문화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건조물 중심)의 비교

자료 : 문화재청 홈페이지

| | 등록문화재제도 | 지정문화재제도(건조물중심) |
|----------|---|--|
| 제도의 목적 |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에 기대하는 제도 |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엄선해서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 |
| 보호의 대상 |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 |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 |
| 등록(지정)기준 | 근대문화유산 중 원칙적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26) 문화재보호법 제52조

27) 김창규, op. cit, p.193

| | 등록문화재제도 | 지정문화재제도(건조물중심) |
|------------------|---|-------------------------------------|
| | 지니고 있는 것 | |
| 등록(지정)주체 | 문화재청장 | 문화재청장/시·도지사 |
| 심의회 |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회/시도위원회 |
| 등록(지정)시 소유자동의 |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 제도상은 필요 없음 운용상 의견수렴 참고 |
| 현상변경 | 신고 필요한 지도, 조언, 권고 *혜택을 받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허가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
|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 | 규정 없음 | 허가(경미한 것은 제외) 필요한 지시, 행위중지, 허가취소 |
| 혜택 | 국고지원 근거 규정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근거규정 | 국고지원 근거 규정 |
| 세제지원 | 재산세 50%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주택양도시 1가구1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 재산세 비과세 상속세 등 비과세 |

현재 우리주변의 많은 건물들은 노후화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경제 논리로 인해 빠르게 지어지고 보다 빠르게 철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근대건축물 역시도 도심에 존재하는 위치상의 연유로 경제개발과 맞물려 그 소멸과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근대건축물의 철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 상실을 들 수 있다. 건축물의 기능 상실로 인한 관리 소홀 등으로 건축물이 방치되거나 폐기되어져 버린 경우이다.

표 3. 근대건축물 지정 및 등록현황

|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 시·도지정문화재 | | | 등록문화재 |
|----|-----------------|----------|-----|-------|-------|
| | |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문화재자료 | |
| 수량 | 30 | 25 | 46 | 19 | 452 |

둘째로 식민지 시대의 건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인위적인 파손이다. 이러한 경우가 한국 근대건축물의 소멸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다. 셋째로 건축물 자체 시설이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의 한계로 철거되는 경우이다. 설비 및 구조의 노후화 문제는 건축물의 기능을 지탱하는데 경제적 타당성과 같이 맞물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토지의 경제적 효용가치 추구하고 도로 확장 등의 도시계획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러한 경위로 많은 근대건축물들이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 갔으며 이런 소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정과 등록을 통해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고 있다.

2.2 變容의 概念 및 原因

건축물에 있어 변용은 불편 요소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행해진 수선, 수리, 변경, 개조, 증축 등의 모든 물리적 환경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상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변용을 양분하면 내부와 외부의 변용으로 구분되며 내부의 변용으로는 실의 개조와 증축, 분할을 들 수 있으며 외부의 변용은 재료 변경, 설치 물의 이용에 의한 외부 공간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용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동안의 관련 연구를 통해 볼 때 사회 문화적 요소, 사회 인구학적 요소, 자연환경적 특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환경 요인에는 신재료, 기술, 공법과 같은 기술적 요인과 산업화, 도시화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요인, 그리고 종교, 사상, 생활양식, 문화의 변화, 법률 등과 건축물에 대한 가치관 등의 많은 변수들이 관련된다.

이 가운데 기술적 구조 방식, 재료, 설비 등과 같은 기술적 요소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신재료의 개발과 건축 기술과 공법의 발전과 관계된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의 발전에 의해 시설 및 설비 구조가 크게 향상된다. 재료는 주로 입면형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⁸⁾

또한 법률적 요소는 주로 건축 법규와 관계되는데 이것은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 법적 형태가 다소 규범적 성격을 띤 개괄적 규제였는데 반해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면서 세부적 사항까지 다루게 되어 그 비중이 다른 요인과 동등해 졌다고 판단된다. 현재 등록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입면의 면적에 대한 제한 건축법 범주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인동간격, 높이 제한, 방화, 개구부의 크기 규정 등의 항목들이 해당 될 수 있다. 즉 변용 시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단지 입면의 수리 등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제안이 따른다.

28) 박용철, op. cit,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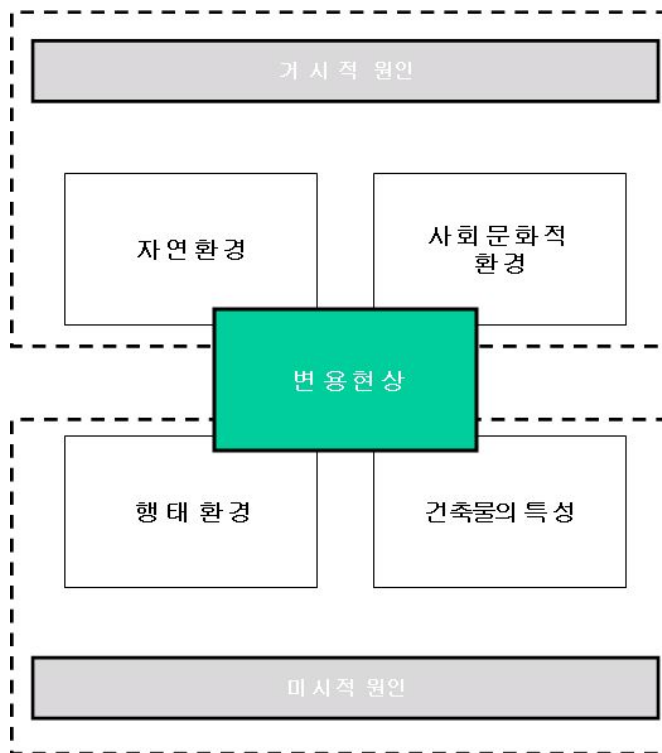
29) 조용훈,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건축과 석사, 1984, p.26.

이외에도 등록문화재의 변용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은 정책, 산업화·도시화·생활양식·문화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오늘날에 와서 정책은 등록문화재의 공적인 측면의 작용으로서 형태뿐만 아니라 현재 잔존하는 근대 건축문화해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 문화의 변화에 의한 변용과 함께 변용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소유자의 상황성이다. 공간을 사용하는 소유자들은 고유한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 환경적 요인들 중 소유자 혹은 이용자의 행태환경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환경 건축물의 특성은 미시적 요인이며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자연환경 특성으로 갈수록 거시적 환경 요인이다.

그림 3. 변용의 원인



2.3 先行研究考察

학위논문과 국내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재를 검색어로 하여 이들 검색 연구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논문은 다음 표와 같이 41편이 해당된다. 이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제와 결과 값이 보존방안, 활용방안, 보존 및 활용방안, 미활용분석, 현

표 4. 학위논문 선행연구

| 학위 | 연도 | 학교 | 이름 | 주제 |
|----|------|--------|-----|--|
| 박사 | 2001 | 청주대학교 | 김동식 | 近代建築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관한 研究 |
| | 2003 | 명지대학교 | 박근수 |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존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
| 석사 | 2003 | 홍익대학교 | 이혜민 |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
| | 2003 | 성균관대학교 | 윤보기 |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
| | 2003 | 충남대학교 | 권흥순 |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활용에 관한 연구 |
| | 2004 | 동의대학교 | 정이순 |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 | 2005 | 단국대학교 | 고주환 | 한국 근대양식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보수기법에 관한 연구 |
| | 2006 | 단국대학교 | 전민중 | 近代建築物의 保存 活用을 위한 登錄文化財 Incentive 制度 實效性에 關한 研究 |
| | 2008 | 동의대학교 | 고훈 | 近代建築物 未活用 實態 分析과 要因에 관한 研究 |
| | 2008 | 동아대학교 | 염용래 |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생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연구 |
| | 2009 | 경원대학교 | 조신혜 | 근대건축물(近代建築物)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 | 2009 | 충남대학교 | 윤성훈 |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

황과 사례, 변천과정 분석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표 5. 학술논문 선행연구

| 연도 | 출처 | 이름 | 주제 |
|------|-----------|-----|------------------------------|
| 1983 | 대한건축학회 | 김정동 |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
| 1986 | 대한건축학회 | 김정동 | 한국의 서구건축 인식단계 |
| 1992 | 건축역사연구 | 김봉렬 | 근대 건축 형성기 영국과 독일의 건축이론 비교 연구 |
| 1992 | 목원대학교 논문집 | 김정동 | 東·西 근대건축의 轉移와 逆轉移에 관한 연구 |
| 1992 | 건축역사연구 | 김정동 | 한국 近代建築 206편의 참고 문헌 |
| 1993 | 건축·도시환경연구 | 김정동 | 대전(大田)의 근대건축 목록과 유형조사 연구 |
| 1994 | 건축·도시환경연구 | 김정동 |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건설기술의 역할에 관한 소고 |

| | | | |
|------|-----------|------|--|
| 1999 | 건축·도시환경연구 | 조홍석 | 지방 중소도시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
| 1999 | 대한건축학회 | 조홍석 | 충남 근대건축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기초연구 |
| 2000 | 대한건축학회 | 조홍석 |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NT운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 2001 | 조형연구 | 김문덕 | 네델란드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 2002 | 한국교회사연구소 | 김정신 | 교회건축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과제 |
| 2002 | 대한건축학회 | 이혜민 |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현황 조사 연구 |
| 2003 | 대한건축학회 | 김진안 |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 2004 | 대한건축학회 | 한수형 | 대전지역 근대 건축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
| 2004 | 건축역사연구 | 김정동 | 이상과 1930년대의 동경 |
| 2005 | 대한건축학회 | 이완건 |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
| 2005 | 대한건축학회 | 김정동 | 프랑스의 '역사적 모뉴먼트(문화재)' 제도에 관한 소고 |
| 2005 | 서울학연구 | 카즈히코 | 동경의 근대건축물 현황과 보존방식 |
| 2006 | 서울학연구 | 타케시 | 도쿄에 있어서 근대건축보존의 성립과 전개 |
| 2006 | 서울학연구 | 김수정 | 등록문화재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2006 | 배재대학교공학연구 | 김종헌 |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 2006 | 대한건축학회 | 이주형 |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 2007 | 대한건축학회 | 전병욱 | 근대건축문화재의 전시용도 활용사례 연구 |
| 2007 | 대한건축학회 | 양준모 | 근대건축물 보전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
| 2008 | 대한건축학회 | 강성원 | 20세기전반 청사건축에서 철근콘크리트 구법의 도입과 변천 |
| 2008 | 대한건축학회 | 고훈 | 근대건축물의 미활용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 2008 | 대한건축학회 | 강성원 |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
| 2009 | 한국기록학회 | 강수나 |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

가) 保存 및 活用 方案

保存과 活用방안을 연구한 논문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동식, 전민중, 이혜민, 윤보기 등 8편으로 그 중요내용을 정리해보면 保存방안에서는 주로 기준을 재설정, 시대적 구분 재명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술지도와 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活用방안으로는 상업·문화적 컨택트의 발굴, 사업비 지원정책, 소유자의 인센티브 강화, 구조적 안전성과 설비의 보강,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주된 방안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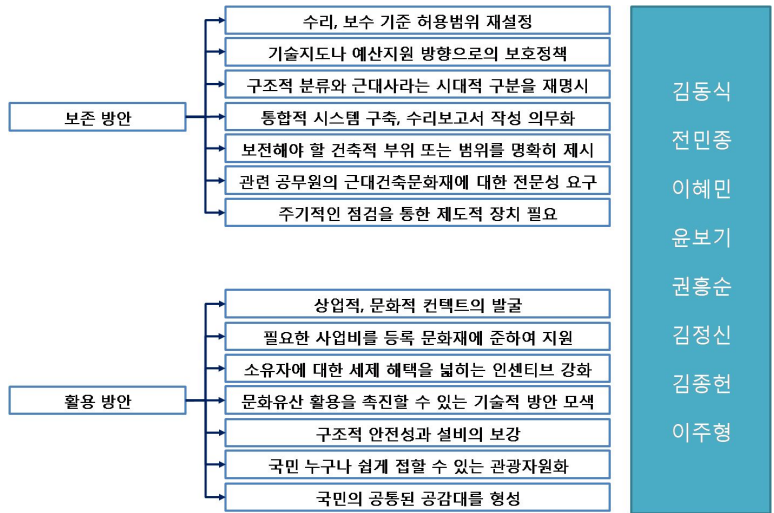


그림 4. 保存 및 活用방안

나) 活用方案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염용래, 조신혜, 조홍석의 연구로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재생으로의 활용을 제시한 염용래는 의미 재생과 맥락적 재생, 그리고 이미지 재생으로 분류하였다. 유형으로 분류한 조신혜는 지속형 활용, 전용형 활용, 부활형 활용, 그리고 이벤트형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NT운동의 도입을 제안한 조홍석은 기준과 관리프로그램, 의식개혁교육사업 병행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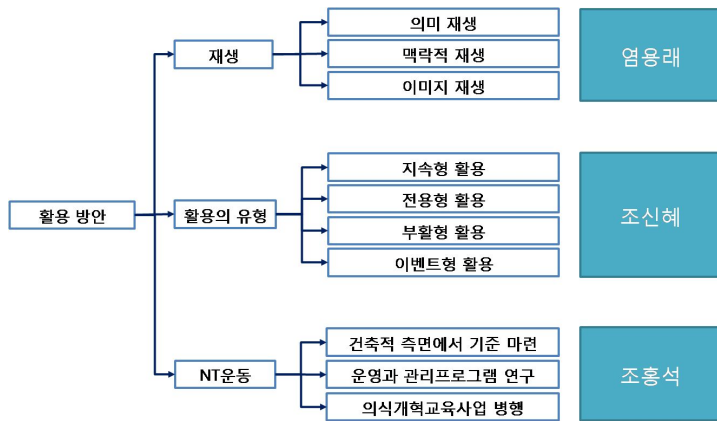


그림 5 활용방안

다) 保存方案

보존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강수나, 박근수, 정이순의 연구가 대표되는데, 먼저 정이순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제시된 가치판단 기준에 따른 보존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박근수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관리지침에 의하여 보존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강수나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의 관리방안으로 보존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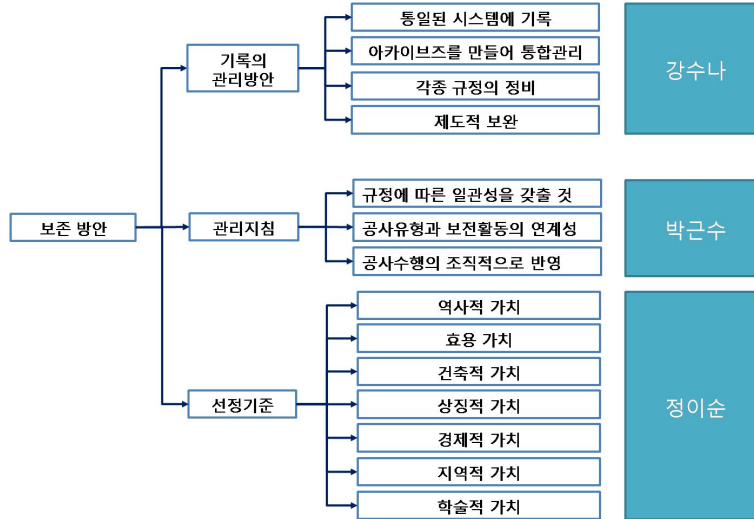


그림 6. 보존방안

라) 未活用

미활용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고훈의 연구가 대표되는데, 고훈의 연구는 현재 남아있는 미활용 근대건축물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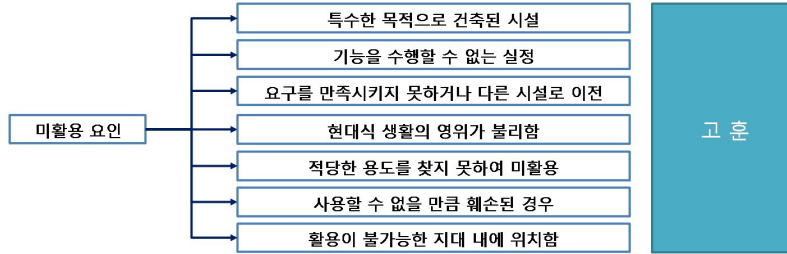


그림 7. 미활용 요인

마) 現況事例

현황사례를 통한 분석을 제시한 연구는 김정동, 키미지마 카즈히코, 윤성훈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김정동의 연구는 대전 근대건축물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대전을 표본으로 삼아 현황 근대건축물의 유형을 찾고자 하였다. 키미지마 카즈히코의 연구는 동경의 근대건축물의 현황과 보존방식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근대건축물에 관한 행정 및 보존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을 찾고자 하였다. 윤성훈의 연구는 해외의 근대건축물의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비교적 근대건축물의 활용이 잘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 분류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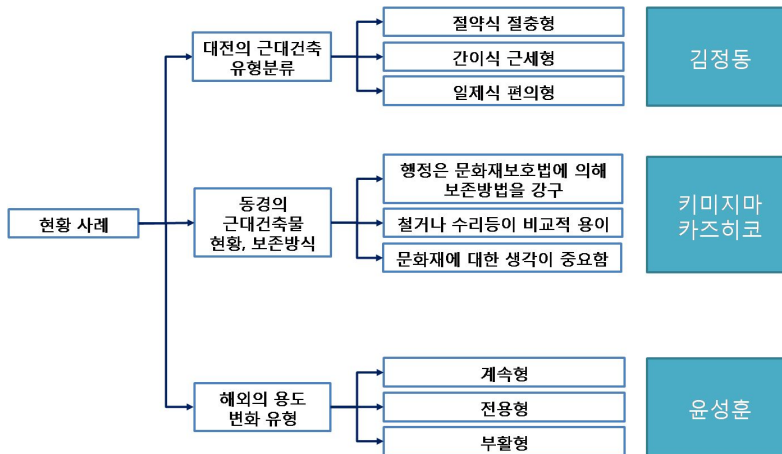


그림 8. 현황 사례

바) 變遷過程

근대건축의 변천과정을 제시한 연구는 조홍석, 김진안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조홍석의 연구는 근대건축물의 형성과 변천원인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충남지역의 근대건축물이 변천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보존상태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김진안의 연구는 광주지역으로 제한하여 근대건축물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연도별 근대건축물의 변화를 찾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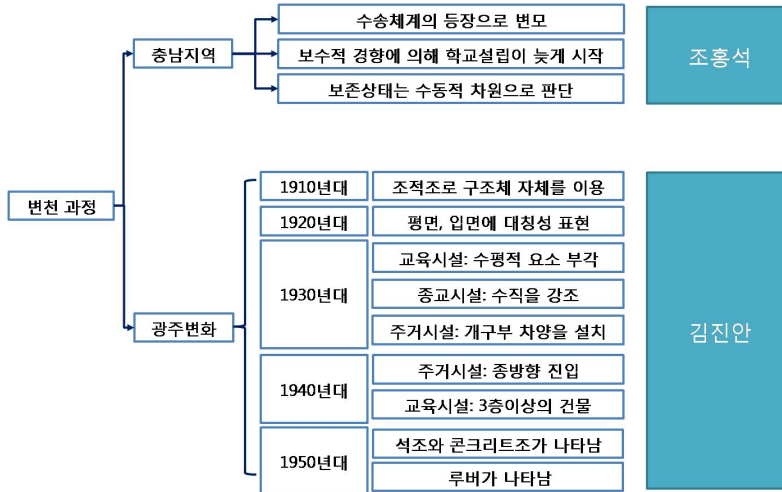


그림 9. 변천과정

학위논문과 국내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근대건축물, 근대문화재를 검색어로 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논문을 고찰한 결과, 논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제와 결과 값이 보존방안, 활용방안, 보존 및 활용방안, 미활용분석, 현황과 사례, 변천과정 분석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지역의 변천과정을 통해 변천원인을 찾고, 현황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미활용 요인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미활용 요인을 참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자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고찰한 결과 보존 방안은 주로 수리·보수 기준 허용범위 재설정, 기술지도나 예산지원 방향으로의 보호정책, 구조적 분류와 근대사라는 시대적 구분을 재명시, 통합적 시스템 구축, 수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보존해야 할 건축적 부위 또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 관련 공무원의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 요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제도적 장치 필요를 제시하였으며, 활용방안으로는 상업적, 문화적 컨택트의 발굴, 필요한 사

업비를 등록 문화재에 준하여 지원, 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는 인센티브 강화, 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모색, 구조적 안전성과 설비의 보강,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지원화, 국민의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3. 韓國近代建築의 導入과 形成

3.1 近代建築의 導入

3.1.1 아시아의 近代建築 導入

건축사에 있어서 ‘전통건축-근대건축-현대건축’이란 흐름의 틀은 언제나 ‘시대의 현실’에 밀착되어 이뤄져왔음을 알 수 있다. 곧 현대건축은 ‘근대 건축이 굴러내려와 이루어진 건축사’이다. 우리 근대 건축은 그 과거사를 뒤엎는 역정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우리 건축사에서 근대 건축을 삭제 시켜버리면 그 빠진 고리로 인해 건축사는 체계화 될 수 없다. 현대 건축의 이해와 실천이 근대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⁰⁾ 그러나 이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다. 특히 지역적인 연구를 제외하면 근대건축의 도입과 형성 등에 관한 연구³¹⁾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근대건축도입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서구열강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 과정 중에 자국의 건축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서구건축은 토착건축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변화 되었다.

서구건축의 최초 전이는 인도(Goa, Vengol, Calcutta)와 같은 열대지방에서 그 곳 건축과 융합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동남아시아(자카르타, 마닐라, 말라카, 페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왔다. 마지막 단계는 중국(上海, 靑島, 天津, 漢口, 지부...등), 만주, 대만, 일본으로 이어졌고 조선이 그 종착지였다.³²⁾

동남아시아는 아일랜드인 콜맨(George Drumgoole Coleman, 1795-1844)이 1822년 싱가포르에 처음 나타났다. 그는 영국의 동아시아통이며 식민지 행정관인 라플스(Sir. Thomas Stamford Raffles, 1781-1826)와 함께 그곳에 그의 건축을 채워 나갔다. 콜맨은 동아시아에서 죽은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 였다. 인도네시아로 온 건축가는 암스텔담과 베를라헤

30) 김정동 1999,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p.20.

31) 김정동 1992, 東西 근대건축의 轉移와 逆轉移에 관한 연구, 牧園大學校 論文輯 第22輯.
박대준·주남철 2002, 우리나라 銀行建築의 변천에 관한 史的 考察, 大韓建築學會論文集 計劃系 18권2호(통권160호)

32) 김정동 1992, 앞의 글.

(Hendric Petrus Berlage, 1856-1934)였다. 인도네시아는 네델란드 동인도회사(VOA)가 점령했었다. 베를라헤는 자바섬의 수라바야(Surabaya)³³⁾에 “알 제민보험회사지점”을 세웠다. 그는 네델란드 암스텔담에 증권거래소(1903)를 세운 건축가로 유명해졌다.

릴라이언스 빌딩으로 유명한 다니엘 번함(Daniel Hudson Burnham, 1846-1922)은 20세기 초엽에 필리핀으로 들어왔으며 이어 파슨스(William E.Parsons)도 뒤따라 왔다. 마닐라에는 에펠(Gustave Eiffel, 1832-1923)도 들어왔다. 그는 벨기에 엔지니어들을 이끌고 와 성세바스찬 교회(San Sebastion Church, 1875)를 세웠다. 그는 후에 에펠탑(1889)을 세워 명성을 얻었다.³⁴⁾

이와 같은 서구의 건축가들의 동남아시아 진출과정 속에서 극동아시아로 온 최초의 건축가는 영국인 챔버스(Sir William Chambers, 1729-1796)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중국 깊숙이 들어왔으며 반면 중국을 서양에 알렸다. 영국건축의 중심인물이었던 스콧트(George Gilbert Scott, 1811-1878)도 왔다. 스콧트는 1860년대 영국에서 제일 큰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St. Pancras 역 및 호텔(1866-71)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성기(盛期) 빅토리안 고딕(Victorian Gothic)의 주창자로서 붉은 벽돌을 선호 했다.

그는 상하이에 영국 런던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당인 성삼일당(聖三一堂, 1866-1869)을 세웠다. 이 건물은 “FAR EAST”(1877. 3)에 처음 소개됐다. 그는 그즈음 런던에 세운 알버트 메모리얼(1862-72)과 리버풀 성당(Liverpool Cathdal, 1903)으로 명성을 얻었다.

영국인 건축가 두사람은 일본취미(日本趣味)에 기울었다. 한사람은 스콧트와 동료시간인 버지스(William Burges, 1827-81)였다. 둘은 런던의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1818-1921)을 공동으로 설계했다. 버지스는 1858년 경부터 일본취미에 빠졌다. 1862년의 런던 만국박람회가 끝날 즈음 그는 일본 출품작들의 구매자였다. 에드워드 고드윈(Edward William Godwin, 1833-86)도 마찬가지 였다.

당시 일본은 에도시대(江戸, 1603-1867)였으며 쇄국기(1639-1853)일때였다. 동경에는 긴자연와가(銀座煙瓦街, 1877)가 형성되었다. 지붕은 트러스와 철골조로 덮였고 일본의 근대 건축은 의양풍(擬洋風)건축으로 서양근대건축에 화풍(和風)을 가미한 당파풍(唐波風)의 근대건축이 되고 있었다.

33) 수라바야는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東자바섬의 主都였고 네델란드 해군기지 이래 “호아지중해(濠亞地中海)”의 중심항구

34) 김정동 1992, 앞의 글.

1877년에는 영국고딕계 건축가 콘돌(Josiah Condor, 1852-1920)도 왔다. 그는 런던대학을 졸업하고 버지스의 건축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소온(Sir. John Soane, 1753-1837)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버지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므로 콘돌을 일본에 소개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영국과 일본과의 초기 건축계보를 알 수 있는 일이다.

콘돌은 1875년 세워진 공부대학교 조가학과(工部大學校 造家學科, 현, 동경대학교)의 첫 번째 졸업생 4명을 가르쳤다. 그는 프랑스로의 건축재료, 기술,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일본건축의 아버지”가 되었다.

일본 경제인 시브자와 에이찌³⁵⁾의 베니스 선호풍(1888) 그리고 동경 마루노우찌의 런던풍 오피스街 조성(1872)은 우리나라 부산까지 이어졌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중서부에서 풍미하던 아메리칸 컬러니얼은 당대의 일본 북해도로 건너왔다.

반면 국력 과시용으로 치르는 만국박람회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수입품(약탈품)을 과시하는 시장과도 같았다. 약소국들은 영국, 프랑스등의 정원이 되었다. 인도, 싱가포르, 홍콩, 상해, 요코하마 그리고 거문도(巨文島), 제물포(濟物浦)도 그 한타래였다.³⁶⁾

3.1.2 朝鮮의 近代建築 導入

조선의 경우는 3면이 바다였으므로 해외로 나가기에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었지만 일본에 의해 차단당했다. 중국 송대(宋代)까지는 중국상선이 우리와 왕래했으나 명대부터 왜적이 노략질을 계속해 “항해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해상활동도 정지되었던 것이다. 조선이 서양을 알게 되고 동아시아인과 접촉한 것은 실학자 이수광(芝峯, 1563-1628)에 의해서 였다. 그는 1590년 처음 입명사행(入明使行)했다. 燕京(北京)에서 그는 유럽문화의 새로운 지식을 봤고 1597년 다시 그곳에 갔을 때는 서양제국의 발달한 문명과 技藝를 배우게 되었다.

1611년 세 번째로 북경에 갔을 때는 남방의 베트남(安南), 오까나와(琉球), 타일랜드(삼 혹은 타이, 暹羅) 자바등의 동남아시아 사신들과 교류하며 그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또

35) 日本史籍協會 1967, 시브자와 에이찌, 滯佛日記, 동경대학출판회.

36) 김정동 1992, 앞의 글.

한 그의 이름이 동남아시아로 널리 퍼졌다.

그는 “芝峯類說”, “芝峯集”, “昇平志”(1614) 세책에 그의 뜻을 담아냈다. 그는 이 백과전서에서 불랑기국(佛浪機國, 南蠻, 왕조실록에는 파랑국(波浪國 즉 포르투갈) 그리고 영길리국(永吉利國, 영국), 대서국(大西國, 이탈리아) 등 여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양문화의 流轉경로, 불랑기포, 구라과지도 등의 소개도 곁들였다.

16세기말 진주사람 조남벽(趙南壁)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으며 일본 경도(京都) 船主의 주인선(朱印船)을 타고 무역선 사무장으로 베트남 하노이 부근을 세차레나 항해하게 된다. (1604-1606) 한번 가는데 40-60일 걸리는 거리였다. 조남벽은 당시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건축을 보았으리라 여겨진다.³⁷⁾

본격적인 근대는 경복궁 중건(1865)이후의 조선조말 무렵부터였다. 쇄국과 우왕좌왕에 휩싸인 조선정부는 서양건축술의 발전상을 아직 잘 알지 못했다.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조선은 19세기의 기본적 컨셉인 근대화로 시계를 확대치 못하고 외부로부터 수탈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실 조선은 그 역세적 연유로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면에서 스스로 그동안 순수한 백의적 건축전통을 자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차츰 경험 많은 서구열강의 무대가 되었으며 이양선과 함께 건축가들도 따라 들게 됐다.

초기의 유입은 제물포를 개항장에서 이루어 졌으며 그것이 서양의 신건축 즉 “이양건축”이 되었다. 주로 목조와 붉은 벽돌조 혹은 반목조로 이루어진 이 다양다종의 양식은 그 시대의 상징이었으며 지배의 도구였다.

채서자강(採西自強)의 논리가 뒷받침되어 직설(直設)된 공관, 종교건물, 학교, 병원, 항구, 철도(역사), 호텔, 공원(온실), 묘지, 전화, 우편, 공장(방적) 창고, 상점, 오피스, 형무소, 전용주거 등이 개항지등에 세워져 나갔다.

이 서양의 전이물들은 수혜받은 층의 전유물이었고 과시적이었으며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경외로운 것이었다.³⁸⁾

한국에 서양 건축양식이 들어온 경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공관 계통의 건축, 둘째는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서양인의 종교건축 및 산하공공시설, 셋째는 외국인의 상사 건물 및 주택, 다음으로 한말부터 계속되는 일본인에 의한 관아건물과 공공건물이 그것이

37) 한국일보, 1992.4.14.

38) 김정동 1992, 앞의 글.

다. 이들 개화기의 양식건축들은 1890년대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질적인 재료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체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초보적인 단순함을 보인다. 대체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회건축은 고딕복고양식을 서구 각국의 공관은 르네상스 내지 절충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을 통한 건물은 대부분 목조의 의양풍(擬洋風)이나 르네상스풍의 절충주의 건물이고, 후기에 오면서 정규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양식주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³⁹⁾

한편 우리의 건축물이 외국에 세워진 사례도 몇 개 있다. 1899년 조선 정부는 파리만국박람회에 참가 우리의 전통건축을 보여주는 전시관(Pavilion)을 세웠다. 1893년에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발견 400주년기념을 위한 시카고, 콜럼비아 만국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일제에 의한 섭취와 동화의 과정에 이양인 건축가 몇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당시 급변하는 시대에 조선에도 근대건축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외국으로부터 직·간접적 유입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콘돌의 제자 중 한사람이며 천황가(天皇家) 건축의 전문가이기도 한 공학박사 가타야마(片山東熊, 1854-1917)는 1909년 아카사카리큐(赤坂離宮, 영빈관)를 동경에 세웠고 이어 서울의 이왕가(李王家) 건물들과 국가적 모뉴멘탈리티를 갖는 바로크적 건물을 세웠다. 그는 고종과 대원군을 위해 운현궁(雲峴宮)⁴⁰⁾, 사동궁(寺洞宮)도 세웠다. 그는 영국적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이어 프랑스계 디자인을 몸으로 배움으로 해서 프랑스 네오바로크를 베이스로하는 내외부 공간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거기에는 비엔나의 왕궁 그리고 아메리카 보자르도 삽입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목수의 대부분이 근대건축에 참여하였으나 조선과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1906년 부터는 일본 영향하에 탁지부(度支部) 건축소(建築所) 관제가 공포되어, 상설 정부공사 전담체제 아래서 건축이 이뤄졌다. 그들이 탁지부 산하에서 지은 구한국 정부의 관아 건물들, 즉 탁지부청사, 내부청사, 농상공부청사, 평리원(平理院) 한성재판소, 부산재판소 등은 모두 서양 양식을 가미한 건물들이었다. 당시의 <건축소사업개요> (1909)에는 이 건물들이 태서(泰西;서양)건축을 참작한 양식으로 세워졌다고 적고 있다. 건축소의 출장소가 주요 도시마다 있었으며, 당시 건축소에는 대개 일본과 서양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대장

39) 문화재청, 황성성당 기록화조사 보고서, p.65.

40) 그는 고종황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첫 외국인 건축가였다.

성(大藏省)과 관련을 맺은 관료들이 근무했다. 당시 일본의 건축교육은 이식되어온 유럽건축학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건축학은 외국인이나 외국(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일본인 건축가들이 가르쳤는데, 당시 건축 역사는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양식 건축의 사전 지식을 교수하는 과목이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무력 병합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근대 건축물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조선은 만주와 시베리아로 가는 길의 길목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물론 이 시기 모든 건축이 일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청나라에서도 건축가가 건너왔고, 이땅은 국제건축 '이즘(ism)'의 한판 각축장이 되었다. 조선 건축의 대세가 국제적 영향권 속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그 시대에 그런대로 자신의 건축언어를 가진 건축물은 천주교성당(주교관)과 교회들 뿐이었다.

일본인들은 소위 '유로파(Europa, 歐羅巴)'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았던 서양 양식의 건물들을 일본풍이란 필터를 거쳐 한반도에 다시 이입시켰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후에는 신건축을 배운 일본 건축가들이 이땅에 몰려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미 서양의 연미복을 걸친 '서양건축가'로 바뀌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시대 우리나라의 상층부 인물들이 서양건축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점이다. 유럽,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가까운 극동 여러나라의 건축에 대해서도 무지함 그 자체였다. 이러한 서양 기술 지식의 결여는 건축적 측면에서 서양 배척의 도를 강화내지 심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서양 건축의 전이는 바로 서양의 침범을 의미했고 '서양 건축의 비하와 배척'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900년까지만 해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목적으로 '돌집'을 튼튼히 세워나갔다. 심지어 평양과 부산을 '외국인의 천지'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국내에서 건축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일본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건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거기에 국민적 관심을 쏟을 겨를도 없었다. 전통적 건축가로 볼 수 있는 장인(匠人)들은 길을 잃고 대부분 생업목수(生業木手), 즉 집장사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은 그들의 신건축을 세우기 위해 조선의 전통적 장소성을 마구 훼손(파괴, 이축, 용도파기)시켰고, 자신들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기도 했다. 누구하나 말리 자가 없었다. 일본인들은 왕궁, 관아, 私邸등을 파괴시켜나갔고 그 자리에 그들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축물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당시의 건축환경속에서 조선인에 의한 근대건축은 한참 후에야 조금씩 나타났다. 몇몇의 자생적 건축가, 제2의 교육(일본인에 의한 교육)을 받은 건축가, 그리고 해외 유학과 건축가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자생적 건축가 심의석(沈宜碩), 일본인에 의해 교육받은 건축가 박길룡(朴吉龍), 그리고 먼 바다를 넘나든 건축가 박인준(朴仁俊)등이 그들이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었다. 당연히 근대건축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건축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등장과 그들에 의한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6.25전쟁으로 비록소수이지만 소중한 건축물이 불타게 되었다. 휴전이 되면서는 지원시설 부흥이란 구호하에 미국 공병대에 의한 ‘양키 군인 건축문화’가 이 땅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41)

서양근대건축과 한국 근대건축은 상호간에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해 왔으며 “근대건축”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서양적 시각에서만 거론해 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근대건축은 관심이 적었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다. 42) 그러나 우리의 근대건축은 동·서양이 접촉하는 결절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거나 근대건축술의 전파경로 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韓國近代建築의 地域別 形成

19세기 서양제국이 산업혁명 이후 해외개척을 위하여 동양제국에 눈을 돌릴 당시 조선은 청과의 통상관계만이 이루어졌던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농본국가였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1908년까지 한국에서는 부산을 비롯한 총 10곳의 항구와 서울을 포함한 총 5곳의 도시가 개항장(開港場)⁴³⁾ 또는 개항장으로 설정되어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 대부분의 개항장과 개시장은 외국인을 위한 조계 및 거류지지 설정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41) 김정동 1999, 앞의책, pp.23~27.

42) 김정동 1992, 앞의 글.

43) 개항 이전인 쇄국정책하에서도 대외무역이 전혀 행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중국·일본·한국 등에서는 폐쇄적인 특정지역에서 특정 외국인에게 재유(在留)와 무역을 허용한 호시장(互市場)이 있었는데 중국의 광동상관(廣東商館) 일본 화란상관(和蘭商館), 당인옥부(唐人屋敷), 한국 부산의 초량왜관(草梁倭館)등이 그 곳이다. 내지와 격리되어 있는 이들 상관(商館=Factory)안에서 특정 외국인이 엄격한 규제하에 이들 나라의 허락된 상인들과 제한된 무역을 행하였다. 이 상관이 개항이후 조계제도(租界濟度)의 근원이 되었다.(朴廣成 1991, 「仁川港의 租界에 대하여」 畿甸文化研究, Vol.20 P.283.

로 근대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개항장이나 개시장이 설정되었던 당시의 도시들이 현재까지도 한국 내 주요 도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설정되었던 조계 및 거류지가 현재 각 도시의 구도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항장과 개시장은 한국 근대도시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도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항장으로 설정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항구도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20세기 전반기 동안 개항 도시의 형성 및 변화과정은 부분적이거나 한국 근대도시 및 근대 및 근대건축의 출발과정과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⁴⁴⁾ 아래의 표⁴⁵⁾는 개항장 및 개시장, 조계 및 거류지에 대한 것이다.

표 6. 개항장의 조계 및 거류지 요약표

| 개항도시 | 개항연도 | 조계 및 거류지 | 조계 및 거류지 면적 | 행정형태 |
|------|------|----------|------------------------|------------------------------|
| 부산 | 1876 | 일본전관거류지 | 384,405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 | 청국전관조계 | 20,834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원산 | 1880 | 일본전관거류지 | 235,365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 | 청국전관조계 | 33,266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인천 | 1883 | 일본전관거류지 | 32,595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 | 청국전관조계 | 6,763 m ² | 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 | 각국공동조계 | 462,812 m ² | 紳董公司 |
| 목포 | 1897 | 각국공동조계 | 726,024 m ² |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진남포 | 1897 | 각국공동조계 | 480,060 m ² |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군산 | 1899 | 각국공동조계 | 336,669 m ² |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성진 | 1899 | 각국공동조계 | 97,698 m ² |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마산 | 1899 | 각국공동조계 | 268,935 m ² | 紳董公司(사실상 일본영사 감독하 거류민 자치) |
| | | 일본전관거류지 | 993,832 m ² | 거류민 없음 |
| | | 러시아조차지 | 988,320 m ² | 영사감독(약간의 군대주둔) |
| 용암포 | 1904 | . | . | 통감부 이사관 감독하 거류 및 자치(거류민 극소수) |
| 청진 | 1908 | . | . | 통감부 이사관 감독하 거류 및 자치 |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개항장을 중심으로 근대건축의 형성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44) 송석기 2008, 「개항도시 목포와 군산의 구도심 공간 형성과정 비교」,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2호(통권34호), p.149.

45) 손정목 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pp. 459~460.

3.2.1 釜山

부산은 1407년(태종 7년) 3浦倭館의 설치 이래 대일 교린의 주요 관문이었으며, 1876년 이후에는 조선최초의 개항장이었다.⁴⁶⁾ 부산의 개항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과의 교류로 인해 그들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초량왜관의 부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개항된 타 개항장 보다 독특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다.⁴⁷⁾ 부산 草梁에는 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마도와 사이에 전통적인 조공무역(朝貢貿易)이 행해지고 있었다. 왜관은 일본인들을 위해 조선정부에서 시행하는 선린우호정책의 일환이며 조선측의 일방적인 호시장(互市場)이었다.⁴⁸⁾

부산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와 「同附錄」을 근거로 1876년 8월 24일 개항하였으며, 이듬해인 1877년 1월에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을 체결하여 인본전관거류지가 설치되었다. 이때 결정된 조계의 총면적은 약 11만 평으로 옛 초량왜관(草梁倭館)의 면적과 같고 지조(地租)는 일화 50엔으로 매년 말에 완납할 것을 결정하였다.⁴⁹⁾ 그러나 실제로 일본인들이 부산에 이주 정착한 것은 이 조약 체결 이전인 태정대신포고(太政大臣布告)로 일본의 일반인들이 부산 도항(渡航)이 허가된 9월부터이며, 이때에도 이미 8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해군용 석탄저장을 위하여 절영도 및 월미도의 일부를 조차(租借)하였다.⁵⁰⁾ 한편 청국(靑國)도 1884년 5월 에 초량동에 청국전관조계를 설정하고 청국 여사관을 설치하여 청국상인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⁵¹⁾ 청일전쟁의 여파와 부산항의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청국인 상권은 크게 떨칠 수 없었으며 그 세력도 미미하였다.

개항장은 조계장정에 첨부된 지도와 지계정식(地契程式, Form of Title Deed)으로 측량기사에 의한 거류지 경계명시와 거류지에서의 일반규칙이 정해지고, 구획정리와 지구할에 따라 지번이 붙여지면서 조선정부에서 과건한 관리의 감독하에 택지경매가 행해졌다. 부산 개항장

46) 이금도·서치상 2006, 「1936년 釜山府廳舍의 신축공사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91.

47) 정소연·우신구 2007, 「부산 개항장의 주요시설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7 No.1, p.336.

48) 李鉉宗 1975, 「개항장연구」, 일조각, p.168.

49) 부산직할시 1992, 『부산문화』, p.94.

50) 부산직할시 1992, 앞의 책, p.95.

51) 부산시청 홈 페이지, (<http://www.busan.go.kr/>)

일본전관거류지의 일본인은 기존의 초량왜관을 그대로 답습하여 용두·용미산으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에 맞춰 나누어져 있는 동·서관 지구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할하여 도로를 내고 이 도로선에 맞춰 지구를 분할했다. 그리고 분할하여 일부를 공용지로 사용한 것 이외에 배차지(排借地)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거류민에게 영구임대형식으로 불하하고, 지소임도규칙(1880.4)과 가옥건축가규칙(1880.7.19)을 시달하면서 토지소유권과 가옥구조를 규정하여 가로를 형성해갔다. 해안선이 현재보다 훨씬 산지쪽에 있었던 거류지에는 과거 관수왜가 자리에 영사관이 건립되어 들어서자 동관주변은 경찰서와 은행, 대규모 상점들이 입주하며 거류지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고, 서관 주변은 개항 이후 건너온 소규모 상인들의 거처와 무역잡화상점인 2층 목조 가옥이 즐비하게 늘어서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남항(현, 남포동) 일대에는 유곽과 유흥시설이 분포되어 있었다. 광복동과 중앙동 일대에도 대규모의 2층 목조가옥이 도로에 연하여 즐비하게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쪽 방면의 가옥들은 부산역사, 우체국, 세관청사의 공공건물과 해관청사가 있는 관계로, 무역과 잡화상 이외에 여관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 부산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정책에 부합하는 구조와 시설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빠르게 경부선 철도를 준공하고 곧이어 해안매립공사 등을 하면서 항만축조 등을 하였고, 도로와 교량,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시가지를 확장해 나갔다.⁵²⁾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형태를 행정관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영사관시대와 이사관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영사관시대에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 더불어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는 가운데 거류지에서의 행정권을 행사 했다. 그러나 1904년 8월에 강압적으로 체결된 <제일차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⁵³⁾에 따라 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까닭에 이사관 시대의 거류지 행정은 아주 막강하면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담은 명령이 많았다. 이사관 관할아래 시작된 부산거류지는 1880년 영사관인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일본인 정착지로 변모해 갔다. 영사관 시대는 거류지의 초기단계인 「정착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는 행정 및 통상에 필수적인 작업들이 주로 계획되어졌다. 또한 일본인들의 권리보호 혜택이 주어지자 대량 이주 함으로 인해 거주 필요시설 확충 및 행정권 확립, 통상사무의 용이를 목표로 거류지 주요시설물은 설립되었다.⁵⁴⁾

52) 정소연·우신구 2007, 앞의 글, p.337.

53) 1904년 8월에 조인된 것으로 공식명칭은 「외국인 용빙(傭聘)협정」이며, 한일협정서라도한다.(두산세계대백과)

초기 부산 개항장의 도시공간영역은 초랑왜관의 영역 승계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왜관시설이 마련된 영역구조를 바탕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시가지 구획이 이루어졌고 건축물은 그 구획계획에 따라 자리잡아 갔다.⁵⁵⁾

이때 가장 먼저 건립된 건물이 과거 관수왜가의 부지 위에 건립된 관리청⁵⁶⁾이 들어서고 이는 전술한 있는 영사관이고 이후 이사청으로 이용된다. 영사관과 함께 경찰서와 우편국, 일본거류민단사무소 정도의 건물이 초기의 행정적 인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 부산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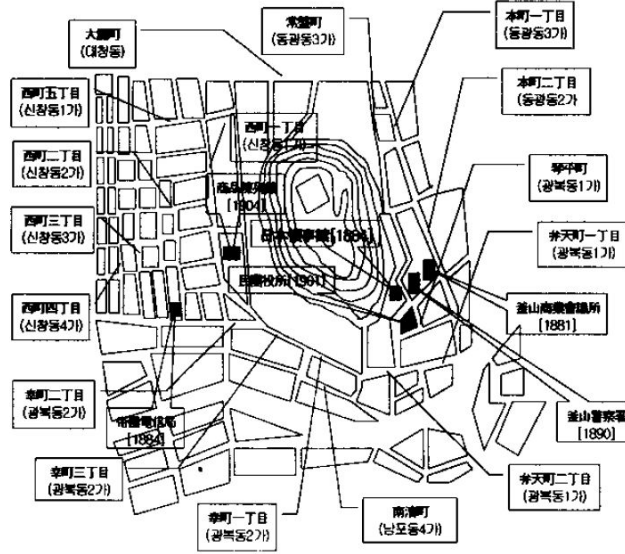


그림 10. 거류지시기의 시가지구역과 주요 시설물

항장은 일본 거류민 수가 계속 증가하고, 많은 토지와 가옥을 소유하게 된 일본인들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일본인들의 종사 직업도 다양해졌다. 특히 개항장이라는 특성상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회사와 함께 여러 공장들도 거류지에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다양한 소규모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공장들은 회사들과는 달리 큰 규모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변두리에 속하는 서정과 거류지 이외 지역인 부평정에 다수 위치하였다.

또한 여러 회사와 공장, 조합들은 자신들의 영업특성에 맞추어 알맞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살펴보면 본정과 금평정, 변천정에는 관공서와 항구가 인접해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었으며 남빈정과 입강정에는 바다와 면하여 수산업에 관련된 산업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운수업의 발달은 수산에서의 항구 위상과 함께 거류지에서

54) 송혜영·우동선 2001, 부산의 일본인거류지 형성과정,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제1호, p.314.

55) 송혜영 2002, 「부산일본전관거류지의 형성과 변화에서 나타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학학위논문,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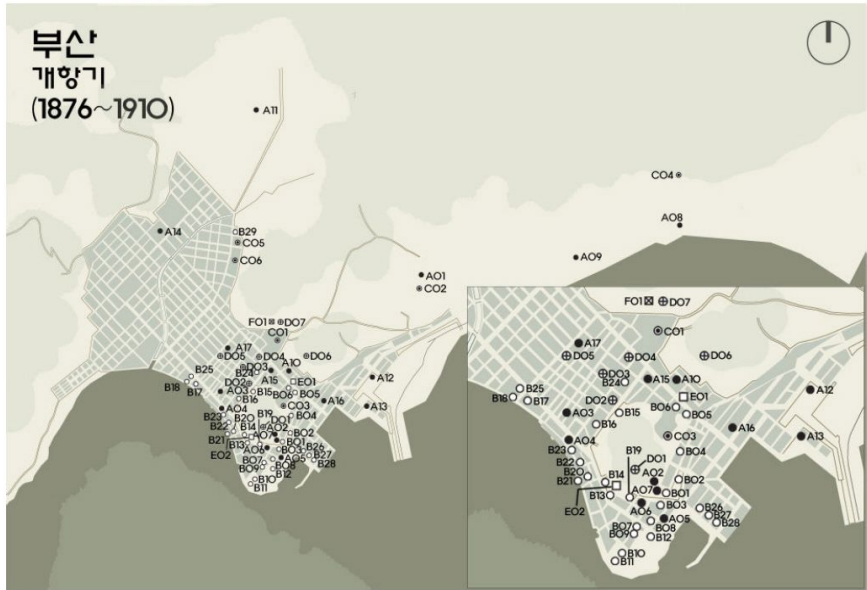
56) 1988년 8월 19일에 부산, 원산, 인천 3개 개항장을 두었으며, 그 뒤 1890년부터는 복잡한 사무처리를 위해 직원이 증가되어 독립된 관서인 감리서가 설치된 것이다.(부산직할시 1992, 앞의 책, p.92)

의 입지를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가 통용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은행이 설치되었으며, 본정 2정목 3번지(현, 동광상호신용금고 부지)에 위치했던 제일은행 부산지점은 초량왜관 당시 왜관출입자를 단속하고 감시하던 수문(守門)이 있던 자리이며⁵⁷⁾, 백삼십은행 부산지점은 오십팔은행을 인수하여 입강정(현, 대한생명 부산지점 부지)에 위치하였다. 또 십팔은행은 금평정(현, 우리은행 부산지점 부지)에 위치하였으며, 백팔은행이 북빈정 부근에 위치하였다.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은행 부산 출장소(현, 한국은행 부산지점)도 설치되었다. 그 외에도 부산 개항장에서는 거류민들의 문화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연극장과 요리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연극장은 행좌(幸座), 부산좌(釜山座), 동양좌(東洋座)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행좌(幸座)만 위치가 확인되는데, 행정과 남빈정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리점은 예기(藝妓)가 있어 손님을 접대하였던 곳인데 광월루와 대합정, 명호루, 경관정의 위치가 확인되고 있다. 초기 개항장에는 목적에 의한 교육시설 보다는 단지 늘어나는 거류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규적인 교육시설 설립의 요구가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1888년에 서정 1정목에 수제학교(修齊學校)가 설치되었으며, 1885년 여아(女兒)교육에 관계하던 본원사별원이 학교를 개설하였으나 학교가 신설되자 합병시켜 '부산공립소학교'라 정하고 일본의 소학교령 규칙에 따라 수업연한을 심상(尋常), 고등(高等) 각 4년으로 하고 학교 유지비용을 전부 거류지 주민이 부담하였다. 그 외에도 부산 개항장에는 거류민들의 문화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연극장과 요리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연극장은 행좌(行座), 부산좌(釜山座), 동양좌(東洋座)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행좌(幸座)만 위치가 확인되는데, 행정과 남빈정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초기 개항장에는 목적에 의한 교육시설 보다는 단지 늘어나는 거류주민의 자녀들을 위한 정규적인 교육시설 설립의 요구가 점차 커졌다.

종교시설은 초기에 그 활동이 미미했지만, 거류민 가족들의 이주와 함께 여러 가지 종교가 유입되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온 거류민들은 정신적 안식을 베풀어주는 신성한 장소를 필요로 하였다. 부산에 초량왜관이 설치되었을 때, 왕래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왜관 부근 용두산에 금평신사(槲平神社)가 세워졌고, 용두산 중턱에 변천사(辯天社)도 세워졌다.⁵⁸⁾ 그 이후 수많은 거류지회의 의결안을 통해 용두산신사는 보수가 행해졌으며 1899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거류민회 의결을 통해 용두산 신사로 불리게 되었다. 1907년에는 용미산에 신사를

57) 송혜영 2002, 앞의 글, p.55.

58) 송혜영 2002, 앞의 글, p.77.



| | | | |
|-------------|------------|--------------|---------------|
| A01.부산감리서 | A02.관리관청 | A03. 제국전신국 | A04. 조선전신국 |
| A05.해안우체국 | A06.거류민단 | A07. 경찰서 | A08. 부산진역 |
| A09.초량역 | A10.부산감옥서 | A11. 부산형무소 | A12. 부산역 |
| A13.부산세관 | A14.부산지방법원 | A15. 부산수비대 | A16. 부산우편국 |
| A17.부산헌병대 | B01.상업회의소 | B02. 제일은행 | B03. 십팔은행 |
| B04.매축회사 | B05.부산무역회사 | B06. 부산창고회사 | B07. 대지상점 |
| B08.상공회사 | B09.오십팔은행 | B10. 부산수산회사 | B11. 부산어시장 |
| B12.일한상공회사 | B13.토목합자회사 | B14. 일한공업소 | B15. 조선시보사 |
| B16.상품진열관 | B17.부산정미소 | B18.일조정비합자회사 | B19. 경관정 |
| B20.행과 | B21.광월루 | B22. 대합정 | B23. 명호루 |
| B24.유전석판인쇄소 | B25.대지정미소 | B26. 매축회사 | B27.관부연락사무소 |
| B28.일페창고회사 | B29.부산연초회사 | C01. 공립소학교 | C02. 개성학교 |
| C03.부산유치원 | C04.진일신여학교 | C05. 상업학교 | C06. 고등소학교 |
| D01.부산신사 | D02.동본원사별원 | D03. 묘각사 | D04~07.(미상) 절 |
| E01.구보병원 | E02. 제생병원 | F01. 복전별장 | |

그림 11.개항기 부산의 주요 건축물 위치

개설하였으며, 원래는 1894년에 거류지신사라 불렀으나 1908년 용미산신사라 개칭하였다. 공원으로 조성되어가던 용두산사와는 달리 용미산신사는 신사로서 그 기능을 오래 간직하지 못했으며, 후일 이부지에 부산부청이 들어섬으로 인해 신사는 사라졌다고 한다. 이외 남빈정에 수산신사(水産神社)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개항장에 설치되었던 의료시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구보병원, 제생병원, 백제병원의 위치가 확인된다.

1902년 북빈일대에 대한 매축허가를 하여 착공함으로써 부산항의 축조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는 부산이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도로와 철 등의 착공과 더불어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었다.⁵⁹⁾

3.2.2 仁川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침략적 의도로 통상조약을 강요한 목적인 운양호사건을 일으켰다. 그 결과 강화도조약(丙子修護條約, 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되고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자 일본과 열강의 세력이 몰밀 듯이 침투했다.⁶⁰⁾ 1877년 가을 일본에 의해 서해안 측량이 시작되고 일본 공사로서 조선에 온 하나부사가 이를 책임지는 권한을 맡아 장산포와 충청도 성호포, 염성포 그리고 경기도 아산만 고온포 등을 중심으로 바닷길을 측정하고 해도를 작성했다.

그리고 하나부사는 1879년 정월에 제물포에 도착, 이곳에서 1주일 동안 머물며 몇 차례에 걸친 답사를 토대로 만들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할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1882년 9월 개항하기로 결정하였다가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개항이 연기되어 1883년에 개항이 실현되었다. 또한 제물포는 일본을 비롯해 청국은 물론 구미 열강들과의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제물포가 구한말 국제 외교의 현장으로 각광을 받게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물포에서 체결된 첫 조약은 개항 1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이후 6년만의 일로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자 1주일 늦은 5월말 영국과도 수교하게 된다. 영국과 맺은 ‘朝英修好通商條約’에서는 제물포, 원산, 부산, 한양, 양화진이 개항 시장으로 열거되었는데 제물포라는 지명이 국제 조약상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다음 6월 초순경에는 朝獨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883년 개항이후 이듬해 1884년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 청국을 비롯한 구미 각국이 조계를 설정하고 영사관을 설치하게 된다.⁶¹⁾

제물포에서 초기 근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영사관이 된다. 1897년 영국은 항동 1가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는 언덕 위에 붉은 벽돌의 단층 양옥의 영사관을 짓는다. 청과

59) 정소연·우신구 2007, 앞의 글, pp.337~338.

60) 李基白 1976, 韓國史新論, 一潮閣, pp. 314-316.

61) 나채훈·박한섭 2006, 인천개항사, 미래지식, pp.73~83

러시아도 영사관을 개설하고 공관건물을 신축하였다.

개항이 되자 일본 상인이 지계(地界)⁶²⁾를 설정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앞을 다투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인천에는 일본 지계, 청국 지계, 각국 지계 등 세 지계가 생겨 항구 연안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항 2년 후인 1885년 4월에는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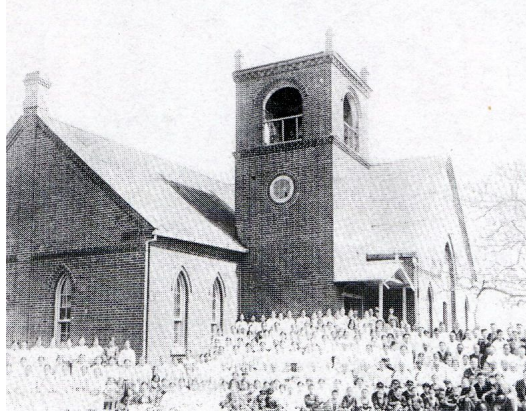


그림 12. 내리교회

오게 되었지만 당시 국내 사정은 갑신정변이 일어나 불안이 감도는 어수선한 때여서 외국인 부녀자의 입경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여서 하는 수 없이 언더우드만 서울로 향하고 아펜젤러 목사는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되돌아 갔다. 뒤이어 한달 후에는 감리교의 의료 선교사 스크랜튼이 입국하고, 그해 6월 인천에 아펜젤러는 한달 가까이 머무르며 예배를 보았는데 그가 예배를 본 곳이 인천 제물포교회(내리교회)의 시원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참석한 한국 최초의 교회는 언더우드 목사가 세운 서울 정동교회(1887년 9월:지금의 새문안 교회)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인천의 내리교회는 이보다 2년이 앞선 1885년의 일이었다.

천주교는 1899년으로 기독교보다 4년 정도 늦다. 파리의방교전교회 소속의 홍요셉 신부가 초대 본당 신부로 인천에 파견되어 제물포항에 입항하고, 답동 언덕 위에다 성당 건축을 위한 부지 3천여 평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홍요셉 신부가 인천에 오기 이전에 이미 파리의방전교회의 우바오로 신부가 답동에 입시로 가건물을 짓고 전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바오로 신부는 1893년에 인천에 와서 활동하다가 1898년에 서울로 전임하였고, 후임으로 홍요셉 신부가 온 것이다.

62) 지계(地界)는 동양의 개항장에만 있던 특수한 제도로 분리경계를 두고 이를 점유한 국가의 자치지구로서 행정적으로 해당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에 있어서도 치외법권의 특전이 주어진다. 그 명칭은 지계 외에도 조계(租界), 거류지(居留地)가 동일하게 사용된다. 지계의 유형은 두가지로 단독조계와 각국공동조계로 구분되며 이에 맞추어 한국의 각 개항장을 살펴보면 개항 1기로 불리워진 부산과 원산의 개항은 일본 단독조계만을 설치하였다. 제2기인 인천개항은 부산및 원산과 달리 1883년 1월에 설치된 일본 단독조계에 이어 동년 5월에 각국 공동조계를 1884년 4월에는 청국(淸國) 단독조계를 설치하였다. 제3기 목포와 진남포의 개항에서는 각국 공동조계만을 설치했다. 제4기는 마산, 군산, 성진의 개항이며 이때도 각국 공동조계만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마산항은 러일간의 세력다툼으로 결국 각각의 단독조계가 생겼다.

1890년에는 영국 해군 중군신부 코르페와 미국인 의사 랜디스가 인천에 상륙했다. 코르페는 화강암을 주재료로 교회를 신축하였으며 2층 규모의 성누가병원(樂善施醫院)을 개설하였다. 성누가병원은 랜디스가 타계하고 폐쇄되었다가 1902년 러시아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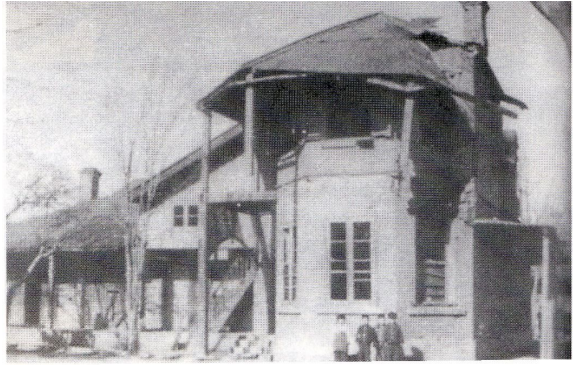


그림 13. 성누가병원

교육시설로는 1893년 내리교회 존스목사에 의해 설립된 조적조 건축물인 영화학당이 최초이다. 표는 인천의 근대건축물로서 개항부터 인천에 설립된 건축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현존 인천지역의 근대건축물

| | 건물명 | 건립 | 설립자/관계자 | 특징 |
|----|-------------|------|---------------------------------|--------------------------|
| 1 | 제물포구락부 | 1901 | 사바틴(러시아) 데슬러(미국) 뤼일리스(독일) | 지상 2층 조적조 |
| 2 | 선린동 화교주택 | 1939 | · | 지상 2층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
| 3 | 구 청국영사관 회의청 | 1884 | · | 지상 1층 목조, 측벽은 조적조 |
| 4 | 화산중산학교 | 1934 | · | 지상 2층 조적조 |
| 5 | 해안천주교교회 교육관 | 1939 | · | 지상 2층 조적조, 지붕-목조 트러스 |
| 6 | 구 일본 제일은행 | 1897 | · | 반원형 아치현관, 외관-화강암쌓기 |
| 7 | 중구청 | 1882 | 일본 | 외관-갈색 스크레치 타일 |
| 8 | 구 일본 18은행 | 1890 | · | 지상 1층 조적조, 지붕-일식기와 모임지붕 |
| 9 | 구 일본 58은행 | 1892 | · | 지상 2층 석조, 지붕-맨사드 |
| 10 | 인천우체국 | 1896 | 일본 | 지상 2층, 석재 및 콘크리트 혼용 |
| 11 | 성공회 성당 | 1890 | 코르페 주교 | 유럽 중세풍 양식의 석조 |
| 12 | 답동천주교 성당 | 1897 | 홍신부 | 장방형 평면, 평면구성-후진, 네이브 아이일 |

3.2.3 木浦

목포를 포함한 한반도 서남해안의 자연환경적 특징은 양호한 바닷길을 사이에 둔 도서와 해안지역 그리고 내륙으로 길게 만입되는 영산강에서 그 모두가 찾아진다. 특히 내륙깊숙히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과 그 젓줄을 머금은 주변의 평야들은 천혜의 양지로서, 일찍부터 독자적이고 발전된 문화를 영위케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와같은 지리적 이점들은 근대 개항장으로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었다.⁶³⁾ 개항이전 목포는 수상교통의 요충으로 진(鎭)이 설치되었고 만호청(萬戶廳)을 중심으로 40여호밖에 없었던 적막한 한촌이었다.

1876년 이래 부산·원산·인천 등이 차례로 개항됨으로써 한국의 전지역은 3개항장의 시장권에 편입되었다. 한국 최대의 곡물 및 면화의 생산지였던 전라도 역시 금강 유역의 강경지역을 경계로 그 이북은 인천항에, 그 이남은 부산항의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전라도는 이들 개항장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확대를 도모한 일본은 전라도 내 개항장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⁶⁴⁾ 일본은 이미 1892~3년 경부터 주한 일본대리공사 곤토(近藤眞鋤)로 하여금 북부지방은 대동강 유역의 한곳을, 남부지방은 전라연안의 한 항구를 외국통상항으로 개방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종용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목포의 개항을 서두르게 된 것은 3개항 중 부산항을 제외한 인천과 원산의 대일무역이 대청무역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목포 개항의 궁극적 목적은 인천과 원산의 무역주도권을 일본상인으로부터 탈취한 청국상인의 부산진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자국의 무역권으로 확실하게 편입시켜려는데 있었다.

1987년 10월 1일을 기해 개항된 목포항은 외국무역의 거점뿐만 아니라 국내무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더불어 교통, 통신, 금융 등 보조시설이 확충되어 갔다.⁶⁵⁾

개항이후 근대건축과 관련하여 가장먼저 거론된 것은 조계지 문제였다. 목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공동조계만을 설치하였는데 그 결과 열강의 토지거점을 둘러싼 각축(角逐)이 발생하였다. 그중 각국 공동조계의 영사관 부지 문제와 삼학도(三鶴島)와 고하도(高下島) 문제는 핵심 사항이었다. 러시아는 1898년 8월에 그들의 영사관 부지로 19,311m²를 확정하였

63) 목포시 1987, 木浦市史(人文編), 木浦東亞印刷社, p.115

64) 한철호 2008, 「대한제국기 목포항의 무역구조와 유통권의 변동(1897~1910)」, 『호남문화연구』 제42집, p.68.

65) 한철호 2008, 앞의 글, pp.69~70.

으며 일본은 이보다 한발 앞서 1997년에 조계지내 북쪽인 노적암(露積岩)밑의 산록(山麓)과 전토(田土)를 합하여 52,986㎡를 확보하였다. 영국은 1898년 3월 26일자로 프랑스영사와 함께 영사관부지를 청구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목포조계지내 동남변에 있는 암석 밑의 약 12,475㎡를 결정하였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1898년 2월 26일자로 일본 영사관 부지 동구에 있는 송도에 신청하였으나 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로써 목포조계 내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일본, 러시아, 영국이 영사관부지를 확보하였다.⁶⁶⁾

선교사에 의한 종교의 전파는 1898년 가을 서울로부터 벨 牧師 가정이 목포로 이사를 오고 뒤이어 의사이며 교사인 오웬(C.C Owen)이 오게되어 목포스테이션(Missionary station, 지방선교부)이 개설되고 부터였다. 초기의 교회는 한옥이었던 것으로 전하며 나날이 신도의 수도 증가하였으나 1901년 벨 목사의 부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뜨자 벨목사도 돌아가게 되었고 오웬의사 부부도 병의 치료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목포 스테이션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 선교본부에서는 6개월 후에 레이놀즈 목사를 목포로 보냈으며 1902년에 벨 목사와 오웬 의사가 돌아오고 프레스톤(邊堯漢, J.F.Preston)부부가 증파되어 선교활동이 재개되었다. 목포교회는 교인이 급증함에 따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초의 서양식교회를 1902년 말 무렵 건립하였다. 교회당은 벽돌벽과 기와지붕의 절충식이었다.⁶⁷⁾

근대학교교육의 경우도 선교회에서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전라남도 내에 몇 개의 보통학교를 빼고는 소규모의 시골서당이 있었을 뿐이었다. 선교회에서는 신자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교육에 임하였다. 학교설립에 관한 논의는 스테이션 설치 후 6년이 되는 1903년에 시작되었다. 그해(음력 9월 9일) 벨 목사는 교회의 유지들의 협력을 얻어 남여학교를 창립하였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9월 15일에 남학교는 서당식으로 양동 86번지 유래춘(柳來春)의 집에서, 여학교는 같은 번지 벨 목사 사택에서 개교하였다. 이것이 영흥학교(永興學敎)와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이다. 두 학교는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폐교되기도 하였지만, 광복 후 두학교는 각각 재개교하여 현재의 정명여자중·고등학교, 영흥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오웬 의사는 진료소를 설치하고 서양의술로 치료를 통해 선교사업에 힘썼으나 1904년 말에 벨 교사와 함께 광주로 떠나고 후임으로 놀란(Joseph W.Nolan)의사가 왔으나 그도 역시

66) 목포시 1987, 앞의 책, pp.293~295.

67) 목포시 1987, 앞의 책, pp.796~798.

광주로 떠났다. 그후 전주에 있던 폴 사이트(Wiley H.Forsythe)의사가 와서 진료 하였으나 1911년 신병을 얻어 귀국한 후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나라 첫 한국인 의사인 오극선이 목포에 와 1년간 奉任하다가 세브란스의학교 교수로 초빙되어 가고 1912년에 리딩햄(韓三悅, Roy Samu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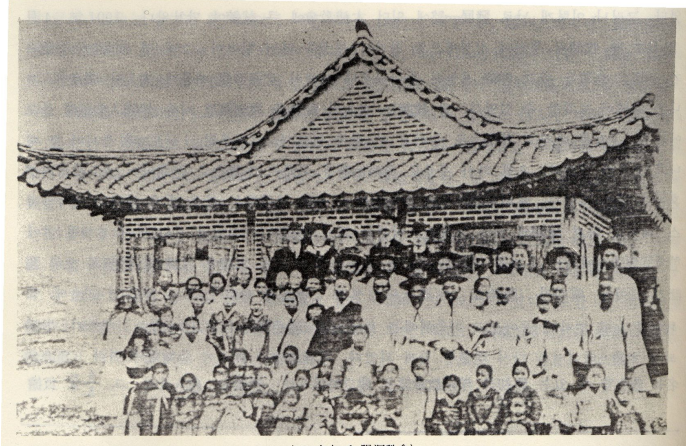


그림 14. 1900년 초의 목포교회

Leadingham) 부처가 오게 되었다. 의료선교가 다소 안정된 1914년에 화재로 진료소가 소실되었으나 미국미조리주 성요셉 장로교회 교인들이 1만원의 현금을 보내왔다. 리딩햄 의사는 이 돈으로 호남동 6-1번지 언덕위에 석조 2층의 현대식 병원을 짓고 프렌치 기념병원(French Memorial Hospital)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병원은 1930년대 말,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까지 지속되었다.⁶⁸⁾

3.2.4 群山

군산은 전라북도의 서북단, 금강하구의 좌안(左岸)에 위치하며 옥구군, 익산군, 김제군, 논산군 등에 걸쳐 있는 호남평야를 배후지역으로 하여 조선시대에는 조운, 군사, 경제적 요지였다. 군산은 다른 개항장들과는 달리 기존취락이 쇠퇴하여 가는 과정에서 개항장으로 선정되어 개항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다른 개항장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도시구조를 형성한 지역이며, 해방이후에는 성장이 뒤떨어져 개항기의 잔영을 잘 보존하고 있는 편이다.⁶⁹⁾

일본은 1876년 한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후 부산항의 개항과 함께 20개월 이내에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해안지방에서 다른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자 해안을 향해 측량하여 개

68) 목포시 1987, 앞의 책, pp.799~800.

69) 尹正淑 1985, 「開港場과 近代都市 形成에 關한 歷史地理學的 研究」, 地理學 第32號,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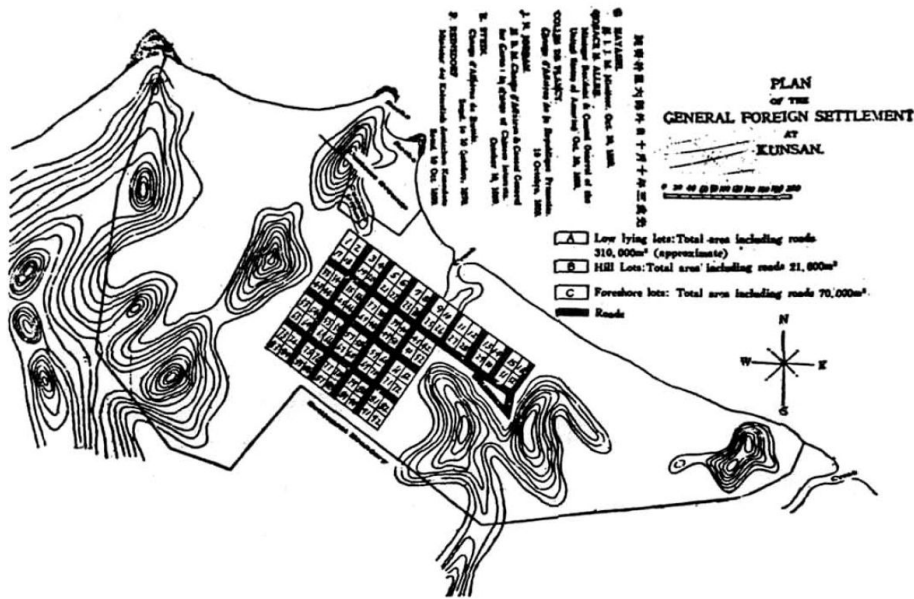


그림 15. 군산각국조계도(1899)

항장 후보지를 조사하는데 군산은 그 후보지중 하나였다. 그러나 1877년부터 1880년에 걸친 측량에도 불구하고 군산이 개항장으로 먼저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본이 그 배후지역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단순한 기술적 견지에 의해 항만으로서 부적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농업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던 일본은 인구격증에 따른 식량문제의 해결책으로 조선미(朝鮮米)를 원산, 인천 등지로 수송했다가 본국으로 수입하여야 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수요증대로 전북평야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쌀의 구매와 반출을 위하여 군산의 개항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산은 한국정부의 칙령에 의해 마산, 성진과 함께 1899년(光武 3년) 5월 1일에 6번째로 개항되었고, 같은 해 10월 11일 한국외무대신과 일, 미, 불, 로, 독, 청의 각국사신에 의해 각국공동조계계획이 승인되었다.⁷⁰⁾ 조계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격자형 평면을 취하여 구성되었는데 북부의 군산항을 중심으로 지금의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일대이고 아울러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졌다.⁷¹⁾ 그런데 군산의 개항에 대한 요구는 일본이 주축이 되었고,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는 조선의 쌀을 가져 갈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연히 군산의 항만과 경영은 개항초부터 일본의 독무

70) 尹正淑 1985, 앞의 책, pp.83~84.

71) 송석기 2004, 「근대도시 군산의 일제시기 건축유산 현황과 건축적 특성」,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129.

대를 이루었다.⁷²⁾ 개항과 동시에 일본은 군산진(群山鎭)과 호남청(湖南廳)이 위치하였던 북정구(北亭丘)일대에 목포영사관군산분관(木浦領事館群山分館)을 설치하고, 한국정부는 경무서, 세관 등을 설치하여 조계거류외국인 주로 일본인과의 정치·외교·관세상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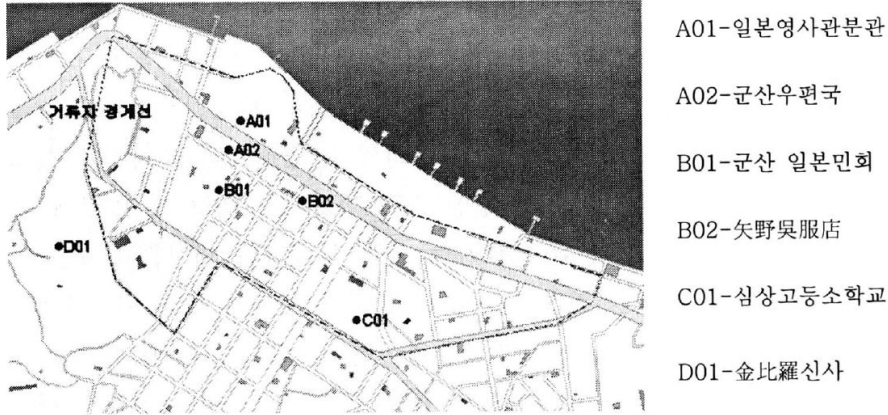


그림 16. 군산의 1899년~1905년 사이에 신축된 건축물 위치

군산에 건설된 근대건축물은 군산시의 물리적 확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시가지의 확장은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건설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1899년~1905년 사이에는 목포일본 영사관 군산분관 과 우편국⁷³⁾, 일본민회⁷⁴⁾사무소 정도의 건물이 조계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 군산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 교육시설로서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가 1899년 12월에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립학교는 1903년 전킨(W.M.Junkin)목사 부부에 의해 영명학교가 설립되었다. 전킨 선교사 이전에 미국인 선교사 레이놀즈(W.D. Reynolds)와 드류(A. Drew)에 의해 1894년부터 군산지역 선교가 시작 되었으나 본격적인 선교는 전킨 선교사가 정착한 1895년 이후이다. 이들에 의해 1899년 구암교회⁷⁵⁾가 설립되었다. 이들 선교사에 의해 최초의 서양의학이 들어오게 된다. 드류는 1899년

72) 손정복 1982, p.306.

73) 1899년 11월 11일 영사관 분관 내에 목포 우편국 군산출장소로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1905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한다.

74) 개항 직후인 1899년 12월 29일에는 각국 거류지회가 설립되고 동시에 군산 일본민회가 창설된다. 일본민회는 1902년 12월 사무실을 준공하였고, 일본민회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은 각종 도로 정비 및 하수도 공사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군산시 2000, 군산시사(상), p.330)

구암예수병원을 설립운영 하였다. 서양 종교와 함께 개항이후에는 일본 종교 역시 군산에 들어오게 된다.

75) 1899년 주택을 매입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다 1916년 12월 'ㄱ'자형 교회를 신축하였고 1959년 벽돌조 교회를 신축하였다.

4. 登錄文化財의 建築的 特徵

4.1 建築的 特徵

본 장은 등록문화재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크게 종교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였고, 종교시설의 경우 성당, 교회,公所 등 종교 관련시설이 해당되며, 교육시설의 경우 보통학교, 중등학교, 대학교사 및 학교 강당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업무시설의 경우 관공서를 비롯하여 역사, 은행 등 사무공간을 포함하였다. 그밖에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은 그 개수가 많지 않아 기타시설로 분류하였다. 건립시기의 구분은 외세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개항기를 시작으로 한일합방과 해방 등 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특성의 고찰하기 위해 대상건축물의 평면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재료와 마감재료를 살펴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평면의 경우 평면의 형태, 장단비, 규모 등을 살펴보고 구조의 경우 기단과 벽체, 기둥을 비롯하여 지붕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서 용도와 시기에 따른 평면, 구조와 재료를 살펴 건축물의 건축 특성을 고찰하였다.

4.1.1 用途別 建築特性

연구대상인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건축물의 용도는 학교, 관공서, 성당, 병원, 은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구분은 현존하는 근대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용도를 조사하여 12개의 그룹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문화재청의 자료⁷⁶⁾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그 12개의 용도는 종교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주거숙박시설,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산업시설, 공공용시설, 인물기념시설, 전쟁관련시설, 기타시설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분포가 종교, 교육, 업무 시설 등이 편중되어 그 밖의 용도건축의 특성을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76) 근대문화재제도개선을 위한 TF팀 회의자료 1.

있어 종교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가)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성당과 공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시설 등 많은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이중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축물을 성당, 공소, 예배당, 사제관 등이 해당된다.

표 8. 종교시설 목록

| no | 문화재명 | 건립지역 | 건립년도 |
|----|-------------------|-------|------|
| 1 | 춘천죽림동주교좌성당 | 경상남도 | 1912 |
| 2 | 나주 노안 천주교회 | 전라남도 | 1927 |
| 3 | 여수애양교회, | 전라남도 | 1928 |
| 4 | 목포중앙교회(구동본원사목포별원) | 전라남도 | 1930 |
| 5 | 울산언양성당본관 | 울산광역시 | 1932 |
| 6 | 진주 옥봉성당 | 경상남도 | 1933 |
| 7 | 홍천성당 | 강원도 | 1953 |
| 8 | 원주원동성당 | 강원도 | 1954 |
| 9 | 옥천삼양리옥천천주교회 | 충청북도 | 1955 |
| 10 | 횡성성당 | 강원도 | 1956 |
| 11 | 삼척 천주교 성내동 성당 | 강원도 | 1957 |
| 12 | 서울혜화동성당 | 서울특별시 | 1960 |

종교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4개, 전라도, 경상도가 3개, 충청도와 서울이 각각 1개씩 분포하고 있다. 건립시기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중반과 해방이후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중 27년 이후 6년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부터 6년간 많은 성당이 건축되었다.

평면의 형태의 경우 십자형이 6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요철형과 방형 H자형으로 나타났다. 종교시설의 전부가 성당이기 때문에 십자형 평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요철형의 경우 십자형의 평면과 유사하나 몸체에 부속실들이 외부로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의 장단비를 살펴보면 십자형 평면의 경우 나주노안교회에서 1:1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모두 1:1.7이상으로 십자형의 경우 대부분 라틴크로스 형태의 평면으로 계획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형과 요철형의 경우

에서도 대부분 1:2 또는 1:3의 비율로 긴 장방형의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마지막으로 주 출입구의 위치를 살펴보면 십자형과 방형의 경우는 모두 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요철형의 경우는 장변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종교시설이 성당으로 긴 장방형 형태의 성당을 단변에서 진입하여 긴 아일과 네이브를 지나 성소에 닿게 하는 양식적인 측면을 그대로 받아 들여 계획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반면 요철형인 진주 옥봉성당의 경우 장변에 주 출입구가 설치되어 성당 본체의 측면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진입 후 전실을 통해 본당의 단변으로 제 진입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3개소로 대부분 지상 2층 규모로 구성되었고 본당의 경우 천장까지 오픈되었고, 본체의 일부에 성가대석을 배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9. 종교시설 평면특성

| no | 장단비 | 면적(㎡) | 층수 | | 평면형태 | 주출입구 |
|----|------|----------|----|----|------|------|
| | | | 지상 | 지하 | | |
| 1 | 1.96 | 504.62 | 2 | | †자형 | 단변 |
| 2 | 1.04 | 441.08 | 1 | 1 | †자형 | 단변 |
| 3 | 2.25 | 1,158.20 | 2 | | H자형 | 단변 |
| 4 | 1.32 | 274.55 | 1 | | 요철형 | 장변 |
| 5 | 2.86 | 410.94 | 2 | | 방형 | 장변 |
| 6 | 3.04 | 438.27 | 2 | 1 | 요철형 | 장변 |
| 7 | 2.52 | 310.36 | 2 | | †자형 | 단변 |
| 8 | 2.52 | 599.13 | 2 | | 방형 | 단변 |
| 9 | 1.66 | 698.17 | 1 | | †자형 | 단변 |
| 10 | 1.87 | 450.70 | 2 | | †자형 | 단변 |
| 11 | 1.74 | 479.21 | 2 | | †자형 | 단변 |
| 12 | 2.12 | 983.79 | 2 | 1 | 방형 | 단변 |

평면형태의 유형의 예로 먼저 장방형인 약현성당의 경우 1892년 건축된 대상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종교시설로 정면에 침탑을 세운 2층 건축물이다. 주출입은 정면의 침탑하부 이루어지고 좌우측면의 중앙부에 설치된 부출입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부출입구로 측면이 돌출되어 완벽한 장방형이라 할 수는 없다. 주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통로인 네이브와 아일로 구성된 예배당에 닿는다. 배면은 성소와 사제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배면으로 신부

와 성직자의 통로로 연결된다. 이층의 경우 정면부의 성가대석을 제외하면 보이드 공간으로 천정까지 오픈되어 있는 형태이다. 정방형 평면을 갖은 건축물은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로 출입구를 제외하면 정확히 정방형이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내부는 칸막이 없이 넓은 강당으로 마루가 깔아 예배를 바닥에 앉아서 보도록 되어있다. 주 출입구의 반대면에 성직자의 출입을 위해 좌우에 각각 부 출입구를 설치하였고 사면에는 모두 창문을 설치하였다.

십자형 평면의 종교시설은 1955년에 건축된 옥천천주교회로 한쪽이 긴 라틴크로스 형태의 평면이다. 정면의 중앙에 첨탑이 세워지고 첨탑의 하부로 주출입구와 좌우에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출입구와 현관을 지나 예배당 본관으로 진입하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예배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긴 통로를 지나 십자가의 교차부분에 닿으면 좌우의 날개부분에 성가대가 위치하고 성가대의 배면에 고해실, 전시실, 유아실 등 부속실이 설치되었다. 정면부는 3개의 계단을 오르면 성단에 닿고 성단의 배면에 제의실이 위치하고 제의실의 우측으로 성직자 출입문이 설치되었다.



옥천 천주교회 정면
출처 : 옥천 천주교회 실측조사보고서



옥천 천주교회 우측면 전면부
출처 : 옥천 천주교회 실측조사보고서



옥천 천주교회 좌측면
출처 : 옥천 천주교회 실측조사보고서

그림 17. 옥천천주교회



목포중앙교회 전경
출처 : 목포중앙교회 기록화조사보고서



목포중앙교회 정면
출처 : 목포중앙교회 기록화조사보고서



목포중앙교회 좌측면
출처 : 목포중앙교회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18. 목포중앙교회

凸형 평면의 종교시설은 목포중앙교회로 건축당시 일본 불교사찰로 건축되었던 것을 해방 이후 교회로 전용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축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전면으로 돌출된 부분에 현관이 설치되고 돌출된 부분은 현관부로 본당으로 진입하는 전실의 역할을 한다. 본체는 하나의 오픈된 공간으로 중앙에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예배석이 자리하고 배면부에 신전과 성가대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건축물의 좌측배면에 돌출되어 예배준비실이 배치되고 부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하여 성직자의 출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는 석재를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벽체를 구축하고 지붕부는 왕대공트러스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이다.

구조와 재료는 크게 벽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부와 지붕과 천장으로 구성된 지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종교시설의 구조부는 조적조가 10개, 콘크리트조가 2개로 조적조가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조적조의 재료로는 시멘트 벽돌이 5개, 돌이 3개, 벽돌과 돌을 동시에 사용한 건축물이 1개로 벽돌 조적조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0. 종교시설 구조와 마감재료

| | | 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
| | | | 적벽돌 | 물탈 +수성페인트 | 물탈 | 돌 | 물탈 +수성페인트 | 회반죽 |
| 조적조 | 벽돌 | 5 | 2 | 2 | 1 | | 4 | |
| | 돌 | 3 | 1 | 1 | | 2 | 1 | 1 |
| 콘크리트 | | 2 | 1 | | | 1 | 1 | |
| 조적+콘크리트 | | 2 | 1 | | | 1 | | 2 |

이러한 벽체와 기둥의 내외부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벽돌조적조의 외부마감의 경우 대부분 적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하였고 석조의 경우는 다른 재료로 마감하지 않고 구조체인 석조를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콘크리트의 경우 적벽돌과 돌을 조적하여 마감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종교시설들의 외벽은 적벽돌 또는 석재 조적으로 마감되었다. 내벽의 경우 시멘트물탈 위 수성페인트칠이 6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회반죽, 목재판벽 위 수성페인트, 적벽돌 등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벽체의 마감재료의 경우 건축물의 보수로 인해 초기의 마감재료를 확인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바닥의 경우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명예와 장선을 이용하여 목조 바닥틀을 구성하고 마루널을 설치한 경우와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중 목조틀이 7개 콘크리트가 5개로 비슷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주로 인조석 물갈기로 시공하였고, 실별로 시멘트몰탈 마감 또는 화강석 마감된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종교시설의 지붕형태는 박공지붕이 10개 우진각이 1개 팔작지붕이 1개로 이중 팔작지붕은 목포제일교회로 건축 시 동본원사로 건축되어 다른 교회 건축물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부의 구조의 경우 목조트러스로 이중 10개 시설은 왕대공트러스, 2개는 쌍대공으로 구성되었다. 지붕의 마감재료는 함석슬레이트가 4개, 시멘트기와가 3개, 동판과 골슬레이트가 각각 2개로 지붕의 마감재료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천장의 경우는 트러스에 목조반자틀을 설치하여 반자로 마감하였고, 귀 위에 회반죽을 바르거나 수성페인트칠로 마감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국가 관청, 우정국, 역사 및 은행들로 행정기관의 신설과 철도 가설 그리고 은행의 도입 등 다양한 업무형태가 생겨나면서 많은 근대건축물이 건축되었는데 조사대상 건축물중 16개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사무소가 8개, 관공서 4개, 은행 지점이 4곳으로 나타났다. 업무시설의 경우 1900년대 초반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이후까지 꾸준히 건축되었고 건축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상, 전라, 충청, 수도권이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도에 가장 많이 건축되었다. 이는 서울과 대도시의 경우 관청이 건축된 반면 전라도 지역에 1930년대 후반부터 농업 관련된 사무소와 금융기관의 지점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1. 업무시설 문화재 목록

| no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년도 |
|----|----------------|-------|------|
| 1 | 구 통영군청 | 경상남도 | 1943 |
| 2 | 반야월역사 | 대구광역시 | 1938 |
| 3 | 조흥은행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 1912 |
| 4 | 구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 1922 |
| 5 |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 대전광역시 | 1937 |
| 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 | 대전광역시 | 1958 |
| 7 | 구일본우선주식회사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 1888 |
| 8 | 구 나주경찰서 | 전라남도 | 1910 |
| 9 | 구소록도갯생원사무분관및강당 | 전라남도 | 1937 |

| | | | |
|----|--------------------|---------|------|
| 10 | 제일은행여수지점 | 전라남도 | 1939 |
| 11 | 구부안금융조합 | 전라북도 | 1912 |
| 12 | 구나가사키(長崎)18은행 | 전라북도 | 1914 |
| 13 | 김제농업기반공사동진지부축산지소 | 전라북도 | 1926 |
| 14 |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사무소및 창고 | 전라북도 | 1930 |
| 15 | 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 1955 |
| 16 | 대한통운제천영업소 | 충청북도 | 1941 |

업무시설의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방형 6개, ㄱ자형 4개, 요철형 3개, ㄷ자형 2개, T자형 1개로 다양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업무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장단비가 1:1.5를 넘지 않아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1층 또는 2층 규모로 비교적 낮게 건축되었고 면적의 분포는 200㎡에서 1,5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건축물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의 경우 단변방향에 설치된 경우가 4개, 장변방향에 설치된 경우가 12개로 장변방향에 주로 설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업무시설이 은행, 관공서, 조합사수소 등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민원인과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시설의 용도상 장변에 주 출입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업무시설 건축물 평면 구성

| no | 장단비 | 면적(㎡) | 층수 | | 평면형태 | 주출입구 |
|----|------|----------|----|----|------|------|
| | | | 지상 | 지하 | | |
| 1 | 1.15 | 254.25 | 1 | | 방형 | 단변 |
| 2 | 1.26 | 413.35 | 2 | | 요철 | 단변 |
| 3 | 1.24 | 585.52 | 2 | | 방형 | 장변 |
| 4 | 1.55 | 219.83 | 1 | | 방형 | 장변 |
| 5 | 1.37 | 829.45 | 2 | | ㄱ자 | 장변 |
| 6 | 1.41 | 274.09 | 1 | | ㄷ자 | 장변 |
| 7 | 1.12 | 114.22 | 1 | | 요철 | 장변 |
| 8 | 1.1 | 1,533.52 | 2 | 1 | 방형 | 장변 |
| 9 | 1.35 | 1,291.76 | 2 | 1 | ㄱ자 | 단변 |
| 10 | 1.1 | 484.3 | 2 | 1 | 요철 | 장변 |
| 11 | 1.24 | 669.12 | 2 | | 방형 | 장변 |
| 12 | 1.5 | 201.65 | 1 | | 방형 | 장변 |
| 13 | 2.11 | 102.51 | 1 | | ㄱ자 | 장변 |
| 14 | 2.24 | 1,175.23 | 2 | | T자 | 장변 |
| 15 | 1.15 | 288.42 | 2 | | ㄷ자 | 장변 |
| 16 | 1.14 | 432.49 | 2 | | ㄱ자 | 단변 |

업무시설의 구조와 재료를 살펴보면 먼저 벽체의 경우 벽돌조적조가 6개, 콘크리트조가 2개, 목골조 3개, 콘크리트와 조적을 함께 사용한 건축물이 3개, 석재조적조가 1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벽돌조적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벽체의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먼저 외부의 경우 적벽돌이 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몰탈 위 수성페인트 칠, 그리고 타일과 돌 마감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벽돌 조적조의 경우 적벽돌과 수성페인트 마감을 보이고 있으나 수성페인트의 경우 후대에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마감재료의 경우 거의 모든 건축물에서 몰탈 위 수성페인트 칠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닥구조와 마감재의 경우 4개의 건축물에서 목조틀로 바닥을 구성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콘크리트로 바닥을 구성하였다. 바닥의 마감재료의 경우 목조바닥 4개, 인조석 8개, 몰탈바름 3개, 타일 붙임이 1개로 나타나 업무시설의 바닥 구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인조석 물갈기로 마감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마루틀을 구성하여 장마루를 설치하는 것이다.

표 13 업무시설의 구조와 마감재료

| | | 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
|---------|----|---|------|----|-------|---|----------|----|----|
| | | | 적벽돌 | 타일 | 수성페인트 | 돌 | 몰탈+수성페인트 | 벽지 | 벽돌 |
| 조적조 | 벽돌 | 6 | 4 | | 2 | | 2 | 1 | |
| | 돌 | 1 | | | | 1 | 1 | | |
| 목조 | | 3 | | | 2 | 1 | 3 | | |
| 콘크리트 | | 2 | | 1 | | 1 | 1 | | 1 |
| 철망시멘트 | | 1 | | | 1 | | 1 | | |
| 조적+콘크리트 | | 3 | 3 | | | | 3 | | |

지붕구조의 경우 거의 모든 건축물이 목재트러스로 구축하였고 1개 업무시설만 콘크리트 슬래브로 축조되었다. 목재트러스의 경우 왕대공트러스가 10개, 쌍대공트러스가 4개로 역시 쌍대공 트러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붕의 마감재의 경우 지붕개판을 깔고 그 위에 기와를 올린 경우가 7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슬레이트가 4개, 몰탈마감 2개, 싱글 1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붕 상부의 경우 시간의 경과와 파손 등의 이유로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리와 보수가 많이 일어난 관계로 현재의 마감재료와 건립당시의 마감재료가 상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헌과 자료를 찾아 보완 하였으나 오차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축조된 지붕의 형태를 살펴보면 박공 3개, 우진각 7개, 평슬래브, 맨사드지붕이 각각 2개로 앞의 중

교시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정방형의 업무시설은 3개로 그중 제일은행 여수지점으로 석재를 이용한 조적식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이다. 정면 중앙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진입하면 개방된 넓은 사무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건축물의 배면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실을 만들고 좌측배면 모서리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을 설치하였다.

ㄱ자형 평면의 경우 4개의 업무시설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벽돌조적조에 목재트러스로 축조된 2층 규모의 건축물로 정면을 돌출된 ㄱ자형 건축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중앙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면 오른쪽에 검사실을 두고 왼쪽으로 창고와



제일은행 여수지점 전경
출처 : 제일은행 여수지점 기록조사보고서



제일은행 여수지점 정면
출처 : 제일은행 여수지점 기록조사보고서



제일은행 여수지점 좌측면
출처 : 제일은행 여수지점 기록조사보고서

그림 19. 제일은행 여수지점

당직실 화장실 계단실을 설치하였고 돌출된 정면에 검사들을 두고 있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우측분석실 부분은 세미나실이 돌출된 부분의 상부에는 사무실이 설치되고 계단실 옆으로 분석실과 부속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전경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기록조사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남측상공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기록조사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우측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기록조사보고서

그림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그 밖에 ㄷ자, U자 H자형 평면으로 각각 1개씩의 건축물이 세워졌고 이중 ㄷ자형 평면인 부안금융조합의 경우 구조체는 콘크리트와 블록으로 구성된 것으로 3번의 증축을 통해 ㄷ자형의 평면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다. 평면 구성은 정면 중앙으로 진입하면 넓은 공간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좌측 돌출부에는 간이 부엌, 창고, 화장실이 설치되고 우측 돌출부는 소회의실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배면에 금고를 설치하였다. 중앙사무실을 가장 초기에 건축하고 우측돌출부, 좌측 돌출부 순으로 증축하여 현재의 ㄷ자형 평면을 구성하였다.



구 부안 금융조합 전경
출처 : 구부안금융조합 기록화조사보고서



구 부안 금융조합 정면
출처 : 구부안금융조합 기록화조사보고서



구 부안 금융조합 우측면
출처 : 구부안금융조합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1. 구 부안 금융조합

다)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국 중 고등학교의 교사와 강당 등 교육관련시설이다. 교육시설이 건축년대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 그리고 1646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중 1920년대와 30년대 초의 경우 초 중등학교의 교사가 주로 신축된 반면 해방이후에는 대학교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시설이 건축

표 14. 교육시설 문화재목록

| no | 문화재명 | 건립지역 | 건립연도 |
|----|--------------------|-------|------|
| 1 | 건국대학교구서북학회회관 | 서울특별시 | 1908 |
| 2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 광주광역시 | 1911 |
| 3 |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 | 광주광역시 | 1921 |
| 4 | 대봉동구대구사범학교본관 | 대구광역시 | 1923 |
| 5 | 대봉동구대구사범학교강당 | 대구광역시 | 1925 |
| 6 |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 전라남도 | 1930 |
| 7 |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 전라북도 | 1932 |
| 8 | 소록도구녹산초등학교교사 | 전라남도 | 1935 |

| no | 문화재명 | 건립지역 | 건립연도 |
|----|---------------|-------|------|
| 9 | 옥천죽향초등학교교사 | 충청북도 | 1936 |
| 10 |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 충청남도 | 1937 |
| 11 | 괴산중학교 구 본관 | 충청북도 | 1949 |
| 12 | 이화여자대학교파이퍼홀 | 서울특별시 | 1953 |
| 13 | 전남대인문관1호관 | 광주광역시 | 1955 |
| 14 | 조선대학교본관 | 광주광역시 | 1955 |
| 15 | 강경화학교 교사·사택 | 충청남도 | 1956 |
| 16 | 소록도구성실중고등학교교사 | 전라남도 | 1957 |

된 지역으로는 전라도가 8개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충청도와 서울, 경상도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 11개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ㄱ자형, ㄷ자형, H자형, T자형, 요철형이 각각 1개씩 나타났다. 이를 장변과 단변의 장단비를 보면 방형의 경우 11개 중 4개는 1:2미만이고 나머지 7개는 최대 1:8.4까지로 긴 장방형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구부와 복도위치를 살펴보면 14개가 장변에 주출입구가 설치되고 단 2개만 단변에 설치되었다. 교사라는 용도상 중앙의 출입구를 통해 편복도나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실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진입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표 15. 교육시설 평면특성

| no | 장단비 | 면적 | 층수 | 지하 | 평면형태 | 개구부 | 복도위치 |
|----|------|-----------|----|----|------|-----|------|
| 1 | 1.73 | 383.22 | 2 | 1 | ㄱ자형 | 1,2 | 편복도 |
| 2 | 7.33 | 1,426.54 | 2 | | 방형 | 2 | 편복도 |
| 3 | 1.96 | 4,342.90 | 3 | | H자형 | 2 | 중앙형 |
| 4 | 3.14 | 10,560.00 | 7 | | 방형 | 2 | 중앙형 |
| 5 | 7.05 | 1,293.90 | 2 | | 방형 | 2 | 편복도 |
| 6 | 1.84 | 404.64 | 1 | | 방형 | 1 | |
| 7 | 1.45 | 911.32 | 2 | 1 | 방형 | 2 | 중앙형 |
| 8 | 1.81 | 4,281.32 | 3 | 1 | ㄷ자형 | 2 | 중앙형 |
| 9 | 1.34 | 1,027.08 | 2 | 1 | T자형 | 2 | 중앙형 |
| 10 | 4.19 | 451.90 | 1 | | 방형 | 2 | 편복도 |

| no | 장단비 | 면적 | 층수 | 지하 | 평면형태 | 개구부 | 복도위치 |
|----|------|--------|----|----|------|-----|------|
| 11 | 3.21 | 218.82 | 1 | | 방형 | 2 | 편복도 |
| 12 | 2.99 | 393.67 | 1 | | 요철형 | 2 | 편복도 |
| 13 | 1.66 | 445.50 | 1 | | 방형 | 1 | |
| 14 | 1.48 | 144.91 | 1 | | 방형 | 2 | 편복도 |
| 15 | 3.53 | 264.46 | 1 | | 방형 | 1 | 편복도 |
| 16 | 8.40 | 568.19 | 1 | | 방형 | 2 | 편복도 |

교육시설의 구조는 벽체와 지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벽체의 구조는 총 16개의 시설 중 10개가 벽돌조적조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목조 3개, 돌조적, 콘크리트조, 벽돌+콘크리트조가 각각 1개씩 나타났다. 이러한 벽체의 내외부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적벽돌마감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몰탈 위 수성페인트 칠로 나타났다.

내벽의 경우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가옥이 15개로 거의 전부가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었다. 이중 시멘트 몰탈마감이 9개, 회반죽 마감이 5개로 외벽의 경우는 적벽돌치장쌓기, 내벽의 경우는 시멘트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바닥이 경우는 명예와 장선으로 구성된 목조틀 바닥이 9개, 콘크리트로 구성된 바닥이 7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바닥마감의 경우 목조틀의 경우 장마루로 구성하였고, 콘크리트의 경우 인조석물갈기 5, 몰탈 2, 장마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복도와 교실 등의 차이를 두는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구조의 경우 다른 용도시설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목조트러스로 구성되었고 이중 왕대공트러스가 11개, 쌍대공트러스가 2개, 사자보가 1개, 콘크리트 슬래브가 1개로 역시 왕대공트러스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표 16. 교육시설 구조 및 마감재료

| | | 조사 대상 수 | 외부마감 | | | | | 내부마감 | | |
|---------|----|---------|------|---|-------------|-------|----|------|-----------|-------------|
| | | | 적벽돌 | 돌 | 몰탈 + 수성 페인트 | 회색 벽돌 | 판벽 | 적벽돌 | 몰탈+ 수성페인트 | 회반죽 +수성 페인트 |
| 조적조 | 벽돌 | 10 | 6 | 1 | 2 | 1 | | 2 | 6 | 2 |
| | 돌 | 1 | | | | | | | | 1 |
| 콘크리트 | | 1 | | 1 | | | | | 1 | |
| 목조 | | 3 | | | 1 | | 2 | | 1 | 2 |
| 벽돌+콘크리트 | | 1 | 1 | | | | | | 1 | |

지붕의 마감을 살펴보면 기와, 동판, 함석, 슬레이트 등 다양한 재료로 마감되어 있으나 몇몇 시설은 수리와 보수를 통해 다른 재료로 바뀌어 있고 원형을 알 수 없어 건립당시의 지붕 재료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지붕의 형태는 박공지붕이 13개 우진각지붕이 2개로 박공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장의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천장의 경우 목조트러스에 반자들을 고정시켜 천장을 반자로 마감하였고 반자 위에 회반죽을 바른 시설과 수성페인트를 칠한 시설이 각각 1개씩 있으며 건국대학교 회관의 경우 천장을 마감하지 않고 트러스를 그대로 노출 시킨 경우도 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방형으로 건축된 수창초등학교 본관의 경우 배면에 편복도를 두고 각 교실을 연결하는 긴 장방형으로 중앙과 좌우 단부에 출입구와 계단을 설치하고 1층은 교실과 교무실을 2층에는 교실을 배치하였다. 건축물의 구조는 벽돌조적조로 구축하고 지붕은 목조 왕대공트러스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으로 하였다.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 전면
출처 : 광주 수창초등학교 기록화조사보고서



광주 수창초등학교 배면
출처 : 광주 수창초등학교 기록화조사보고서



광주 수창초등학교 배면현관
출처 : 광주 수창초등학교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2. 광주 수창초등학교

H자형 평면은 전남대학교 인문관으로 긴 장방형 평면의 좌우 단부에 직각방향으로 부가된 I자형에 가까운 평면에 본체는 3층 좌우 날개부분은 2층으로 구성되었다. 평면구성은 본체의 경우 출입구가 전면과 후면을 관통하게 설치되고 건축물의 중앙에 복도를 설치하여 전면과 후면으로 나누어 교실을 배치하였다. 좌우 날개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날개부분은 화장실과 교실을 배치하였다. 이층과 삼층의 경우도 좌우 계단을 올라가 중앙에 복도를 두고 좌우에 각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일층과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건축물이 구조는 벽돌조적조로 축조하고 지붕은 목조왕대공트러스로 구축하였으며 본체는 맞배지붕, 날개부분은 우진각지붕으로 올렸다.

T자형과 L자형은 각각 1개씩으로 이중 L자형 평면인 수피아여학교수피아홀은 지하1층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전경
출처 :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측면
출처 :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배면
출처 :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3. 전남대학교 인문대1호관

지상 2층규모의 벽돌조적조로 가로방향으로 긴 장방형이 우측 배면을 돌출시킨 L자형 건축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정면 중앙부에 주출입구, 좌우측면 중앙에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의 가로방향으로 중앙에 복도를 두고 이를 기준으로 전면과 배면에 각각 교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정면 현관, 우측면 부출입구, 우측배면 돌출부와 만나는 모서리에 설치하여 3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층의 실 배치도 중앙의 복도를 기준으로 각 실을 연결하였다. 건축물의 구조는 벽돌 조적조로 목조 왕대공트러스로 지붕을 구성하고 지붕의 형태는 좌측은 박공 배면 돌출부는 우진각으로 구성하였다.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정면
출처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기록화조사보고서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좌측면
출처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기록화조사보고서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배면
출처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4.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라) 기타시설

대상건축물 중 종교와 교육 그리고 업무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 상업, 공공 등의 시설은 각각 2~3개로 별도의 용도 구분하지 않고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평면과 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타시설의 용도로 살펴보면 의료시설이 4개, 상업시설이 2개, 문화

집회시설이 2개, 산업시설 2개, 공공시설 1개로 건립 시기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일제가 문화정책을 실시하여 문화활동을 장려하던 시기로 문화집회시설과 의료시설 등이 다수 건축되었다. 건립지역으로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수도권과 각 지역에 고르게 건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7. 기타시설 문화재목록

| no | 문화재명 | 건립지역 | 건립연도 |
|----|--------------------|-------|------|
| 1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 전라북도 | 1929 |
| 2 | 진천덕산양조장 | 충청북도 | 1930 |
| 3 | 효목동 조양회관 | 대구광역시 | 1922 |
| 4 | 구통영청년단 회관 | 경상남도 | 1923 |
| 5 | 목포구청년회관 | 전라남도 | 1925 |
| 6 | 대한의원본관 | 서울특별시 | 1908 |
| 7 | 여수 애양병원 | 전라남도 | 1928 |
| 8 | 대구동산병원구관 | 대구광역시 | 1931 |
| 9 |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 | 전라남도 | 1934 |
| 10 | 구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1928 |
| 11 |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 전라남도 | 1940 |
| 12 | 구소록도갱생원감금실 | 전라남도 | 1935 |
| 13 | 구소록도갱생원만령당 | 전라남도 | 1937 |
| 14 | 광주구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 광주광역시 | 1925 |
| 15 | 순천구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 전라남도 | 1925 |

건축물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방형이 10개, ㄱ자형 1개, T자형 1개, 요철형, H자형이 각각 1개로 방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거나 다른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 방형의 경우 장단비를 살펴보면 2개는 1:1에 가까운 정방형이고 대부분 1:1.6이상의 장방형이며 1:3, 1:4가 넘는 긴 장방형의 평면도 있다. 대체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의 경우 1:1.5의 장방형인데 비해 의료시설의 경우 긴 장방형의 평면을 갖는다 주 출입구의 위치의 경우는 대부분 장변방향에 설치되는데 의료시설, 문화시설이 많아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한 평면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인 특성으로 벽체의 경우 벽돌 조적조 10, 석재조적조가 2, 콘크리트조와 목골조가 각각 1개로 다른 시설군과 유사하게 벽돌조적조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8 기타시설 평면특성

| no | 장단비 | 면적 | 층수 | 지하 | 평면형태 | 개구부 |
|----|------|----------|----|----|------|-----|
| 1 | 1.64 | 608.52 | 3 | | ㄱ자형 | 장변 |
| 2 | 1.06 | 394.38 | 1 | | 방형 | 단변 |
| 3 | 1.06 | 837.08 | 2 | | T자형 | 장변 |
| 4 | 1.69 | 396.70 | 2 | | 방형 | 장변 |
| 5 | 1.76 | 297.76 | 2 | | 방형 | 단변 |
| 6 | 3.10 | 1,334.90 | 2 | | 방형 | 장변 |
| 7 | 1.25 | 555.24 | 2 | | T자형 | 장변 |
| 8 | 2.69 | 2,376.39 | 3 | | 방형 | 장변 |
| 9 | 1.67 | 54.60 | 1 | | 방형 | 장변 |
| 10 | 1.56 | 348.75 | 1 | | 방형 | 단변 |
| 11 | 4.00 | 330.60 | 1 | | 방형 | 장변 |
| 12 | 1.11 | 139.34 | 1 | | 요철형 | 돌출 |
| 13 | 1.15 | 23.30 | 1 | | H자형 | 날개 |
| 14 | 1.65 | 169.53 | 2 | | 방형 | 장변 |
| 15 | 1.02 | 477.23 | 2 | 1 | 방형 | 장변 |

마감은 외벽의 경우 적벽돌로 마감한 경우가 7개로 벽돌조적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개는 몰탈 위에 수성페인트 칠로 마감하였다. 석조 조적조의 경우 마감을 하지 않았고, 콘크리트조는 석재를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바닥은 목조틀 5개, 콘크리트가 6개, 목조틀과 콘크리트를 모두 사용한 경우가 3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바닥 마감의 경우 장마루를 설치하여 목재로 마감한 경우가 5개, 인조석물갈기한 경우가 3 몰탈위 페인트칠이 1개, 몰탈마감이 1개 등으로 목조틀의 경우 모두 장마루로 마감하였으나 콘크리트바닥의 경우 인조석, 몰탈, 석재마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붕의 경우 목조트러스로 구성된 건축물이 12개 콘크리트 슬래브가 1개로 대부분 목조트러스로 구성되었고 이중 왕대공이 8개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또한 경량트러스가 3개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붕의 형태는 박공 9개, 우진각 4개, 평슬래브 1개, 원형지붕이 1개로 역시 박공지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업시설 중 ㄱ자형평면인 전주중앙동구박다옥의 경우 1929년에 건축된 3층 규모의 식당 건축물이었으나 현재 임대상가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각층이 계단실을 중심

으로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일층의 좌측 사무실은 정면으로 우측 사무실은 우측면으로 진입이 이루어진다. 이층과 삼층의 경우는 계단을 올라 양측 사무실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건축물의 구조는 조적조로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지붕은 왕대공트러스로 구성하였으며 지붕형태는 우진각지붕으로 하였다.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정면 및 우측면
출처 : 진천 덕신양조장 기록화조사보고서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정면 및 좌측면
출처 : 진천 덕신양조장 기록화조사보고서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정면
출처 : 진천 덕신양조장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5.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문화집회시설 중 장방형 평면인 구통영청년회관의 경우 1923년에 건축된 2층규모의 건축물이다. 공간 구성은 일층의 경우 주출입구는 장변의 중앙부에 설치하였고 내부는 출입구 부분의 홀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4등분하였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우측배면에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이층으로 오르면 계단실을 기점으로 배면에 편복도를 구성하고 전면을 4등분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구조는 벽돌조적조 축조하였고 지붕은 왕대공트러스에 우진각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돌출형 평면의 예로 1922년에 건축된 효목동조양회관으로 배면으로 돌출된 적벽돌조적조 2층 건축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배면 돌출부와 정면 본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 출입구는 본체의 정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본체를 전후로 나누는 복도가 중앙에 놓이고 그 전면으로 좌측에는 사무실과 계단실, 우측에는 화장실과 계단실이 위치하고 배면은 전시공간이다. 돌출부는 T자형태의 복도를 중심으로 4개의 사무실이 배치되었고 우측복도 끝에 외부로 통하는 부 출입구가 설치된다. 이층의 경우는 전면 좌우의 계단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고 본체는 대형강당으로 돌출부는 강당의 부속공간으로 사용된다. 건축물의 구조는 적벽돌조적조로 구축하였고 지붕은 왕대공트러스로 본체와 돌출부 모두 우진각 지붕을 올렸다.

의료시설 중 T자형 평면의 경우 1928년에 건축된 지상 이층규모의 여수애양병원이다. 평면의 형태는 T자형으로 전면의 장방형 본체의 배면에 장방형 건축물이 부가된 형태로 건축



구 통영 청년단회관 정면
출처 : 구 통영 청년단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구 통영 청년단회관 우측면
출처 : 구 통영 청년단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구 통영 청년단회관 좌측면
출처 : 구 통영 청년단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6. 구 통영 청년단회관



효목동 조양회관 정면
출처 :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효목동 조양회관 북서측면
출처 :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효목동 조양회관 남서측면
출처 :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7. 효목동 조양회관

되었다. 병원의 주 출입구는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홀이 나타나고 홀을 중심으로 우측은 강당, 전면은 계단실과 돌출부로 진입하는 복도가 위치해 있다 홀의 좌측은 중앙에 복도를 두고 사무실과 진료실이 연속배치 되고 복도의 끝은 목사관으로 거실과 침실, 주방, 화장실을 배치하였다. 이층의 경우 우측과 좌측의 전면은 전시실이 자리하고 좌측 배면은 개실을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돌출부도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애양병원의 구조



여수 애양병원 동측면
출처 : 여수 애양병원 기록화조사보고서



여수 애양병원 북측면
출처 : 여수 애양병원 기록화조사보고서



여수 애양병원 우측면
출처 : 여수 애양병원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28. 여수 애양병원

는 돌을 이용해 조적조로 축조하였고 지붕은 콘크리트를 이용한 슬래브구조의 박공지붕을 올렸다.

산업시설 중 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은 1928년 건축된 2층 규모의 장방형 건축물이다. 평면 구성은 일층의 경우 우측면의 중앙의 출입문을 통해 진입하면 칸막이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좌측과 배면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이층의 경우 계단실의 배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층의 상부는 지붕까지 오픈되어 있다. 건축물의 구조는 일층의 경우 콘크리트기둥과 벽체로 구성되었고 이층은 목조뼈대로 구성되었으며 지붕은 왕대공트러스에 박공지붕을 올렸다. 공공시설 중 서울구치소의 경우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전경
출처 : 구 양천수리조합 기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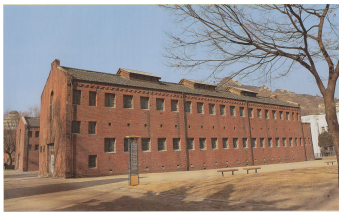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남측면
출처 : 구 양천수리조합 기록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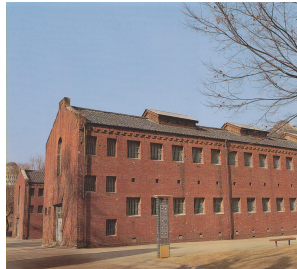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동측면
출처 : 구 양천수리조합 기록조사보고서

그림 29.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구 서울구치소 9옥사 전경
출처 : 구서울구치소 실측조사보고서



구 서울구치소 중앙사 정면
출처 : 구서울구치소 실측조사보고서



구 서울구치소 중앙사 측면
출처 : 구서울구치소 실측조사보고서

그림 30. 구 서울구치소

1908년 건축된 2층 규모의 긴장방형 벽돌조적조 건축물이다. 평면의 구성은 1, 2층 모두 중앙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옥사가 배치되고 복도의 끝에 출입문이 설치된 형태이다. 벽체의 구조는 벽돌조적조이고 지붕은 왕대공트러스의 박공지붕을 올렸다.

용도별 건축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먼저 종교시설의 경우 긴 장방형 평면과 라틴크로스형 평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 출입구는 단변으로 설치하여 네이브와 아일을 통해 성소에 당

는 평면 형태를 하고 있다. 벽체의 경우 대부분 벽돌 조적조로 구성하였고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를 올린 박공지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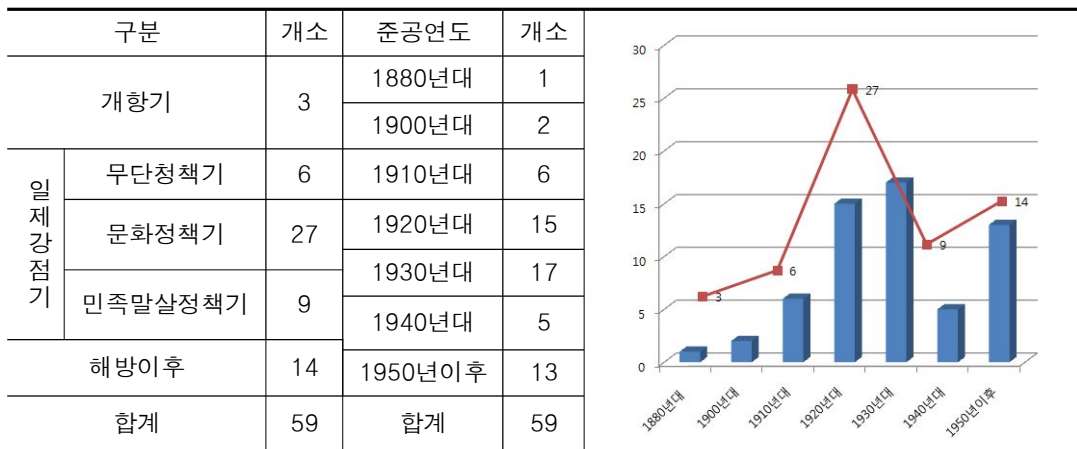
교육시설의 경우 일제 강점기중 문화정책기와 해방이후 집중적으로 건축된 시설로 긴 장단비가 1:3에서 1:8까지의 긴 장방형의 평면형태로 주 출입구를 중앙에 설치하였고 편복도 또는 중앙복도형의 각 실을 연결하도록 하는 평면 구성을 하고 있으며 왕대공 트러스에 박공지붕을 올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업무시설의 경우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건축물이 건축된 시설로 평면의 형태는 방형에서부터 ㄱ자형, H자형, ㄷ자형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장단비가 1:1.5에 가까운 장방형이 가장 많다. 또한 주 출입구가 장변으로 설치되어 업무공간이라는 특성상 민원인 또는 방문객을 맞이 용이한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벽체의 경우는 벽돌조적조와 함께 일부 콘크리트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에 박공과 우진각 평슬래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4.1.2 時期別 建築特性

시기에 따른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대 건축물의 건립시기를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들에 의한 건축물이 생겨났으며 이는 전통건축과의 결합하는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에 의해 건축된 다양한 건축물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한국 근대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그 시기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조선말기 최초의 개항지인 인천항이 개항한 1882년부터 일제와 조선이 합방되기 직전까지인 1909년을 첫 번째 시기로 이 기간을 개항기라 명하였다. 다음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부터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1945년까지로 이 먼저 개항이후 한일합방 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로 구분하였고 이 중 일제의 강점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한일합방부터 3.1운동 이전까지를 무단정책기, 3.1운동 이후인 1920년부터 일제의 침략전쟁이전인 1936년까지를 문화정책기 그리고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방되는 1945년까지를 민족말살정책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항목은 건축지역, 건축양식, 건축물의 용도, 평면의 형태, 구조 그리고 건축재료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9 시기별 건축현황



가) 개항기

개항기는 조선시대 최초의 개항지인 인천항이 1882년에 개항하였으나 이는 국가가 공인한 공식적인 개항시기로 그 이전에도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어 이들에 의해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되었다. 조사대상 등록문화재 중 이시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개소가 해당된다. 이 시기의 건축물의 용도는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이 각각 1개씩 건축되었다. 건축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과 서울시로 주로 수도권 지역에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이 각각 1개씩으로 평면의 형태는 방형이 2개 요철형이 1개이고 장단비는 의료시설의 경우 1:3으로 긴 장방형인데 비해 교육시설과 업무시설은 1:1.5미만의 장방형이며 모두 장변방향으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표 20. 개항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 합계 | 외부마감 | | 내부마감 | |
|-------|----|------|------------|-----------|----|
| | | 적벽돌 | 몰탈 + 수성페인트 | 회반죽+수성페인트 | 벽돌 |
| 벽돌조적조 | 3 | 1 | 2 | 2 | 1 |

벽체의 구조와 재료는 건축물이 모두 벽돌 조적조로 건축되었고 외부 마감의 경우 적벽돌로 치장쌓기가 1개, 몰탈위에 수성페인트 마감이 2개이며 내부 마감의 경우 벽돌로 마감한 경우가 1개 회반죽에 수성페인트마감이 2개로 나타났다. 지붕의 경우는 왕대공트러스, 쌍대공트러스, ㅅ자보가 각각 1개씩으로 모두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내외부 마감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 개항기 건축의 지붕구조

| | 합계 | 외부마감 | | 내부마감 | | 지붕형태 | | |
|-----|----|-------|----|------|----|------|----|-----|
| | | 골슬레이트 | 동판 | 반자틀 | 안함 | 맨사드 | 박공 | 우진각 |
| 왕대공 | 1 | | 1 | | 1 | | | 1 |
| 쌍대공 | 1 | 1 | | 1 | | 1 | | |
| ㅅ 보 | 1 | | 1 | 1 | | | 1 | |
| 계 | 3 | 1 | 2 | 2 | 1 | 1 | 1 | 1 |

왕대공트러스구조의 경우 외부는 동판, 내부는 마감하지 않고 트러스를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지붕은 우진각이다., 쌍대공트러스의 경우 골슬레이트로 외부를 마감하고 내부는 목조반자틀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의 형태는 맨사드지붕이다. 마지막 ㅅ자보의 경우 외부는 동판으로 마감하고 내부는 목조반자틀로 합판으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의 형태는 박공지붕이다.

나) 일제강점기

이시기는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해부터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이다. 일제강점기를 세분하여 3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단통치가 이루어진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 약 십년간이다. 기간은 일제가 한반도를 군사력으로 통치하던 시기로 군법으로 폭력지배를 하던 시기이다. 다음은 문화정책기로 3.1운동이후라 할 수 있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3.1운동으로 인해 한반도를 무력만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일제가 표면적으로 문화적 부흥 정책을 펴고 그 이면에 친일 세력을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민족말살정책기로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이 된 1945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의 확산으로 징병과 징집은 물론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수탈이 이루어진 시기로 문화정책기에 허용된 모든 문화행위가 일체 금지된 기간이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의 지배정책의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건축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다) 무단정책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총 6개가 해당된다. 먼저 건축물이 건립된 지역을 살펴보면 전라도가 4, 충청도 1, 경상도 1개로 수도권 외 지역에 주로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 4개,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이 각각 1개씩으로 업무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평면의 형태는 방형이 2개, ㄱ자형, ㄷ자형, ㅊ자형, 요철형이 각각 1개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관공서가 1개, 은행이 3개, 성당과 학교가 각각 1개로 업무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2. 무단정책기의 건축물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평면 | 입구 |
|------------------|----|------|----|------|----|----|
| 구 나주경찰서 | 전남 | 1910 | 업무 | 1.10 | 요철 | 장변 |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 광주 | 1911 | 교육 | 1.73 | ㄱ자 | 장변 |
| 춘천죽림동주교좌성당 | 경남 | 1912 | 종교 | 1.96 | ㅊ자 | 단변 |
| 구부안금융조합 | 전북 | 1912 | 업무 | 2.11 | ㄱ자 | 장변 |
| 조흥은행 대전지점 | 대전 | 1912 | 업무 | 1.41 | ㄷ자 | 장변 |
| 구나가사키(長崎)18은행 | 전북 | 1914 | 업무 | 1.24 | 방형 | 장변 |

건축물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ㄱ자형이 2개, 요철, †자, ㄷ자, 방형이 각각 1개씩으로 다양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고 평면행태가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단비와 주 출입구의 위치를 살펴보면 장단변의 비가 1:2를 넘지 않은 장방형으로서 장변 방향에 주 출입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이 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시설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3. 무단정책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 합계 | 외부마감 | | | 내부마감 | |
|---------|----|------|----|-------|-------|----|
| | | 치장벽돌 | 석재 | 수성페인트 | 수성페인트 | 벽지 |
| 벽돌 조적조 | 2 | 1 | | 1 | 1 | 1 |
| 목재 | 2 | | | 2 | 2 | |
| 콘크리트 | 1 | | 1 | | 1 | |
| 콘크리트+벽돌 | 1 | 1 | | | 1 | |
| 계 | 6 | 2 | 1 | 3 | 5 | 1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적인 측면은 벽체의 경우 벽돌조적조가 3, 목조가 2, 콘크리트, 콘크리트+조적조가 각각 1개씩이다. 이들의 마감 재료를 살펴보면 벽돌조의 경우 치장벽돌을 쌓은 경우가 1개, 몰탈위 수성페인트를 칠한 경우가 2개이고 내부도 수성페인트를 칠한 경우가 2개 벽지바름이 1개로 나타났고 목조의 경우도 내외부를 모두 회벽에 수성페인트 칠하여 마감하는 등 구조재의 유형에 관계없이 회반죽이나 몰탈을 바른 후 수성페인트 칠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표 24. 무단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 합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지붕형태 | | |
|-----|----|------|------|----|----|-------|-------|------|-----|-----|
| | | 기와 | 슬레이트 | 동판 | 함석 | 목조반자틀 | 수성페인트 | 박공 | 우진각 | 맨사드 |
| 왕대공 | 4 | 2 | 1 | 1 | | 2 | 2 | 4 | | |
| 쌍대공 | 2 | | | | 2 | 2 | | | 1 | 1 |
| 계 | 6 | 2 | 1 | 1 | 2 | 4 | 2 | 4 | 1 | 1 |

지붕의 경우 7개 건축물 모두 목조트러스로 왕대공트러스가 5개, 쌍개공트러스가 2개로이고 지붕 상부 마감의 경우 기와, 슬레이트, 동판, 함석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내부의 경우는 대부분 목조반자틀로 구성하였고 이중 2개는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지붕의 형태는 박공이 4, 우진각, 맨사드지붕이 각각 1개로 나타났고, 왕대공트러스의 경우 박공으로 쌍대공의 경우 우진각과 맨사드지붕으로 나타났다.

라) 문화정책기

문화정책기는 3.1운동이후 1919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로 일제의 침략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기간은 표면적이거나 교육과 문화행사, 신문발행 그리고 공연 등 다양한 문예활동이 가능했던 시기이다.

표 25 문화정책기의 건축물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면적 | 평면 | 진입 |
|-------------------|----|------|----|------|----------|----|----|
| 나주 노안 천주교회 | 전남 | 1927 | 종교 | 1.04 | 441.08 | †자 | 단변 |
| 여수애양교회, | 전남 | 1928 | 종교 | 2.25 | 1,158.20 | H자 | 단변 |
| 목포중앙교회(구동본원사목포별원) | 전남 | 1930 | 종교 | 1.32 | 274.55 | 요철 | 장변 |
| 울산언양성당본관 | 울산 | 1932 | 종교 | 2.86 | 410.94 | 방형 | 단변 |
| 진주 옥봉성당 | 경남 | 1933 | 종교 | 3.04 | 438.27 | 요철 | 장변 |
| 구동양척식회사대전지점 | 대전 | 1922 | 업무 | 1.24 | 585.52 | 방형 | 장변 |
| 김제농업기반공사동진지부축산지소 | 전북 | 1926 | 업무 | 1.50 | 201.65 | 방형 | 장변 |
| 익산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및창고 | 전북 | 1930 | 업무 | 2.24 | 1,175.23 | T자 | 장변 |
| 광주 수창초등학교 본관 | 광주 | 1921 | 교육 | 7.33 | 1,426.54 | 방형 | 장변 |
| 대봉동구대구사범학교본관 | 대구 | 1923 | 교육 | 7.05 | 1,293.90 | 방형 | 장변 |
| 대봉동구대구사범학교강당 | 대구 | 1925 | 교육 | 1.84 | 404.64 | 방형 | 단변 |
|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 전남 | 1930 | 교육 | 1.34 | 1,027.08 | T자 | 장변 |
| 익산구이리농림학교축산과교사 | 전북 | 1932 | 교육 | 2.99 | 393.67 | 요철 | 장변 |
| 소록도구녹산초등학교교사 | 전남 | 1935 | 교육 | 4.19 | 451.90 | 방형 | 장변 |
| 옥천죽향초등학교교사 | 충북 | 1936 | 교육 | 3.53 | 264.46 | 방형 | 단변 |
|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 전북 | 1929 | 상업 | 1.64 | 608.52 | ㄱ자 | 장변 |
| 진천덕산양조장 | 충북 | 1930 | 상업 | 1.06 | 394.38 | 방형 | 단변 |
| 효목동조양회관 | 대구 | 1922 | 문화 | 1.06 | 837.08 | T자 | 장변 |
| 구통영청년단 회관 | 경남 | 1923 | 문화 | 1.69 | 396.70 | 방형 | 장변 |
| 목포구청년회관 | 전남 | 1925 | 문화 | 1.76 | 297.76 | 방형 | 단변 |
| 여수애양병원 | 전남 | 1928 | 의료 | 1.25 | 555.24 | T자 | 장변 |
| 대구동산병원구관 | 대구 | 1931 | 의료 | 2.69 | 2,376.39 | 방형 | 장변 |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면적 | 평면 | 진입 |
|--------------------|----|------|----|------|--------|----|----|
|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 | 전남 | 1934 | 의료 | 1.67 | 54.60 | 방형 | 장변 |
| 구양천수리조합배수펌프장 | 서울 | 1928 | 산업 | 1.56 | 348.75 | 방형 | 단변 |
| 구소록도갯생원감금실 | 전남 | 1935 | 공공 | 1.11 | 139.34 | H자 | 돌출 |
| 광주구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 광주 | 1925 | 인물 | 1.65 | 169.53 | 방형 | 장변 |
| 순천구남장로교회조지와츠기념관 | 전남 | 1925 | 인물 | 1.02 | 477.23 | 방형 | 장변 |

이 시기의 건축물은 총 27개로 전체 시기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용도를 살펴보면 종교 5개, 업무 3개, 교육시설 7개, 문화시설 3, 의료시설 3개 등 기타시설이 12개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의 건축이 두드러지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방형이 16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은 T자 4개, 요철형 3개, H자 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형의 경우 대부분 장방형으로 교육시설의 경우 장단비가 3:1에서 7:1까지 긴 장방형으로 구성되고 종교시설의 경우 2.5:1 가량의 장방형이며 나머지 용도는 1.5:1 가량의 장단비를 갖는다 이와 함께 개구부의 위치를 보면 종교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단부에 주 출입구가 위치하고 학교와 업무시설의 경우 장변에 주 출입구가 배치되고 있다.

표 26 문화정책기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 합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 | | |
|---------|----|------|---|----------|----|------|-----|----------|----------|-------|-----------|
| | | 적벽돌 | 돌 | 물탈+수성페인트 | 판벽 | 벽돌 | 회반죽 | 물탈+수성페인트 | 목재+수성페인트 | 물탈+벽지 | 회반죽+수성페인트 |
| 벽돌조적조 | 16 | 13 | 1 | 2 | | 1 | 1 | 10 | 1 | 1 | 1 |
| 목재 | 3 | | 1 | | 2 | | 1 | 1 | | | 1 |
| 콘크리트 | 6 | 1 | 4 | 1 | | | 2 | 1 | 3 | | |
| 조적+콘크리트 | 1 | 1 | | | | | 1 | | | | |
| 계 | 26 | 15 | 6 | 3 | 2 | 1 | 5 | 12 | 4 | 1 | 2 |

구조와 재료는 벽체의 경우 벽돌 조적조(16)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은 콘크리트(6), 목조, 조적+콘크리트조순으로 나타났다. 벽체마감재료를 살펴보면 조적조 외벽의 경우는 적벽돌로 치장한 경우가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콘크리트의 경우는 석재로 마감하였으며 조적+콘크리트도 적벽돌로 마감하였다. 내벽의 경우는 시멘트 물탈위 수성페인트 마감이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콘크리트구조의 경우 회를 바르거나 목재로 마감하고 그 위에 수성페

인트칠 마감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수성페인트 마감이 많은 것은 구조체의 경우 건립당시의 재료가 교체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나 마감재료의 경우 보수시 원래의 재료를 무시한 채 시공되는 경우가 있어 원재료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표 27 문화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 합계 | 외부마감 | | | | | | 지붕형태 | | | |
|-------|----|-----------|----|------------|----|----------|----|------|--------|-----|-----|
| | | 시멘트 기와 | 동판 | 함석 슬레이트 | 싱글 | 슬레 이트 | 몰탈 | 맨사드 | 박 공 | 우진각 | 슬래브 |
| 왕대공 | 18 | 6 | 1 | 7 | 3 | 1 | | 11 | 6 | | |
| 쌍대공 | 1 | | | | | 1 | | | | 1 | |
| ㅅ 보 | 1 | | | | | 1 | 1 | 1 | | | |
| 콘크리트 | 2 | | | | | | 2 | | | | 2 |
| 경량목구조 | 2 | 1 | | | | 1 | | 2 | | | |
| 계 | 24 | 7 | 1 | 7 | 3 | 4 | 3 | 14 | 6 | 1 | 2 |

지붕구조의 경우 콘크리트로 마감된 2개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모조트러스로 구성되었다. 이중 왕대공이 가장 많은 분포로 18개의 건축물에서 사용하였고 경량목구조와 쌍대공, ㅅ대공트러스도 1개씩 사용되었다. 이들 지붕의 외부 마감재료를 살펴보면 기함석슬레이트(7)와 기와(6)의 비중이 높고 골슬레이트와 동판 등도 일부 사용되었다. 지붕의 형태는 왕대공의 경우 박공이 11개 우진각이 6개, 경량목구조의 경우 박공, 콘크리트는 평슬래브로 구성하였다.

마) 민족말살정책기

이 시기는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이 되는 시점까지로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침략범위를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대하여 한반도를 전시동원체제로 통치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는 내선일체를 강조하여 우리말 사용금지과 신문폐지, 창시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정신을 근절시켰으며 문화정책기의 모든 문화활동을 중단시켰던 시기이다.

이시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총 9개로 문화정책기에 상당히 많이 감소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 6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시설 1개와 기타시설 2개로 주로 업무시설외에 종교나 의료등 다른 시설의 건축이 감소하였다. 이시기의 평면형을 살펴보면 방형이 4개

표 28. 민족말살정책기의 건축물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면적 | 평면 | 진입 |
|----------------|----|------|----|------|----------|----|----|
|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 | 전남 | 1937 | 업무 | 1.35 | 1,291.76 | ㄱ자 | 단변 |
|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 대전 | 1937 | 업무 | 1.55 | 219.83 | 방형 | 장변 |
|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 충남 | 1937 | 교육 | 1.66 | 445.50 | 방형 | 단변 |
| 구소록도갱생원만령당 | 전남 | 1937 | 공공 | 1.15 | 23.30 | 요철 | |
| 반야월역사 | 대구 | 1938 | 업무 | 1.26 | 413.35 | ㅏ자 | 단변 |
| 제일은행여수지점 | 전남 | 1939 | 업무 | 1.10 | 1,533.52 | 방형 | 장변 |
|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 전남 | 1940 | 산업 | 4.00 | 330.60 | 방형 | 장변 |
| 대한통운제천영업소 | 충북 | 1941 | 업무 | 1.14 | 432.49 | ㄱ자 | 단변 |
| 구 통영군청 | 경남 | 1943 | 업무 | 1.15 | 254.25 | 방형 | 단변 |

ㄱ자형이 2개 요철형과 T자형이 각각 1개씩으로 방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장단비와 주 출입구의 위치를 살펴보면 장단비의 1:1.1에서 1.5또는 1.6 가량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출입구의 위치 또한 단변과 장변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민족말살정책기의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 합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 | |
|---------|----|------|----|-----------|----|------|-----------|-------|-----|----|
| | | 적벽돌 | 몰탈 | 회벽+수성 페인트 | 타일 | 몰탈 | 몰탈+수성 페인트 | 몰탈+벽지 | 적벽돌 | 벽지 |
| 벽돌조적조 | 5 | 3 | 2 | | | 1 | 2 | 1 | 1 | |
| 목재 | 1 | | | 1 | | | | | | 1 |
| 콘크리트 | 1 | | | | 1 | | 1 | | | |
| 조적+콘크리트 | 2 | 2 | | | | | 2 | | | |
| 계 | 9 | 5 | 2 | 1 | 1 | 1 | 5 | 1 | 1 | 1 |

건축구조와 재료는 벽체의 경우 벽돌조적조가 5개, 조적+콘크리트조가 2개, 목조와 콘크리트조가 각각 1개씩으로 이시기도 벽돌 조적조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마감 재료는 조적+콘크리트의 경우 외벽은 모두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벽돌조적조의 경우 적벽돌마감과 시멘트몰탈 마감을 하였으며 내벽의 경우는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 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몰탈마감과 몰탈위 벽지마감도 나타나 내벽의 경우 대부분이 시멘트몰탈

표 30. 민족말살정책기 건축의 지붕구조

| | 합계 | 외부마감 | | | | 내부마감 | | | 지붕형태 | | |
|-------|----|------|----|------|----|------|-----|------|------|-----|-----|
| | | 기와 | 함석 | 슬레이트 | 몰탈 | 합판 | 반자틀 | 마감안함 | 박공 | 우진각 | 맨사드 |
| 왕대공 | 6 | 3 | 1 | 1 | 1 | 2 | 3 | 1 | 3 | 2 | |
| 쌍대공 | 2 | 2 | | | | | 2 | | 1 | 1 | |
| 경량목구조 | 1 | | | | 1 | 1 | | | | | 1 |
| 계 | 9 | 5 | 1 | 1 | 2 | 3 | 5 | 1 | 6 | 3 | 1 |

을 이용하여 마감한 것이다.

지붕의 경우 모두 목재트러스를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이중 왕대공트러스가 6개, 쌍대공이 2개, 경량목구조가 1개로 지붕 마감을 살펴보면 기와를 올려 마감한 건축물이 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석, 슬레이트 몰탈이 각각 1개씩 나타나고 있다. 내부 천장 마감의 경우 대부분 목조반자틀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붕의 형태는 박공 4개, 우진각 2, 맨사드와 원형이 각각 1개씩 나타났다.

바) 해방이후

이 시기는 조선이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1945년부터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까지로 규정한다. 이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중 건축된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등록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여 현시점에서 계산하면 1950년대까지가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시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총 14개로 전체 24%에 해당된다. 건축물의 건립지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4, 충청도 4, 전라도 3. 서울 2, 제주 1개로 나타났다.

표 31. 해방이후 건축물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면적 | 평면 | 진입 |
|-------------|----|------|----|------|----------|----|----|
| 괴산중학교 구 본관 | 충북 | 1949 | 교육 | 8.40 | 568.19 | 방형 | 장변 |
| 홍천성당 | 강원 | 1953 | 종교 | 2.52 | 310.36 | †자 | 단변 |
| 이화여자대학교파이퍼홀 | 서울 | 1953 | 교육 | 1.81 | 4,281.32 | ㄷ자 | 장변 |
| 원주원동성당 | 강원 | 1954 | 종교 | 2.52 | 599.13 | 방형 | 단변 |
| 옥천삼양리옥천천주교회 | 충북 | 1955 | 종교 | 1.66 | 698.17 | †자 | 단변 |
| 제주 구 대정면사무소 | 제주 | 1955 | 업무 | 1.15 | 288.42 | ㄷ자 | 장변 |

| 문화재명 | 지역 | 건립 | 용도 | 장단비 | 면적 | 평면 | 진입 |
|----------------|----|------|----|------|-----------|----|----|
| 전남대인문관1호관 | 광주 | 1955 | 교육 | 1.96 | 4,342.90 | H자 | 장변 |
| 조선대학교본관 | 광주 | 1955 | 교육 | 3.14 | 10,560.00 | 방형 | 장변 |
| 횡성성당 | 강원 | 1956 | 종교 | 1.87 | 450.70 | †자 | 단변 |
| 강경화교학교 교사·사택 | 충남 | 1956 | 교육 | 1.48 | 144.91 | 방형 | 장변 |
| 삼척 천주교 성내동 성당 | 강원 | 1957 | 종교 | 1.74 | 479.21 | †자 | 단변 |
| 소록도구성실중고등학교교사 | 전남 | 1957 | 교육 | 3.21 | 218.82 | 방형 | 장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 | 대전 | 1958 | 업무 | 1.37 | 829.45 | ㄱ자 | 장변 |
| 서울해화동성당 | 서울 | 1960 | 종교 | 2.12 | 983.79 | 방형 | 단변 |

건축물의 용도는 종교시설과 교육시설 업무시설이 건축되었고 이중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이 각각 6개씩이고 업무시설이 2개로 종교시설과 교육시설 중심으로 건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평면의 형태는 방형과 십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형의 경우는 장단비가 1L2.5에서 1:8까지로 긴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되고 이는 주로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십자형의 경우 또한 장단비가 1:1.6이상의 장방형으로 주로 종교시설이 해당된다. 주 출입구의 경우는 방형의 경우는 장변방향으로 십자형의 경우는 단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장방형의 경우 주로 교사이고 십자형의 경우 성당으로 진입의 방식과 평면의 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표 32. 해방기 이후 건축의 구조 및 재료

| | 합계 | 외부마감 | | | | | 내부마감 | | | | | |
|---------|----|------|----|----------|---|----|----------|----|---|----|---|---|
| | | 적벽돌 | 몰탈 | 몰탈+수성페인트 | 돌 | 판벽 | 몰탈+수성페인트 | 벽돌 | 회 | 몰탈 | 돌 | |
| 조적조 | 벽돌 | 5 | 2 | 1 | 2 | | | 3 | 2 | | | 1 |
| | 돌 | 2 | | | | 2 | | 1 | | | | |
| 콘크리트 | 3 | 1 | | | 2 | | 1 | | 1 | 1 | | |
| 조적+콘크리트 | 2 | 1 | | | 1 | | 1 | | 1 | | | |
| 목조 | 2 | | | 1 | | 1 | 1 | | 1 | | | |
| 계 | 14 | 4 | 1 | 3 | 5 | 1 | 7 | 2 | 3 | 1 | 1 | |

구조와 재료는 이시기의 건축물의 구조는 벽돌조적조(5), 콘크리트조(3), 조적+콘크리트조(2), 석재조적조(2), 목조(2)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빈도도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 마감 재료도 다양하게 나타나 콘크리트와 돌조적조의 경우 외부를 석재로 마감

하는 경우가 많고 벽돌조적조와 복합구조의 경우 외벽을 적벽돌로 마감하였으며 기타 몰탈마감과 판벽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마감의 경우 조적조와 콘크리트조에서 몰탈마감 후 수성페인트 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회반죽을 바르는 건축물도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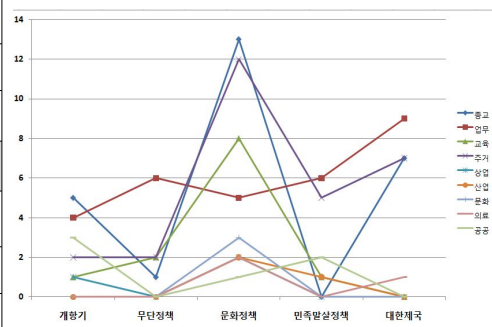
표 33. 해방기이후 건축의 지붕구조

| | 합계 | 외부마감 | | | | | | 내부마감 | | | 지붕형태 | |
|------|----|------|---|--------|----|------|----|------|---|-------|------|-----|
| | | 기와 | 돌 | 함석슬레이트 | 싱글 | 슬레이트 | 몰탈 | 반자틀 | 회 | 수성페인트 | 박공 | 우진각 |
| 왕대공 | 11 | 3 | 1 | 2 | 2 | 2 | | 4 | 4 | 3 | 9 | 2 |
| 쌍대공 | 1 | | | | | 1 | | 2 | | | 1 | |
| 사보 | 1 | | 1 | | | | | | 1 | | 1 | |
| 콘크리트 | 1 | | | | | | 1 | 1 | | | 1 | |
| 계 | 14 | 3 | 2 | 2 | 2 | 3 | 1 | 7 | 5 | 3 | 12 | 2 |

지붕의 경우 대부분 목조트러스로 구조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중 왕대공이 11개, 쌍대공과 사보트러스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지붕의 상부마감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기와, 함석슬레이트, 골슬레이트 동판 등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내부의 경우는 트러스에 반자틀을 고정하고 반자로 마감한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그 위에 회반죽을 발라 마감한 건축물이 5개 수성페인트로 마감한 건축물이 3개로 나타났다. 또한 지붕의 형태는 박공이 12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진각지붕이다. 이상 시기별 건축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34. 시기별 건축물의 용도

| 구분 | 계 | 종교 | 업무 | 교육 | 상업 | 산업 | 문화 | 의료 | 공공 |
|-------|------|----|----|----|----|----|----|----|----|
| 개항기 | 3 | | 1 | 1 | | 0 | 0 | 1 | |
| 일제강점기 | 무단정책 | 6 | 1 | 4 | 1 | 0 | 0 | 0 | 0 |
| | 문화정책 | 27 | 6 | 3 | 8 | 2 | 1 | 3 | 3 |
| | 말살정책 | 9 | 0 | 6 | 1 | 0 | 1 | 0 | 0 |
| 해방이후 | 14 | 6 | 2 | 6 | 0 | 0 | 0 | 0 | 0 |
| 계 | 59 | 13 | 16 | 17 | 2 | 2 | 3 | 4 | 2 |



시기에 따른 용도의 건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개항기의 경우 종교시설과 업무시설, 교육 시설이 건축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 무단정책의 실시로 업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건축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행정편의를 위한 업무시설은 계속 건축되는 반면 종교와 상업 공공시설의 건축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1운동이후 일제의 문화정책 실시로 인해 많은 건축물의 활발하게 지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의 50%가 넘는 건축물이 이 시기에 건축되고 있으며 문화집회시설과 의료시설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다.

민족정신말살정책기에는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직전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수탈과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건축행위 또한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업무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일제의 수탈을 목적으로 한 은행과 역사의 건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방이후는 위축되었던 건축행위가 다시 활기를 띠는 시기로 종교시설과 교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업무시설이 감소하여 일제말기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현황은 한반도의 사회변동에 의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시기에 따른 건축적 특성으로 평면과 구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면의 형태는 시기를 초월하여 방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무단 정치기의 경우 방형에서부터 ㄱ자, ㄷ자 ㅊ자 등 다양한 평면 형태가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문화정책기는 T자형 평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에 건축된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에 의한 것이다. 반면 말살기의 경우 방형과 ㄱ자형으로 이 시기에 건축된 시설이 업무시설로 주로 장방형을 띠고 있다. 해방기의 경우 방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표 35. 시기별 평면 유형

| 구분 | 방형 | ㄱ자 | ㄷ자 | T자 | ㅊ자형 | 요철형 | H자형 | 원형 |
|-------|----|----|----|----|-----|-----|-----|----|
| 개항 | 2 | | | | | 1 | | |
| 일제강점기 | 무단 | 1 | 2 | 1 | | 1 | | |
| | 문화 | 16 | 1 | | 4 | 1 | 2 | 3 |
| | 말살 | 5 | 2 | | | | 1 | 1 |
| 해방이후 | 6 | 1 | 2 | | 4 | 1 | | |
| 계 | | | | | | | | |

보이고 있고 또한 T자형 평면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시설의 증가로 장방형 평면과 십자형 평면이 증가한 것이다.

다음은 구조적 측면으로 벽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기에 관계없이 조적조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돌을 이용한 조적조의 경우 문화정책기와 해방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종교시설이 다수 건축된 시기에 석재조적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건축되고 있다. 지붕 형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이 다수 건축된 문화정책기와 해방이후 박공이 증가하였으나 개항기나 무단 정책기는 업무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의 분포가 비슷해 지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시기별 구조 및 지붕형태

| 구분 | 구조 | | | | | 지붕형태 | | | | | |
|------|------|------|----|----|----|------|-----|-----|----|------|---|
| | 벽돌조적 | 석재조적 | 철콘 | 목조 | 복합 | 박공 | 우진각 | 맨사드 | 팔작 | 평슬라브 | 원 |
| 개항 | 3 | | | | | 1 | 1 | 1 | | | |
| 강점기 | 무단기 | 2 | | 1 | 1 | 2 | 3 | 2 | 1 | | |
| | 문화기 | 16 | 5 | | 3 | 2 | 16 | 7 | | 1 | 2 |
| | 말살기 | 5 | | 1 | 1 | 2 | 3 | 3 | | | 1 |
| 해방이후 | 5 | 2 | 3 | 2 | 2 | 12 | 2 | | | | |
| 계 | | | | | | | | | | | |

지붕 구조의 경우 목조 트러스 구조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왕대공 트러스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시기와 관련 없이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사용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중반부터 콘크리트를 이용한 평 슬라브 구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7. 시기별 지붕구조

| 구분 | 왕대공 | 쌍대공 | 스자보 | 콘크리트 | 경량목조 |
|-------|-----|-----|-----|------|------|
| 개항 | 1 | 1 | 1 | | |
| 일제강점기 | 무단기 | 3 | 2 | | |
| | 문화기 | 18 | 1 | 1 | 2 |
| | 말살기 | 6 | 2 | | 1 |
| 해방이후 | 10 | 1 | 1 | 1 | |
| 계 | | | | | |

4.2 登錄文化財 事例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인 등록문화재 중 용도별로 대표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찰의 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8. 고찰대상 등록문화재

| no | 지정 | 문화재명 | 건축 | 용도 | 위치 |
|----|-----|-------------------|----------|--------|-------|
| 1 | 340 | 목포중앙교회 | 1930년대 초 | 종교시설 | 전남 목포 |
| 2 | 371 | 횡성성당 | 1956년 | 종교시설 | 강원 횡성 |
| 3 | 159 |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 1925년 | 종교시설 | 광주 남구 |
| 4 | 181 | 익산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및창고 | 1930년 | 업무시설 | 전북 익산 |
| 5 | 248 | 구일본우선주식회사인천지점 | 1888년 | 업무시설 | 인천 중구 |
| 6 | 270 | 반야월역사 | 1932년 | 업무시설 | 대구 동구 |
| 7 | 372 | 구나가사키18은행군산지점 | 1907년 | 업무시설 | 전북 군산 |
| 8 | 121 | 구례구방광초등학교교사 | 1946년 | 교육시설 | 전남 구례 |
| 9 | 178 | 익산구이리농림학교축산과교사 | 1932년 | 교육시설 | 전북 익산 |
| 10 | 337 | 강경화학교학교교사및사택 | 1925년 | 교육시설 | 전북 강경 |
| 11 | 173 | 전주중앙동구박다옥 | 1929년 | 상업시설 | 전북 전주 |
| 12 | 246 | 인천선린동공화춘 | 1905년 | 상업시설 | 인천 중구 |
| 13 | 70 |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 1940년 | 산업시설 | 전남 고흥 |
| 14 | 4 | 효목동조양회관 | 1922년 | 문화집회시설 | 대구 동구 |
| 15 | 15 | 대구동산병원구관 | 1931년 | 의료시설 | 대구 중구 |
| 16 | 67 | 구소록도갱생원감금실 | 1935년 | 의료시설 | 전남 고흥 |

4.2.1 宗教施設

가) 목포중앙교회(구동본원사목포별원) - 등록문화재 제340호(종교시설)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일본식 불교사원으로 국내에서는 특이하게 교회로 전용된 이색적인 건물이다. 석조외관, 창호 등 전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유신독재 시대에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활용되었던 역사적 건물이기도 하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면구성은 지상1층과 일부 지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층은 직사각형의 본당과 그 전면에 철(凸)자의 형태로 돌출된 현관부, 그리고 본당 좌측에 작은 공간을 갖고 있다. 전면에 돌출된 공간은 예배장소인 코오하이(向拜)가 내부 공간화된 것이다. 지하층은 교육관과 성가대 준비 등 다용도로 사용된 공간이다. 입면은 석조의 축부(軸部)와 지붕부로 대별된다. 입면의 구성비는 몸체보다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벽체를 구성하는 구조재료는 화강석으로 다양한 크기로 가공되어 사용되었는데 쌓기는 막힌 줄눈으로 쌓았고 줄눈이 규칙적이지는 않다. 현관부와 본당의 바닥은 동바리와 장선이 있는 마루를 시설하였다. 지붕은 목조 트러스로 가구(架構)를 짜고 기와로 마감하였다. 주 가구는 트러스이면서도 그 끝부분인 처마부는 일본 사찰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따름으로서 절충적인 성격을 갖는다.⁷⁷⁾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의 시기별 용도와 건축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9.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의 시기별 용도와 건축적 변화표¹⁾

| 시 기 | 주요내용 | 비 고 |
|--------|---------------------------------|-----|
| 1898. | 동본원사 목포별원 설립 | |
| 1905. | 목조 불전 완공 | |
| 1930년대 | 1930년대 초반 불전을 석조 건물로 개축한 것으로 추정 | |
| 1957. | 동본원사 불전을 기독교 교회로 활용 | |
| 2007. | 등록문화재 제340호 등재 | |
| 2008. | 기독교 신도들이 옮겨가고 부속건물들이 철거됨. | |

나) 횡성성당 - 등록문화재 제371호(종교집회시설)

서양 로마네스크 양식을 6.25전쟁 이후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간략화 시켜 1956년 완공한 라틴크로스 평면의 석조 성당으로 중앙에 종탑과 함께 주출입구가 배치된 거친마감의 석조 건물이다. 건축 당시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설치한 종, 천장 상부 목조 트러스 구조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4각형 평면위에 상부를 스퀀치 수법을 이용해 8각형의 공간을 설치하고 그 위에 돔을 얹어 구성한 종탑이 매우 특징적인 건물이다.

건축적 특성⁷⁸⁾을 살펴보면 성당의 위치는 횡성읍 동북쪽 낮은 언덕에 자리한 대지는 남쪽

77) 문화재청, 목포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33-p.61

78) 문화재청, 횡성성당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43-p.61

과 서쪽 두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대지로의 진입은 2개소이다. 본당은 남남동향(壬坐丙向)이고 주변에 사제관(남서측), 교육관(남동), 수녀관(북동), 유치원(북서)이 위요하듯 배치되어 있다. 본당의 평면구성은 정면 중앙에 종탑이 있는 석조 건물로서 폭과 길이의 비는 1 : 2.923이 되는 장방형 평면이다. 외형은 전체적으로 라틴크로스(LatinCross)의 로마네스크(Romanesque)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트란셉트(Transeot)부분이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성당의 구조는 조적구조로서 내부에 1.5B 적벽돌, 외부에 220mm 두께의 화강석을 함께 조적하고 군데군데 화강석(감잡이 돌)을 박았다. 지붕은 경사지붕에 골함석을 이었는데 지붕틀은 목조 왕대공트러스구조이다. 종탑은 횡성성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한국 양식성당의 일반적인 종탑 대신에 반구형 돔을 얹었으며, 정사각형 평면의 탑신에서 정8각형 종루, 그리고 그 위의 반구형 돔이 갖는 적절한 비례감이 우수하다. 횡성성당의 시기별 건축적 활용과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0. 본당의 시기별 건축적 활용과 변화¹⁾

| 시 기 | 주요내용 | 비 고 |
|------------|-------------------------------|--------------|
| 1956. | 횡성성당 본당 준공 | |
| 1976. | 제대 측 벽면 마감재 공사(목재) | 추정연대 |
| 1986. | 유리화 시공, 제대 측 벽면 마감재 공사(현재 모습) | 추정연대 |
| | 본당 물막이 흙통 설치 | 연대미상 |
| 2005. | 스테인드 글라스 시공 | (주)한국스테인드글라스 |
| 2007. | 성모동굴 조성 | |
| 2008.2.28. | 등록문화재 제371호 지정 | |

다)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 등록문화재 제159호(종교시설)

1924년에 착수하여 1925년에 완공된 커티스메모리얼홀은 외국인 선교사 배유지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건축물로 유진벨(1924 - 1954)목사가 돌아가신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55년부터는 커티스메모리얼 명칭이 배유지 기념관⁷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건축적 특성으로 주요구조는 회색벽돌을 이용한 1.0B 네델란드식 쌓기하여 내력벽을 구성하고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구조위 골함석을 올렸다. 바닥은 멩에와 장선을 깔고 내수합판을 붙인 뒤 플로어링을 붙였고, 천정은 격자형으로 종단면을 3등분하여 가장자리는 빗천장이

79)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56

고 중앙은 평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붕왕대공트러스 하현재가 수평재이지만 본 건축물은 하현재를 X자로 교차시켰기 때문에 빗천장과 평천장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창호는 조적조 평아치와 첨두아치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하여 신고전주의적 이미지를 풍기는 건축물이다. 커티스메모리얼홀은 인물기념관으로 건립되어 건립당시 지하층은 선교사들이 집무실로 1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지하층은 목사님의 집무실과 도서실로 이용되고 1층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립후 현재까지 유사한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다.

커티스메모리얼홀의 수리이력⁸⁰⁾은 1986년 1층 출입구 비막이 설치, 1996년 지붕합석판 교체 및 페인트 도장과 지하층 형광등 설치, 2003년 외벽보수, 2004년 현관출입구문 교체 및 배면 외벽지시대 설치, 2009년 지반보강 후 외벽지시대 철거, 벽체보강 및 균열부위 긴결철물보수, 바닥, 벽, 천정보수, 지붕 골합석 동판으로의 교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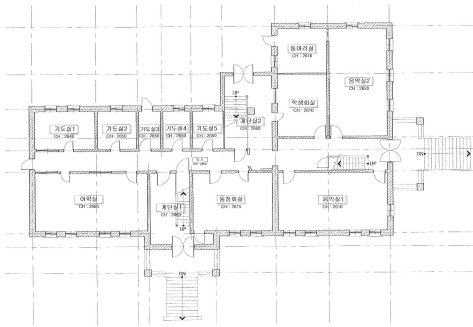


그림 31. 평면도

출처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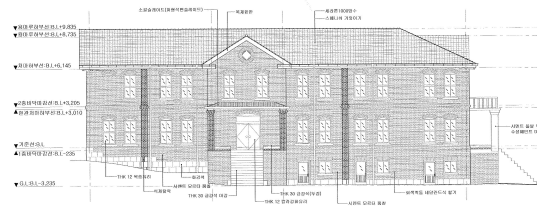


그림 32. 정면도

출처 :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기록화조사보고서

80) 문화재청,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09, p.16-17

4.2.2 業務施設

가) 익산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및창고 - 등록문화재 제181호(업무시설)

1930년 건립된 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 건축물로서 외벽의 장식적 조적수법 및 맨사드 지붕의 목조트러스 가구법에서 수준높은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근대 양풍건축물로서 설계 및 시공자는 미상이다. 부대시설로는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일식목가구구조의 관사와 1975년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의 신청사와 창고 2동이 있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면은 각층마다 면적이 체감토록 계획된 건물로서 초창기 벽체구성의 분할선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경량칸막이로 세분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입면구성은 붉은벽돌 화란식쌓기하면서 현관 상부는 인조석을 사용해 꽃잎무늬 형상의 돌림띠로 처리하여 치장하였다. 꽃잎무늬 형상의 인조석은 2층 정면 중앙의 출입구와 창호 테두리에도 사용하였고 2층 테라스 난간에는 화강암을 사용하여 붉은 벽돌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외벽에는 오르내리창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하여 안정적인 리듬감을 보이고 있다. 창문은 0.5B 이상 들여 설치함으로써 1층과 2층의 창문이 시각적으로 볼 때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지붕은 목조 쌍대공트러스 구조체의 맨사드형 지붕으로 함석판을 올렸다. 지붕의 정면과 배면의 중앙에는 각각 회전창을 3개씩 설치하고 회전창 좌우에는 삼각형의 비늘창을 냈다.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의 연혁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⁸¹⁾

표 41. 시기별 익옥수리조합 연혁표¹⁾

| 시 기 | 주요내용 | 비 고 |
|---------------|---------------------------------|-----|
| 1919. 09. 01. | 익옥수리조합, 임익남부수리조합 합병인가 신청 | |
| 1920. 02. 05. | 익옥수리조합설립(익옥과 임익남부수리조합 합병) | |
| 1922. 12. 25. | 대아댐 준공 | |
| 1926 | 한국최초의 경지정리(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 |
| 1930. 08. 12. | 익옥수리조합청사 준공 | |
| 1941. 04. 01. | 전북수리조합 설립(익옥,임익,전익,옥구서부수리조합 합병) | |
| 1962. 01. 21. | 전북수리조합 - 전북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 | |
| 1970. 01. 21. | 전북토지개량조합 - 전북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 |
| 1996. | 익산시 목천동으로 청사 이전으로 익옥조합청사 활용중지 | |

81) 문화재청,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사무소 및 창고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34

나) 구일본우선주식회사인천지점 - 등록문화재 제248호(업무시설)

각종 공문서 및 사진들을 통해 알려진 본 건축물의 연혁을 살펴보면 크게 4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초창기의 본 건축물의 정면은 서측면으로 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5기에 걸쳐 동측, 남측, 북동측, 북측순으로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삼각형의 페디멘트를 설치한 정면의 포치는 3기인 1935년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4년부터 활용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내부수리공사가 시작되어 ‘미술문화공간 홍보 및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⁸²⁾

표 42.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시기별 건축현황표¹⁾

| 구분 | 기간 | 변경내용 | 기타 |
|-----|--------------|-----------|----|
| 초창기 | 1888년 | 좌우대칭장방형 | |
| 1기 | 1888년~1893년 | 동측 증축 | |
| 2기 | 1894년~1834년 | 남측창고 증축 | |
| 3기 | 1835년~1970년경 | 북동측 사택 증축 | |
| 4기 | 1970년~2006년 | 북측 창고 증축 | |
| 5기 | 2007년~2008년 | 활용위한 내부수리 | |

다) 반야월역사 - 등록문화재 제270호(업무시설)

1932년에 건립된 철도역사로서 대구선 동촌역과 청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목조평벽 맞배지붕으로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다수 건립된 박공지붕형식의 철도역사로서 인근에 위치한 동촌역사와 함께 역사적, 건축적 중요성을 가지는 건물이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요구조는 기초, 축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는 콘크리트 연속기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에서 창대까지는 200mm두께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대이상의 벽체는 목구조로 되어있으며, 지붕은 목조트러스 구조체인데 역무원실은 평왕대공트러스이고, 대합실은 경사형 왕대공트러스를 설치하여 대합실 천정에서 경사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반야월역사의 연혁을 보면 1917년 대구선이 개설된 이래로 현재의 역사는 1938년 영천선

82) 문화재청,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64

의 광계화와 더불어 반야월역사는 인근의 동촌역사, 영천역사와 같은 시기에 현재의 모습으로 준공되었으며, 1960년에 화물전용홈이 개설되었고 1971년에는 한일시멘트 전용선이 개설되었다. 구선 이설계획에 따라 2005년 반야월 - 청천구간이 폐지된 이래로 역사의 기능이 축소되어 오다가 2008년 2월 14일로 역사의 기능을 중지하고 폐쇄되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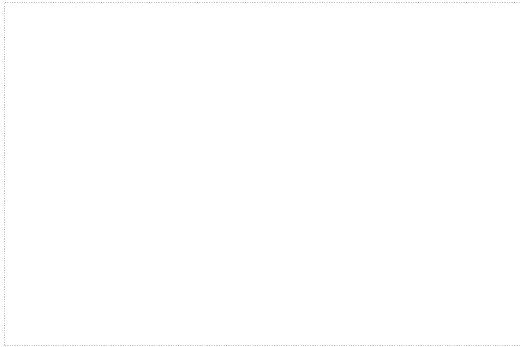


그림 33. 반야월 역사 전경
출처 : 반야월역사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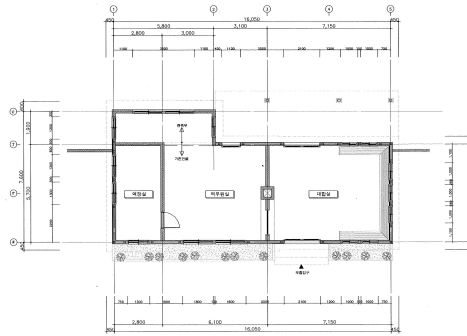


그림 34. 반야월역사 평면도
출처 : 반야월역사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35. 반야월역사 정면도
출처 : 반야월역사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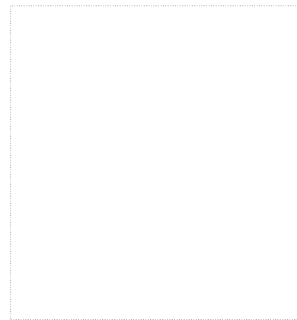


그림 36. 반야월역사
대합실 및 역무원실 지붕
트러스 상세도
출처 : 반야월역사
기록화조사보고서

83) 문화재청, 반야월역사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27

라) 구나가사키18은행군산지점 - 등록문화재 제372호(업무시설)

1907년 건립된 군산지역 최초의 은행 건물로 당시 은행건축의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폐쇄적인 외관으로 구성되었고 부분적으로 인조석을 사용하여 장식되어 있음. 현재 은행 본관 파사드와 내부는 개조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수직창 상부의 반원아치창이 돋보이는 양 측면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부속건물 2개동(창고, 사무실)도 원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당시 일본사업가들의 진출과 수탈미곡 반출 토지 강매 등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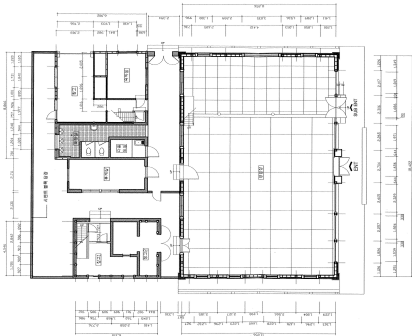


그림 37. 구 나가사키18은행 평면도
출처 :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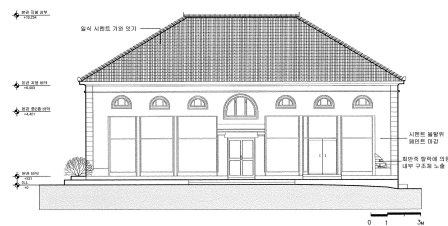


그림 38. 구 나가사키18은행 정면도
출처 :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본관 평면구성은 장방형(1 : 1.56)으로 영업장과 객장으로 구분하고 기타서비스실은 배면에 부속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입면은 전체적으로 지붕과 반원창 및 수직창이 있는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벽체의 주요구조체는 목재이고 지붕은 목조 왕대공트러스 구조체 위에 시멘트 평기와를 올렸다. 구 나가사키18은행 건립후 시기별 주요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⁴⁾

표 43. 시기별 건축물 주요연혁표¹⁾

| 시 기 | 내 용 | 비 고 |
|-------------|--------------------------------|-----|
| 1907. |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설립 | |
| 1914.10.13 | 현 주소지 최초 등기 | |
| 1936. 3. 7 |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폐지 | |
| 1936. 4. 24 |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건물 조선식산은행 매입 | |
| 1938. 4. 4. |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건물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매입 | |

| 시 기 | 내 용 | 비 고 |
|-----------|--------------------|-----|
| 1950. 11. |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 |
| 1963. 2. | 대한통운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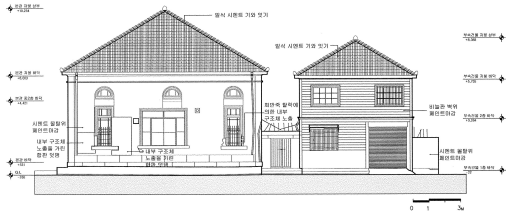


그림 39. 구 나가사키18은행 우측면도
출처 :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40. 구 나가사키18은행 전경
출처 :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84) 문화재청, 구 나가사키18은행 군산지점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25

4.2.3 教育施設

가) 구례구방광초등학교 교사 - 등록문화재 제121호(교육시설)

본 교사는 한말에 순국하신 황매천 선생이 건립한 사립 호양학교의 정신을 본받아 천은사와 지방민이 국고 보조없이 1946년 건립하여 개교하여 교사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5년 호양민속학습관으로 개조되었고, 방광초등학교는 1999년 인근 광의초등학교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지리산학생수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⁸⁵⁾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자형의 평면을 갖는 편복도형 교사로 운동장 북쪽에 면하여 배치하였다. 교사의 주출입구와 편복도는 북쪽으로 두고 교실은 남향으로 계획하였다. 입면은 기단과 몸체, 지붕부로 구성하여 1971년 졸업사진에는 초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플라스틱창호로 바뀌면서 서측으로부터 10번째 칸에 있던 운동장과 통하는 출입문이 창문으로 변경되었다. 지붕틀가구는 전통한옥의 대들보 구조로 하지 않고 목조트러스구조를 선택한 한식과 양식을 혼합한 절충식 가구수법을 도입한 건축물로서 시멘트평기와를 올린 팔작지붕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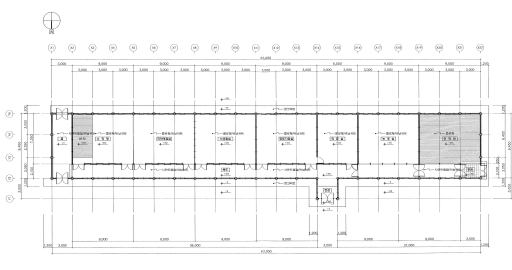


그림 41.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평면도
출처 :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그림 42.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정면도 및 배면도
출처 :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85) 문화재청,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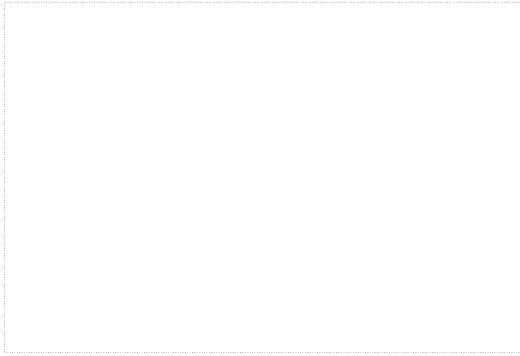


그림 43. 건립당시트러스 구조

출처 :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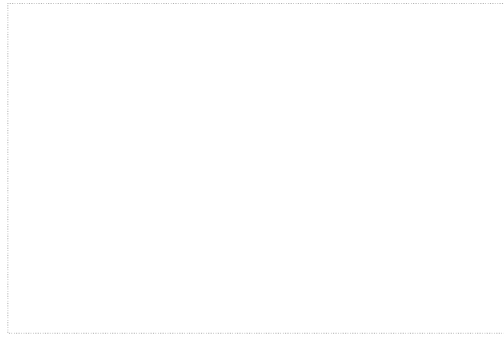


그림 44. 건립당시 트러스 구조

출처 : 구례 구 방광초등학교 기록화조사보고서

나) 익산구이리농림학교축산과교사 - 등록문화재 제178호(교육시설)

1932년 구 축산과 교사는 본래 이리농림학교의 ‘수의축산과 특별교실’이란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건축적 양식은 근대벽돌조 교사건축으로 벽돌조에 지붕을 목조트러스로 구성하였다.⁸⁶⁾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면은 측면과 정면의 비가 약 1:3.5로 장방형의 가로로 긴 형태에서 서측에 창고로 쓰이는 공간과 배면에 현관과 화장실이 돌출된 형태이다. 외벽은 벽돌조로서 1.0B로 쌓아 비교적 두께가 얇지만 굴뚝과 출입구 부분을 돌출시켜 벽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쌓기방식은 화란식쌓기로 일부 변형기법이 가미되었다. 지붕구조는 왕대공트러스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부재의 형태와 규격, 결구방법은 타 벽돌조 근대건축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건립후 시기별 주요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⁷⁾

표 44. 시기별 건축물 활용에 관한 주요연혁표¹⁾

| 시 기 | 건축물 활용 | 비 고 |
|---------------|---------------------------|-----|
| 1932. 03. 30 |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 특별교실 건립 및 활용 | |
| 1945. | 축산과로 과명변경 | |
| 1949. 08. 01. | 공립이리농림중학교 수의축산과로 부활 | |
| 1972. 01. 31. | 이리농림고등학교 축산과로 변경 | |
| 1991. 03. 01. | 이리농공전문대학교 축산개발과로 변경 | |

86) 문화재청,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6, p.19

| 시 기 | 건축물 활용 | 비 고 |
|-------------|----------------------------|-------|
| 2000.11.-현재 | 동물자원과로 변경 | 산업제어관 |
| 2004. | 지붕공사와 내부공사를 거쳐 동아리방으로 용도변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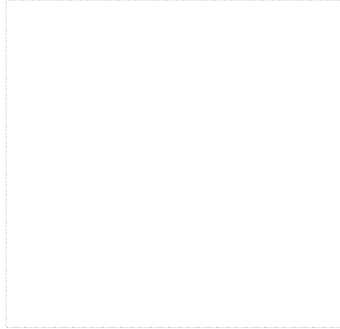


그림 45. 교사 평면도 현재
및 추정

출처 :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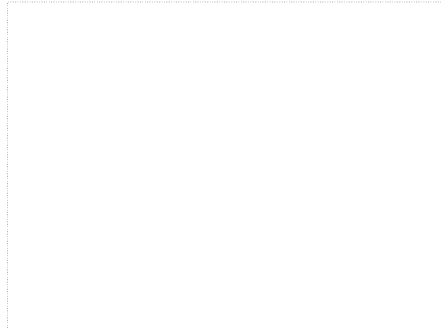


그림 46. 2004년 이후 모습

출처 :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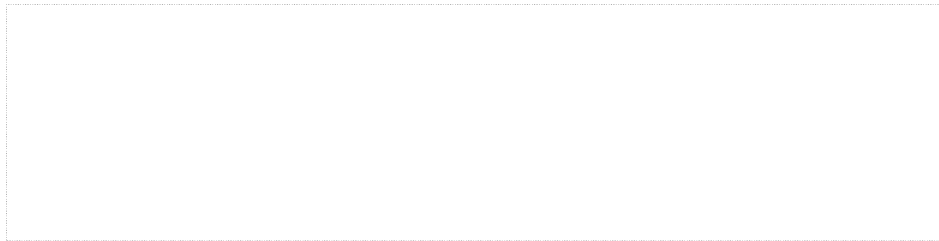


그림 47. 정면도

출처 :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87) 문화재청,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축산과 교사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6, p.32-p.36

다) 강경화교학교교사및사택 - 등록문화재 제337호(교육시설)

강경노동조합 초대 조합장 정홍섭이 중심이 되어 1925년 신축한 건물로 원래는 2층 이었으나 현재 1층의 일본목조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다. 정면 중앙부에 입구를 두고 돌출된 작은 지붕으로 포치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로 강경지역 근대 상권의 흥망성쇠를 엿 볼 수 있는 상징적 건물이다.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건물배치는 장방형의 대지 북서측에 위치하여 남동향 즉 건좌손향(乾坐巽向)을 하고 있으며, 사택은 대지 북동측에 위치하여 남서향 즉 간좌곤향(艮坐坤向)을 하고 있다. 평면구성은 교사와 사택 모두 ‘一’자형의 단순한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교사의 입면구성은 특별한 장식이나 의장적 요소가 없이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면 중앙 현관의 아치와 양각된 학교 훈시 및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의 상징무늬가 입면 구성의 중심요소이며, 벽면은 거친 마감으로 강조하였다. 지붕은 박공지붕이며, 전체 입면의 절반 이상을 지붕이 차지하고 있다. 사택의 입면은 교사보다 더욱 단순하게 벽면 처리가 되어 있다. 전면은 필요한 창문만 설치되어 있으며, 창문의 상하에는 인방형태를 표현하기위해 벽면에서 돌출된 삼각형의 상인방과 ‘一’자형으로 돌출된 하인방을 만들어 입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건축구조는 교사와 사택은 기본적으로 왕대공 트러스 지붕틀로 구성되어 있으나, 벽체는 심벽구조로 확인된다.⁸⁸⁾ 강경의 화교와 강경 화교학교의 건축적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표 45. 강경의 화교와 강경 화교학교의 시기별 건축적 용도¹⁾

| 시 기 | 주요내용 | 비 고 |
|------------|----------------------|--------------|
| 1948. | 서울에 한국 최초의 화교학교 설립 | |
| 1956. | 강경화교학교 설립 - 소학교과정 전담 | 마룻대 목서명 기록 |
| 1950년대 | 학생수 40-50여명 | 사진자료 |
| 설립 - 1982. | 졸업생 약200여명 | 1982년 중수기 기록 |
| 2000년대 | 학생수 4 - 5명 | |

88) 문화재청, 강경 화교학교 교사, 사택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27-p.54

89) 문화재청, 강경 화교학교 교사, 사택 기록화조사보고서, 2008, p.23

4.2.4 其他施設

가) 전주중앙동구박다옥 - 등록문화재 제173호(상업시설)

1929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계열 절충주의 양식⁹⁰⁾으로 분류되는 3층의 상업건축물로서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음식점이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요구조는 철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이고, 바닥은 건립 당시 목조 마루바닥이었으나 1970년대 2층과 3층 바닥판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변경한 것으로 전한다. 창호는 건립 당시 목조 오르내리창이었던 것이 알루미늄 새시창으로 변형되었고, 지붕틀은 목조왕대공 트러스구조로서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⁹¹⁾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현재는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는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이었던 것을 1990년대에 지붕을 수리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었다.⁹²⁾ 박다옥 건립 후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 현황⁹³⁾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기간별 건축적특성과 활용현황표

| 기간 | 건축적 특성 | 활용현황 |
|--------|---|----------------|
| 1929년 | 일본인 가네우찌 토시요시가 건립 | 우동집 운영 |
| 1940년 | 소유주변경 : (주)남선수력전기 소유 정면 박공면의 번개장식 이 시기 것으로 추정 | 전기회사로 활용 |
| 해방후 | 소유주 몇차례 변경 1층 외벽변경-넓은 유리창과 셔터박스 설치 | 1층을 임대상가로 활용 |
| 1970년대 | 2층과 3층바닥 콘크리트 슬라브로 변경 | 상가로 활용 |
| 1995년 | 소유주변경 : 완산새마을 금고 소유 함석지붕 샌드위치패널로 변경. | 상가로 활용(일부 비활용) |

90) 문화재청,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27

91) 문화재청,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54

92) 문화재청,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48

93) 문화재청,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6, p.61

나) 인천선린동공화춘 - 등록문화재 제246호(상업시설)

190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국내의 자장면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인 평면은 ‘目’자형으로 전후면에 ‘一’자형의 건물이 있고 그 사이공간을 4개의 건물이 연결하고 있으며, 각 연결 건축물 사이에는 중정이 구성되어 있다. 상업용도 건물에 중정형의 공간구성을 취한 것 등의 구법은 당시 청국조계지의 건축특성 즉 주상복합의 용도를 가지는 경산식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중국요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자장면을 상용화한 최초의 중국요리 전문점으로서 생활사적, 향토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용도로 건립한 경산식 구조로 1917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의 건축물이 동원과 서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동원과 서원은 동일한 구조와 평면을 가지고 있다. 셋째, 양원은 남북으로 12칸 규모의 중층루방이 있으며, 동서로는 중층배루 12칸이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 보면 동서 양원으로 건축물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남북으로 루방이 구성되고 동서방향으로 배루(配樓)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면특성은 조적벽돌위 타일마감으로 된 부분과 조적벽 미장 위 페인트 마감부, 치장벽돌 마감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3가지 마감방식은 최초 건축 당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변화과정을 대변하고 있다. 건축구조 특성은 조적 내력벽 + 왕대공 트러스 지붕을 기본으로 하고, 2층 복도 부분에 중국식 목구조를 병용하고 있다. 서원의 2층 부분은 후대에 대형 홀로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회랑부를 구성하던 목구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다. 지붕구조는 목조트러스구조이다. 공화춘의 건축연혁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⁹⁴⁾

표 47. 공화춘의 시기별 건축물 연혁표¹⁾

| 시 기 | 주요내용 | 비 고 |
|---------------|-----------------------------------|--------|
| 1900 - 1940년대 | 1917년 매매계약서를 통해 초창기 모습 추정(동원/서원) | 경산식 구조 |
| 1940 - 1968년 | 1940년 이후 영업이 번창하여 북쪽으로 크게 증축 | |
| 1968 - 1984년 | 1968년 서원매입 개보수후 동원과 서원 합쳐서 사용 | |
| 1984 - 현재 | 1984년 폐업 서원 1층 가정집, 동서원 2층 창고로 임대 | |

94) 문화재청, 인천 선린동 공화춘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7, p.81-87

다)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 등록문화재 제70호(산업시설)

1940년 5월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소록도에 거주하는 나환자 등에게 지급할 보급품을 보관하기 위한 근대 절충양식⁹⁵⁾의 식량창고 건축물이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요구조는 적벽돌 조적조와 목조 트러스구조이다. 식량창고는 선박을 정박하여 바로 하역할 수 있도록 바다에 접하도록 계획하여 건립하였다. 평면구성은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이고 하부구조는 벽돌로 쌓은 2.3m x 2.3m 모듈의 68개 기초가 배치되어 있으며 상부는 9.1m x 9.1m의 정방형의 실이 4개가 일렬로 인접하여 전체적으로 장방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다. 정면은 육지의 도로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 배면과 측면은 바다 위에 놓여져 있다. 입면은 건립 당시 단순한 골슬레이트를 얹었으나 2008년 보수시 발암물질 규제에 따라 동판 잇기한 맞배지붕의 입면으로 정면에 실마다 1개씩 총4개의 출입문이 있고 배면과 측면에는 채광창과 하부에 환기구를 설치하였다. 창고의 기초구조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해수에 잠기기 때문에 조적식구조 기초 외곽에 콘크리트 피복을 입혔고, 창고 외벽은 적벽돌 치장쌓기하였다.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에 장선을 깔고 골 슬레이트를 놓았다.

갱생원 식량창고 건립후 건축적 특성과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건립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치장벽돌은 해풍에 마모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창고 기능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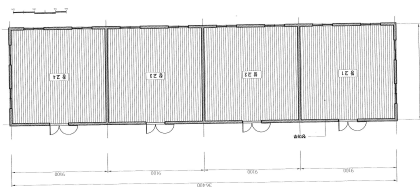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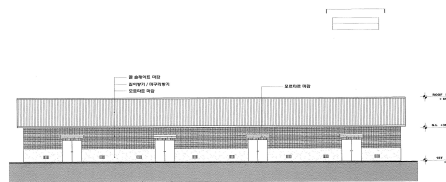


그림 53.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평면도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도면 66-1 새원창고 평면도

그림 54.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입면도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95) 문화재청, 전남 고흥군 소록도내 등록문화재 기록화 조사 보고서 下, 2005,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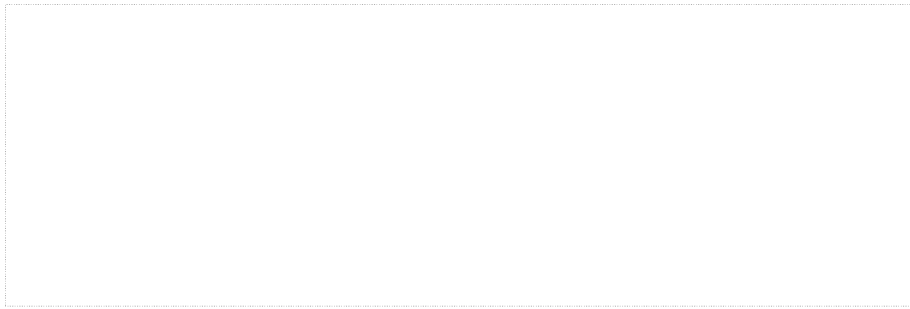


그림 55. 구 소록도 갯생원 식량창고 전경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라) 효목동조양회관 - 등록문화재 제4호(문화집회시설)

1922년 4월 1일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절충식 르네상스양식으로 분류되는 2층의 민중계몽을 위한 사회문화시설이다.⁹⁶⁾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요구조는 적벽돌 조적조 건물로 바닥과 지붕틀은 압록강에서 가져온 낙엽송을 사용했다고 한다. 동암 서상일은 3.1운동후 민족의식을 잃기 쉬운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조양회관을 건립하게 된다. 건립의 주요 관계자⁹⁷⁾를 살펴보면 토지제공자는 동암 서상일, 건축책임자는 백남채(벽돌공장 운영), 설계자는 대구의 건축가 윤학기, 공사 시공자는 중국인 기술자이다. 건축비는 회원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일본고등계 형사들의 방해공작 때문에 동암 혼자 떠맡게 되었다. 조양회관 건립후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 현황⁹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현황표

| 기 간 | 건축적 특성 | 활용현황 |
|-----------|-------------------------------------|------------------------------------|
| 1922이후 | 최초건립지 : 대구시 대신동 1번지 대강당, 회의실, 사무실 등 | 대구구락부, 대구운동협회, 대구여자청년회, 동아일보지국등 입주 |
| 1930년대 전반 | 절충식 르네상스양식 적벽돌 조적조 2층 건물 | 미술전시회장 2층 김용조의 아뜨리에 |
| 1930년대 후반 | 절충식 르네상스양식 적벽돌 조적조 2층 건물 | 대구부립도서관으로 활용되다가 태평양전쟁말 일본군 보급부대 주둔 |
| 1945~1953 | 절충식 르네상스양식 적벽돌 조적조 2층 건물 | 동암 서상일 한민당 사무실 |

| 기 간 | 건축적 특성 | 활용현황 |
|-------------|--------------------------|--------------------|
| 1953~1980 | 절충식 르네상스양식 적벽돌 조적조 2층 건물 | 원화여자고등학교 교무실 및 도서관 |
| 1980 | 월성 건설회사에 소유권 이전 | |
| 1984. 6. 9 | 대신동에서 효목동으로 해체이전 | |
| 1987. 2. 28 | | 광복회 대구경북연합지부 사무실 |
| 1999. 4. 9 | 1998.10 - 1999. 3월 내부수리 | 대구경북독립운동 사료전시관 개관 |
| 2002. 2. 28 | | 등록문화재 제4호 지정 |

마) 대구동산병원구관 - 등록문화재 제15호(의료시설)

1931년 건립된 동산의료원 구관은 서구의 고전양식을 취하지 않고 서구의 조적식 구조로 중국 기술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동산병원의 모태는 1898년 W.B.Johnson 선교사가 남성정 교회(현 제일교회)의 초가에 세운 대구 최초의 서양의학 병원인 제중원⁹⁶⁾이다. 이후로 1903년 외부자금지원을 받아 벽돌조 병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1905년 태풍으로 무너지고, 이듬해인 1906년 재건하였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의 동산병원 구관 건물은 1931년 A.G.Fletcher가 건축한 것이다. 주요구조는 시멘트 벽돌 위 붉은 벽돌치장쌓기하고, 지붕은 슬라브로 구성하였다. 현관출입구는 Parapet 이 있는 포치를 세우고, 본 건물 역시 Parapet을 구성하였다. 창호 인방은 평 아치를 두고 목재 오르내리창을 달았다. 제중원 및 동산병원 구관의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 현황¹⁰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기간별 건축적 특성과 활용현황표

| 기 간 | 건축적 특성 | 활용현황 |
|------------|---------------------------|-----------|
| 1898. | 남성정 교회 구내에 최초 서양병원 제중원 건립 | 일반 의료행위 |
| 1899.10.01 | 동산동 초가로 이전 - 동산병원으로 개칭 | 일반 의료행위 |
| 1931~1933 | 현 동산병원 구관 건축(700평, 80병상) | 일반 의료행위 |
| 1941. | 태평양전쟁시 일본군에 징발 | 경찰병원으로 사용 |

96) 문화재청,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4, p.17

97) 문화재청,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4, p.24

98) 문화재청, 효목동 조양회관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4, p.24~25

| | | |
|----------|---|------------------|
| 1950. | 6.25시 군에 징발 | 국립경찰병원 대구분원으로 사용 |
| 1953. | 건물 좌측에 소아과병원 신축, 좌측과 뒤편에 현대식 외래진료소, 입원실신축 | 일반 의료행위 |
| 1996. | 일부증축 | 일반 의료행위 |
| 1999. 2. | 신관증축을 위한 일부멸실 | 일반 의료행위 |
| 2004. | 4층부분을 철골조로 증축 | 일반 의료행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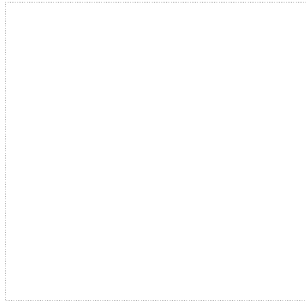


그림 56. 구 제중원과 현재
제중원 1층 평면도
출처 : 대구 동산병원 구간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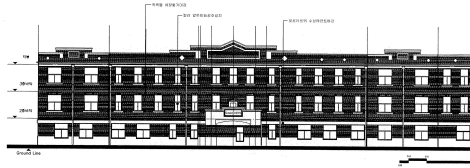


그림 57. 제중원 정면도
출처 : 대구 동산병원 구간 기록화조사보고서

바) 구소록도갱생원감금실 - 등록문화재 제67호(의료시설)

1935년 5월에 건립된 건축물로 원장이 법의 절차 없이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병환자 등을 징계 검속권을 행사하여 구금하고 감식하며 체벌도 할 수 있는 행장공간으로 활용돼온 감금실로서 근대 절충양식¹⁰¹⁾으로 분류되는 조적식 건축물이다.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요 구조는 적벽돌 조적조와 목조 지붕틀구조이다. 배치는 두 건물을 마주보게 하고 중간에 회랑을 두어 H자로 배치하였고, 평면구성은 단순한 박공형 건물로 벽은 적벽돌 치장쌓기하고 지붕은 비닐무늬 시멘트기와를 덮었다. 내부는 격리된 방과 변기, 온돌난방을 위한 아궁이 흔적이 남아 있다.

99) 문화재청, 대구 동산병원 구간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5, p.21

100) 문화재청, 대구 동산병원 구간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5, p.33

101) 문화재청, 전남 고흥군 소록도내 등록문화재 기록화 조사 보고서 上, 2005,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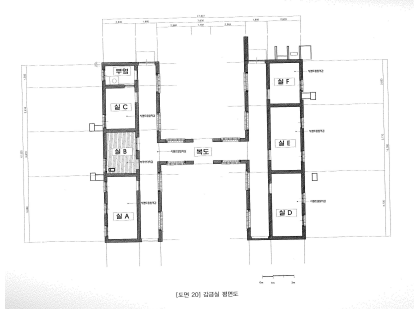


그림 58.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평면도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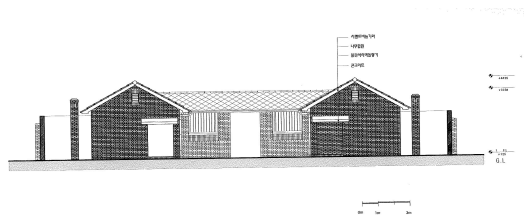


그림 59.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정면도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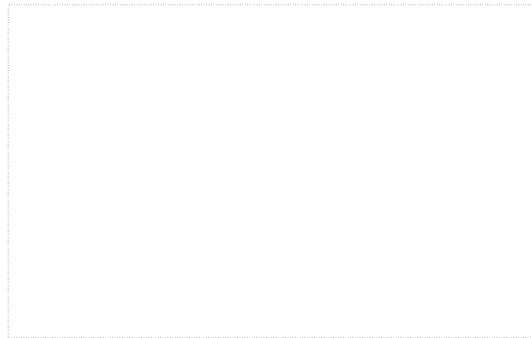


그림 60.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전경
출처 : 전남 고흥군 소록도 내 등록문화재 기록화조사보고서

5. 登錄文化財의 建築的 變容

5.1 平面의 變容

본 장에서는 대상건축물의 평면 변용현상과 변용원인을 밝히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각 건축물에서 나타난 변용형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변용원인을 찾고 변용이 진행되는 단계와 시기에 따른 변용현상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평면변용은 건축물의 평면형태와 각 실의 공간구성 등을 변화시킨 것으로 면적의 증가나 감소와 면적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평면변용의 유형은 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 단위 공간의 개수가 증가하는 분할과 역으로 공간의 개수가 감소하는 통합, 면적과 실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축소 그리고 벽체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조정으로 나눌 수 있고 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에 덧붙여 실을 추가하는 부가와 기존의 실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로서 변용의 유형은 부가, 확장, 통합, 분할, 축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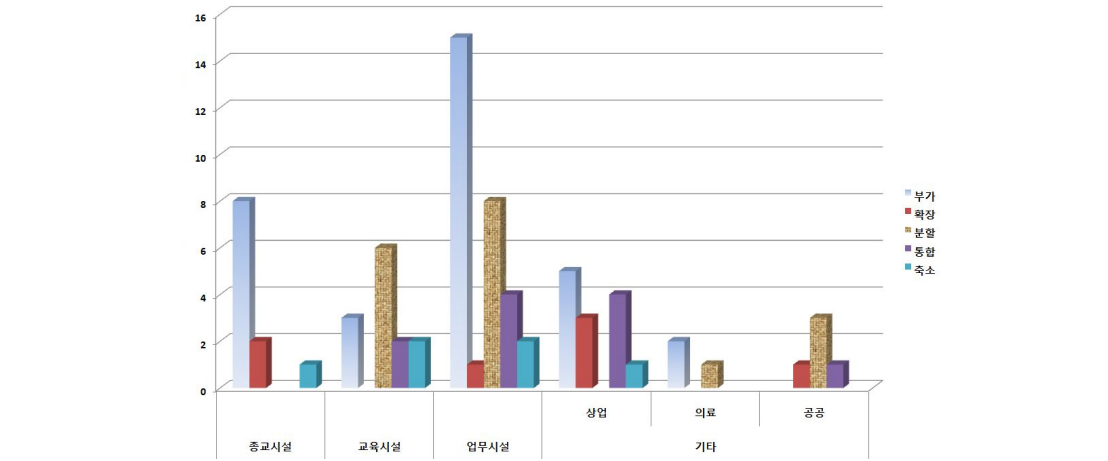
대상건축물에서 발생한 변용의 유형별 빈도는 부가형 33, 분할형 18, 통합형 11, 확장 7, 축소 5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용은 하나의 유형뿐만 아니라 증축과 조정, 분할 및 통합 등의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이러한 변용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79와 같다.

이중 종교시설의 경우 부가에 의한 증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교육시설은 분할에 의한 공간의 조정이 변용의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업무시설은 부가를 통해 실과 면적을 증가시키고, 분할하여 실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변용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기타시설 중 상업시설은 부가, 확장, 통합이 고르게 나타났고 공공시설은 분할의 방법으로 변용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표 50. 용도별 평면변용 빈도

| 구분 | | 부가 | 확장 | 분할 | 통합 | 축소 | 계 |
|------|---|----|----|----|----|----|----|
| 종교시설 | 6 | 8 | 2 | | | 1 | 10 |
| 교육시설 | 8 | 3 | | 6 | 2 | 2 | 13 |

| | | | | | | | | |
|------|----|----|----|---|----|----|---|----|
| 업무시설 | | 14 | 15 | 1 | 8 | 4 | 2 | 30 |
| 기타시설 | 상업 | 4 | 5 | 3 | | 4 | 1 | 13 |
| | 의료 | 2 | 2 | | 1 | | | 3 |
| | 공공 | 4 | | 1 | 3 | 1 | | 5 |
| 계 | | | 33 | 7 | 18 | 11 | 5 | 74 |



수 있었다. 이러한 변용 현상을 시설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1.1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건축물에서 변용이 발생하였고 변용의 빈도는 29회로 평균 2.4회가 넘는다. 변용의 유형으로는 부가(13)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분할, 통합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실과 면적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용되었다.

이와 같이 변용이 발생한 업무시설 중 증축의 사례로 부안금융조합은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보아 1920년대 중반 이전에는 건축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최초로 등기된 것은 1960년으로 정확한 기록은 이 시점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조합의 건축물은 1950년대 후반부터 소유주가 바뀌면서 용도도 같이 변하였고 현재는 부안군청의 소유로 되었다. 금융조합 건축물은 총 3차례의 변용과정을 통해 현재의 평면구성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용과정은 부안 농업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모두 이루어졌다.

변용의 과정은 모두 부가의 형식으로 면적과 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



배면전경



1920

1967

1970

1971

그림 61. 부안금융조합의 변용과정

정을 살펴보면 먼저 최초로 신축된 건축물은 전면의 사무실과 금고로 건축 당시 객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첫 번째 변용은 객장의 배면 즉 금고의 우측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창고와 소회의실을 증축하였다. 두 번째 변용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가의 방법으로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용이 발생하였다. 1차 변용 때 증축된 소회의실의 배면에 사무실과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증축한 사무실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부출입구도 설치하였다. 부안금융조합은 두 번째 변용으로 장방형 평면은 ㄱ자형의 평면으로 변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변용의 경우도 1차 2차와 같이 부가의 방식으로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1, 2차 증축의 반대편인 금고의 좌측에 간이부엌과 창고 그리고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세 번째 변용으로 ㄱ자형 평면형태는 ㄴ자형으로 바뀌었고 금고의 배면에 증축부분 상호간에 연결되는 통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부안금융조합의 변용과정은 초기 건립에서 3차례의 변용을 거치면서 모두 기존 건축물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회의실, 사무실, 창고, 간이부엌, 화장실을 증축하였고 이를 통해 일자형이던 평면 형태는 ㄱ자형으로 다시 ㄴ자형으로 변하였다. 이후 부안농업협동조합에서 부안단위농협으로 다시 김태철씨, 전북그린피스, 부안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의 경우 1958년 건축된 건축물로 농산물 검사소로 건축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소유권 이전과 보수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다.

건축당시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214.84㎡, 2층은 187.07㎡로 건축되었으나 이후 1997년 1층을 26.8㎡ 증축하였다고 기록되었다.

기존평면을 살펴보면 ㄱ자형 평면으로 양쪽 돌출부가 만나는 부분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진입하면 각 실에 연결되는 작은 홀이 나타난다. 홀을 중심으로 분석기기실, 시양창

고, 당직실, 주방, 화장실이 좌측에 자리하고 분석전처리실이 우측부분에 위치해 있다. 2층의 경우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무실 전면에 세미나실, 우측에 속성분석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속성분석실 배면에 부속실이 자리한다.

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의 변화 및 변용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건립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총 3번의 변용과정을 거쳤고, 그 변용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변용은 건축물의 배면을 증축한 경우로 1층의 경우 당직실과 창고의 배면에 감정실, 2층 속성분석실 배면에 부속실을 증축하였다. 1층의 경우는 외부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나 2층은 속성감정실의 배면에 개구부



그림 62. 농산물품질관리원충청지원의 변용과정

를 내어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두 번째 변용은 분석기기실 배면에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1차변용 되었던 감정실에 이어 건축물 배면 전체의 입면이 변하였고 1차변용과 달리 1층만을 증축하였다.

3차변용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시관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용이 발생하였다. 변용의 내용은 2차 변용으로 증축되었던 창고를 해체해 원형으로 복원¹⁰²⁾을 시도하였고,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문을 떼어내고 그림 00과 같이 벽체 일부를 철거하였으며 화장실 공간을 정비하였다. 이층의 경우는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변경하고 세미나실 전면에 부속실의 철거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고 창문을 반자로 막아 암실로 개수하였다.

업무시설의 경우 가장 많은 평면 변용의 유형과 빈도를 보이고 시설군으로 변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1차변용 시에는 업무공간의 부속적인 실이 부가되어 실의 개수와 면적이 증가하는 변용이 주로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2차와 3차로 변용이 계속됨에 따라 초기

102) 기록화 보고서에 의하면 1차 증축 된 상태를 원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증축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증축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원형 복원의 시점을 1차 증축이 이루어진 평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용도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부가와 실의 분할을 통해 실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용되는 반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는 통합과 재분할로 새로운 용도에 맞게 평면 구성을 바꾸는 변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면과 용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 업무시설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이 6개소가 있으며 평면의 증축과 조정 그리고 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공시설로 변모한 사례가 비교적 많다. 이는 근대건축물중 업무시설의 변화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1.2 교육시설

교육시설의 경우 6개의 건축물에서 변용이 발생되었고 그 변용의 빈도는 9회로 평균 1.5회로 나타났다. 변용의 유형은 분할, 통합의 조정과 부가가 각각 5개와 4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중 내부공간을 조정하는 변용이 발생한 익산 구이리농림학교축산과교사는 1932년에 수의축산과 특별교실로 건축되었다.



정면 전경



1932

2004

그림 63. 익산 구이리농림학교 축산과교사의 변용과정

건축당시의 평면 구성은 장방형의 전면 돌출부에 현관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현관을 진입하면 긴 복도를 통해 삼등분된 교사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측면의 모서리에 교실에서 접근이 가능한 창고를 배치하였다.

이후 축산과가 동물자원과, 산업설비제어과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실의 명칭도 바뀌었다. 이후 2004년에 교사의 용도가 대학 동아리 건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내부 벽체를 철거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12개 동아리 방으로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현관은 여자화장실로 바뀌었고 기존의 화장실 또한 개수하여 남자화장실로 조성하였으며 전면의 출입구로 진

입하여 복도를 통해 각 실이 연결된다.

괴산중학교구본관은 조정과 증축이 동시에 발생한 건축물로 1949년과 1951년 두차례에 걸쳐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부분인 1호관을 먼저 준공하고 이후 우측부분인 2호관을 준공하여 현재의 긴 장방형의 교사를 완공하였다. 교사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주 출입구는 장변의 중앙에 설치되었고 좌우측면에 각각 부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배면에 편복도를 통해 각 교실에 진입하게 된다. 실의 구성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우측은 4칸 모두 교실로 사용하고 좌측은 교장실, 서무실, 교무실, 그리고 교실로 구성되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변용이 진행되었고 변용의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94년 보수를 위한 실측과 2001년 안전진단을 위해 실시한 조사 그리고 2009년 현재까지의 변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괴산 중학교 교사의 경우 내부 벽체를 조절하여 실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변용이 발생하였다.

먼저 1994년 평면의 경우 우측 4개의 교실은 벽체의 변동 없이 어학실과 매점 등으로 용도만 변하였고 우측의 교장실과 서무실 등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과학준비실과 과학실 그리고 체육실로 변경하였다. 체육실의 경우 실의 배면의 복도까지 확장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였다. 2001년 평면 구성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부분의 경우 교실 두 개를 통합하여 미술실로 변용하였고 현관의 우측 과학실과 과학준비실을 통합하여 도예실로 변용하였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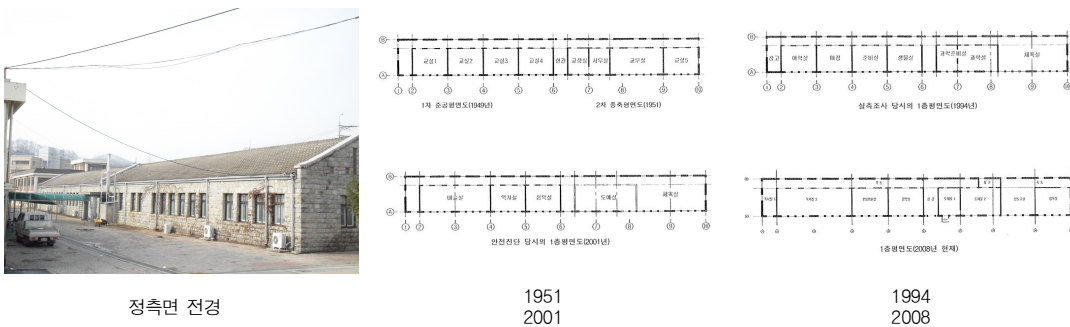


그림 64. 도갑사의 대웅전의 건축시기 추정 자료

고 나머지 공간 중 체육실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준비실은 역사실로 생물실은 음악실로 각각 용도를 바꾸었다.

현재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현관의 좌측의 경우 미술실을 독서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부출입구 쪽의 창고 또한 독서실로 바꾸었으며 역사실은 운영위원회실로 바꿨다. 그리고 도예

실은 도예실 1, 2로 구분하였고, 도예실의 전면 복도를 막아 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우측 끝의 체육실은 선도교실과 정독실로 바꾸었으며 철거했던 복도를 재설치하였다.

이 건축물의 경우 건립당시 본관으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어 교무실과 일반교실을 옮기고 교실로 사용되었던 실들은 어학실, 미술실, 체육실 등의 부속교실로 용도가 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과 바닥 벽체 등의 마감 재료를 보수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시설의 변용현상은 부가와 확장을 통한 증축보다 내부공간을 통합하고 재분할하는 변용이 주로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용은 학교내에 위치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어렵고 교사의 기능이 없어지더라도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 학교 관련시설로 전용되면서 내부 벽체의 조정으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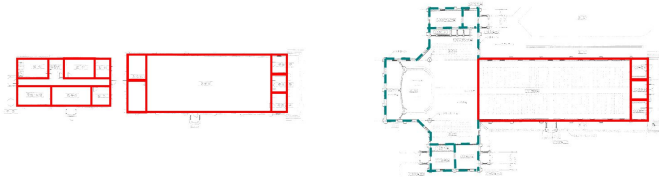
5.1.3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4개의 건축물에서 변용이 발생하였고 그 빈도는 9회로 평균 2회가 넘는다. 종교시설에서 나타나는 변용의 유형은 9차례 모두 부가와 확장을 통한 증축으로 나타났다. 이중 옥천천주교는 1955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장방형의 평면에 주 출입구가 단부에 있으며 출입구의 상부에 종탑이 세워졌다. 건축면적은 약 698.17㎡로 예배실과 제의실로 구성되었다. 1991년 신도의 증가로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간이 확장시키고 부가시키는 방법으로 증축되었다. 증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좌우의 익랑이부가하여 성가대석과 전시실, 유아실, 고해실,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고 성단은 확장하여 제의실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장방형의 평면은 라틴크로스형으로 바뀌었고 성당의 기능 다변화로 여러 부속공간이 생겨났다.

애양교회의 경우 1928년에 완공된 애양교회는 장방형의 평면에 지상 2층 규모로 2층 본당의 경우 2개의 출입구와 재단을 갖추고 있으며 1층의 경우 사제실과 소모임을 위한 실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변용이 발생하였고 그 내용은 첫 번째 변용의 경우 본당과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된 출입구의 전면에 전실을 설치하고 출입의 방향도 좌우 측면 집입으로 변경하였다. 두 번째 변용은 56년과 60년에 증축된 양쪽의 날개부분으로 사제실과 준비실을 설치하였으며 이 공간으로 통행을 위한 계단도 설치하였다. 세 번째 변용은 1980년에 출입구의 전면에 경사로를 설치한 것으로 실의 증감은 없었으나 평면의 형태가 변하였다.



정측면 전경



1955

1991

그림 65. 옥천천주교 변용과정



정측면 전경



1935
1980

1960
2009

그림 66. 애양교회 변용과정

마지막 변용은 2009년에 경사로의 부가의 방법으로 난방연료보관실을 설치하여 건립이후 지속적인 부가와 확장에 의한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종교시설은 지속적으로 부가와 확장을 통해 면적과 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건당시 시도의 수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작은 규모로 건축되었으나 신도의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본당의 규모를 확장하고 부속실을 부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축이 진행되었다.

5.1.4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종교, 업무, 교육시설을 제외한 의료, 상업, 공공시설 등으로 이중 변용이 발생한 건축물은 상업시설 3개, 의료시설 1개, 공공시설 3개로 총 7개 건축물이다. 기타시설의 변용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시설의 경우 증축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공공시설은 분할, 의료시설은 부가와 조정으로 변용이 발생하였다

이중 상업시설인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은 1888년 건축된 업무시설로 건축당시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4개의 실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필요에 의해 많은 변용이 발생되고 그 변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진행된 변용은 건축물의 배면인 동쪽에 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복도 끝에 금고와 방 2개를 추가하였고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도 설치하였다. 첫 번째 변용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94년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변용은 1894년에 본채의 남쪽에 창고를 증설한 것으로 1차변용과 같이 추가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확장하였다. 변용의 내용은 건축물의 좌측 즉 남쪽 측면에 창고를 증축한 것으로 측면에서 진입하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다음 세 번째 변용은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건축물의 좌측인 북쪽에 2회에 걸쳐 창고를 증축하였고 그 창고의 배면으로 헛간과 숙직실을 증축하였다. 이 또한 건축물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생하였고 2006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건축물은 건립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용이 진행된 반면 내부의 공간을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변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미술문화홍보 및 전시관으로 바뀌어 기존에 추가되었던 창고와 숙직실 그리고 헛간을 철거하고 내부 공간을 통합하고 분할하여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전시공간과 홍보관 그리고 화장실로 개수하여 현재 업무시설에서 문화시설로 용도도 변용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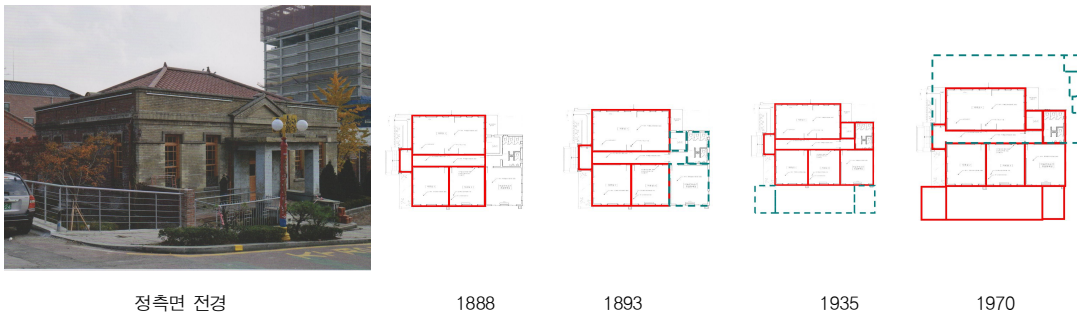


그림 67. 일본우선주식회사 변용과정

이와 같이 평면변용의 분석하면 가장 많이 발생한 변용의 유형은 부가에 의한 증축으로 실의 부족에 대한 요구와 용도 변경에 따른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하였고 다음은 통합과 분할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실을 통합하고 분할하여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도록 평면

을 구성하는 변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변용을 시설군 별로 살펴보면 종교시설은 건립이후 지속적으로 부가와 확장에 의한 증축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신도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예배 공간의 확충과 부속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시설의 경우 부가와 확장 보다는 통합과 분할, 축소 등 내부 공간을 조정하는 변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이 적고 특별교실과 독서실 등의 비슷한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업무시설의 경우 부가와 확장, 통합과 분할 등 다양한 변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군으로 부속실의 필요에 의해 변용되고, 이후 용도의 변경에 따른 통합과 분할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기타 시설은 상업시설 경우 지속적인 부가와 확장으로 실과 면적이 증가하는 변용이 발생하고 의료시설도 실의 확보를 위한 증축의 방향으로 변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변용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가되고 확장되는 건축물이 있는 반면 비록 내부의 공간구성은 변하였지만 외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부조정의 방법으로 변용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변용요인

5.2 立面的 變容

입면의 변용은 54개의 건물에서 확인되었다. 주로 변용이 일어난 곳을 부위별로 정리해 보면 출입구(20), 창호(54), 외벽(26), 지붕(36), 기타(10)이며 각 건물들은 2개소 이상 바뀌었고 많게는 강경 북옥감리교회는 5개소에서 변용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표 51. 입면변용의 유형 및 빈도

| 순번 | 입면변화 유형 | 빈도 | 퍼센트 | 누적퍼센트 | 비고 |
|----|----------------|----|-------|-------|----|
| 1 | 변화없음 | 26 | 32.5 | 32.5 | |
| 2 | 입구 | 3 | 3.8 | 36.3 | |
| 3 | 입구+지붕 | 3 | 3.8 | 40.0 | |
| 4 | 입구+지붕+외벽 | 2 | 2.5 | 42.5 | |
| 5 | 입구+지붕+외벽+창호 | 1 | 1.3 | 43.8 | |
| 6 | 입구+지붕+외벽+창호+기타 | 1 | 1.3 | 45.0 | |
| 7 | 입구+지붕+창호 | 3 | 3.8 | 48.8 | |
| 8 | 입구+지붕+기타 | 2 | 2.5 | 51.3 | |
| 9 | 입구+외벽 | 1 | 1.3 | 52.5 | |
| 10 | 입구+외벽+창호 | 1 | 1.3 | 53.8 | |
| 11 | 입구+창호 | 3 | 3.8 | 57.5 | |
| 12 | 지붕 | 7 | 8.8 | 66.3 | |
| 13 | 지붕+외벽 | 3 | 3.8 | 70.0 | |
| 14 | 지붕+외벽+창호 | 9 | 11.3 | 81.3 | |
| 15 | 지붕+외벽+창호+기타 | 2 | 2.5 | 83.8 | |
| 16 | 지붕+창호 | 3 | 3.8 | 87.5 | |
| 17 | 지붕+기타 | 1 | 1.3 | 88.8 | |
| 18 | 외벽 | 3 | 3.8 | 92.5 | |
| 19 | 외벽+창호 | 2 | 2.5 | 95.0 | |
| 20 | 창호 | 1 | 1.3 | 96.3 | |
| 21 | 기타 | 3 | 3.8 | 100.0 | |
| | 계 | 80 | 100.0 | | |



그림 68. 부위별 변용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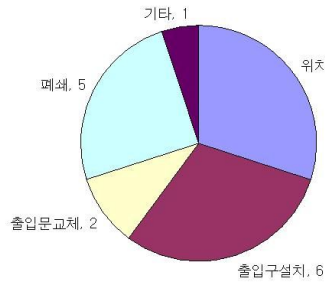


그림 69. 출입구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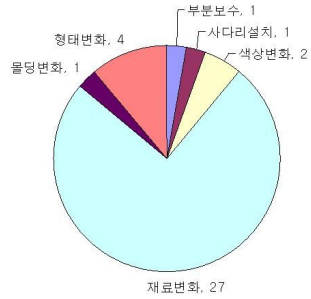


그림 70. 지붕 변용

입면의 부위별 변용에서 출입구는 위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기도 하며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있을 때 1개를 폐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재질과 형태가 다른 문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출입구의 변용에서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조흥은행 대전지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2003년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은 합병되고 나서 2004년 7월 대대적인 변용이 이루어졌다. 이때 북측에 있던 주출입구는 동측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71. 조흥은행 대전지점 주출입구 위치변경

출입구를 설치한 사례는 대전에 있는 舊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을 들 수 있다. 설립당시에

는 정면 가운데에 주출입구가 있고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단의 모습은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 잘 남아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대리석 캐노피가 있었다. 그러나 입면변용이 진행되어 설립당시의 출입구의 형태는 찾을 수가 없고 현재는 정면의 대부분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4개의 출입구중 3개가 사용되고 우측면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다. 1994년 기록화 조사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좌측면의 외여단이문도 폐쇄되었으나 근래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2.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의



그림 73. 현재 정면의 모습

출입구를 폐쇄한 사례로 목포 舊 청년회관을 들 수 있다. 원래 이 건물은 출입구가 3개 있었다. 주출입구는 정면 중앙, 부출입구는 좌측면에 2곳이 있으며 이 중 한곳은 외여단이문이며 상부로는 석재 수평인방이 있다. 우측면에는 중앙에 1개의 출입문에 있었다.



그림 74. 목포 舊 청년회관 우측면 출입구 폐쇄



그림 75. 부출입구 (폐쇄되어있었으나 최근 복원)



그림 76. 목포 舊 청년회관정면 출입구

지붕에서는 재료가 변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의 골함석을 대신하여 함석지붕 또는 현대식 재료인 아스팔트 싱글, 샌드위치 패널, 그라스울 지붕 판넬 등으로 교체하였다.

그 외에 지붕에서는 색상을 변화시키는 소극적인 변용을 비롯해 형태까지도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경우도 나타난다.

재료를 교체한 사례로 전주 중앙동의 舊 박다옥을 들 수 있다. 구 박다옥의 입면은 계단실이 있는 정면 주출입구 부분을 제외하면 외벽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있다. 지붕은 모임지붕의 형태이며 이전에는 슬레이트와 함석지붕이었던 것을 1990년대에 지붕을 수리



그림 77. 지붕의 재료 변용사례1(전주 중앙동 舊 박다옥)



그림 78. 지붕의 재료 변용사례2(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하면서 현재와 같은 골강관으로 모습으로 바꾸었다. 현재로써는 건립당시의 지붕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2번 이상의 재료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붕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소수이며 사례로 여수 애양교회를 들 수 있다. 신축당시 애양교회는 박공지붕 형태의 몸채를 중심으로 좌우에 2층 예배실 출입구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1934년 화재 이후 전면 출입구 부분에 4층 높이의 종탑과 2층 높이의 전실을 설치하여 평면변용과 함께 지붕의 형태도 변하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종탑부에 첨탑을 올려 또 한번 지붕형태가 변하게 되며 지금까지 유지된다. 결국 박공지붕에서 시작하여 평지붕 그리고 첨탑이 부가됨으로서 지붕의 형태가 평면, 입면과 연계하여 변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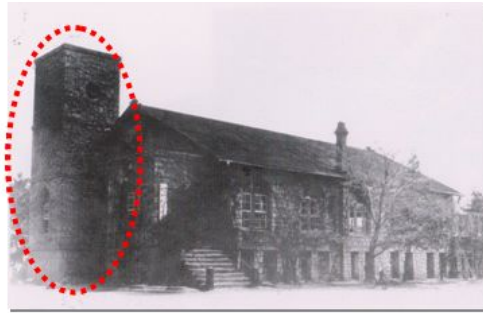
근대건축물의 변용은 용도, 평면, 입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용도변용은 종교시설의 경우 변화가 없었지만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서는 공공시설로 전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실의 구성과 변화에 관한 평면변용에서는 대상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46/80(57.5%))건

그림 79. 지붕의 형태변화 사례(여수 애양교회)



◆신축당시(1928년)



◆증축(1955년)



◆첨탑설치(1960년대 이후)



◆현재(2009년)

축물에서 평면변용이 확인되며 빈도는 증축+조정>증축>조정,분할>분할+통합 순이다.

건축물의 종류별 평면변용에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22개의 건축물 중 6개에서 증축 혹은 분할 등의 평면변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업무시설은 21개중 17개의 건축물에서 평면변용현상이 나타나며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이 6개소를 제외하고 평면의 증축과 조정 그리고 분할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공시설로 변모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입면에서도 창호, 지붕, 외벽, 출입구를 중심으로 많은 변용이 이루어졌으며 색상을 바꾸는 소극적인 경우에서부터 재료를 바꾸거나 형태까지도 변경시키는 등 다양한 입면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변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내적원인과 외적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내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의 내구년한과 소유권자의 상황성으로 생각되고 외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내구년한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는 입면변용의 원인이 되었으며 건립당시에 사용된 재료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타 재료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소유자의 상황성과 외적인 측면의 사회구조 변화는 상호 영향을 주면서 건물의 변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당과 교회건축과 같은 종교건축은 소유권이 교회이며 사회구조가 변하여도 신앙의 장소라는 측면에서 그 용도가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설물은 국가나 법인 등의 소유가 대부분이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다양한 근대 건축물들은 해방이 되고 현대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각각의 시대와 사회환경에 맞게 용도변화가 발생했으며 또한 바뀐 용도와 기능에 맞는 평면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권자인 국가와 법인들은 공적 성격의 전시관, 박물관 등으로 모습을 바꾸어 보존과 활용이라는 견지에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3 修理에 의한 變化

근대건축의 보존관리는 등록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에서 시작되어 설계, 수리의 단계를 거쳐 관리 및 활용 등이 문화재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중 건조물 분야는 주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의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존의 차원을 떠나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절실한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관리 체계를 감안하면 여러 측면에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등록문화재를 비롯한 한국근대건축의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조사, 설계, 수리 및 관리의 절차, 한국근대건축의 수리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5.3.1 修理現況

한국근대건축 중 등록문화재에 대한 수리 및 보수사업은 2009년까지 390억 원의 국가 및 지방 예산이 투입되어 217건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었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 이후 지정문화재와는 별도로 시행된 보수지원금액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등록문화재의 수가 타시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는 전체 지원금액의 과반수를 넘는다. 특히 중요등록문화재의 경우 한해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한국근대건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문화재의 보수부위는 내장개수, 창호개수, 지붕개량, 구조보강, 외벽개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의 개선과 주변 조경의 정비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지정문화재의 보수공사



그림 80. 등록문화재의 지역별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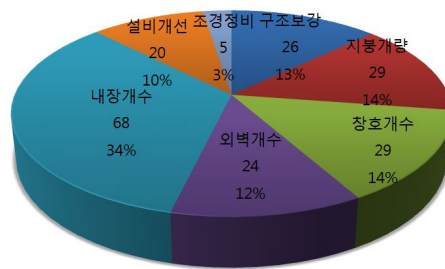


그림 81. 등록문화재의 보수부위

표 52. 지역 및 연도별 등록문화재의 수리현황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합계 |
|----|-----------|-----------|-----------|-----------|-----------|-----------|------------|------------|
| 건수 | 13건 | 9건 | 13건 | 15건 | 50건 | 51건 | 66건 | 217건 |
| 서울 | 700,000 | 600,000 | 300,000 | 200,000 | 320,000 | 330,240 | 1,440,000 | 3,890,240 |
| 부산 | 1,200,000 | 1,200,000 | 1,000,000 | 1,000,000 | 1,500,000 | 768,000 | 340,000 | 7,008,000 |
| 대구 | | | | | 100,000 | 94,080 | 150,000 | 344,080 |
| 광주 | 20,000 | | 40,000 | 12,000 | 200,000 | | 380,000 | 652,000 |
| 대전 | | | | 180,000 | 200,000 | | | 380,000 |
| 울산 | | | | | 100,000 | | 60,000 | 160,000 |
| 인천 | | | | | | | 240,000 | 240,000 |
| 경기 | | | | | | | 30,000 | 30,000 |
| 강원 | 400,000 | | 230,000 | 900,000 | 500,000 | 451,200 | 1,070,000 | 3,551,200 |
| 충북 | 14,000 | 884,000 | 320,000 | 200,000 | 160,000 | 652,800 | 300,000 | 2,530,800 |
| 충남 | 360,000 | | | | 100,000 | 336,000 | 140,000 | 936,000 |
| 전북 | | | | 20,000 | 1,300,000 | 960,000 | 1,720,000 | 4,000,000 |
| 전남 | 330,000 | 225,000 | 142,000 | 220,000 | 1,312,000 | 3,087,360 | 2,558,000 | 7,874,360 |
| 경북 | | | | | 440,000 | 633,600 | 1,198,280 | 2,271,880 |
| 경남 | 300,000 | | 104,000 | 370,000 | 1,340,000 | 1,776,000 | 932,000 | 4,822,000 |
| 제주 | | | | | 500,000 | | 240,000 | 740,000 |
| 합계 | 3,324,000 | 2,909,000 | 2,136,000 | 3,102,000 | 8,072,000 | 9,089,280 | 10,798,280 | 39,430,560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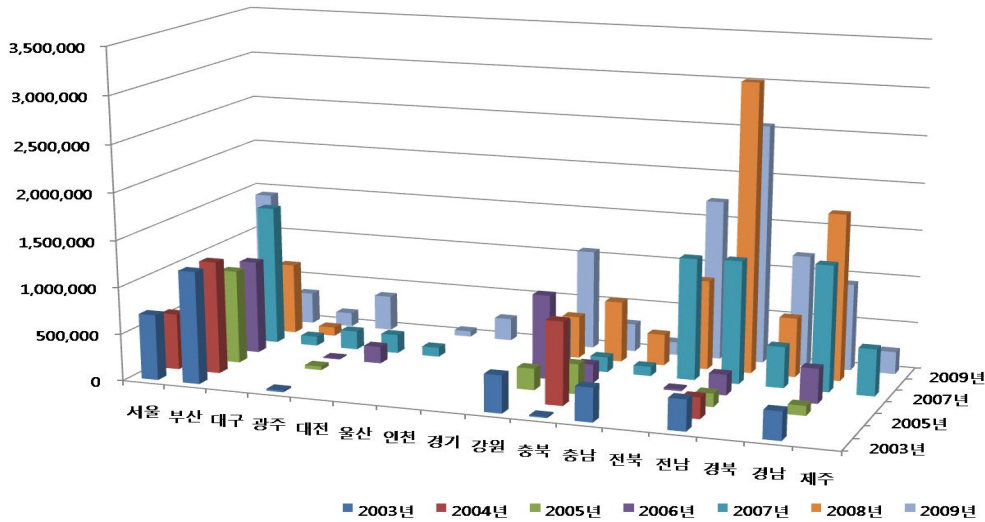


그림 82. 지역별 연도별 등록문화재의 수리현황

에서 주변정비사업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등록문화재의 최근 6년간 수리현황으로 사업내용과 공사금액이 잘 나타나 있다.

표 53. 등록문화재 수리현황 (최근 6년간)

| 연도 | 지정 | 문화재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합계 |
|-------|-------|-------------------|---------|--------------|-------------|
| 2003년 | 2 | 화동구경기고교 | 서울종로 | 본관동 보강공사 | 600,000 |
| | 41 | 정동이화여고심슨기념관 | 서울중구 | 지붕보수 | 100,000 |
| | 41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청사보수 | 1,200,000 |
| | 17 | 광주서석초등학교(본관, 체육관) | 광주동구 | 외벽 도색 | 20,000 |
| | 6 | 내덕동청주상고구본관 | 충북청주 | 흙통 보수 | 4,000 |
| | 9 | 문화동우리에능 | 충북청주 | 지붕도색 | 10,000 |
| | 10 | 강경중앙리구남일당한약방 | 충남논산 | 건물 보수 | 200,000 |
| | 42 | 강경북옥감리교회 | 충남논산 | 지붕보수 | 160,000 |
| | 21 | 태백철암역두선탄시설 | 강원태백 | 시설물보수 및 측량 | 200,000 |
| | 22 | 철원노동당사 | 강원철원 | 안전진단및 보존계획 | 200,000 |
| | 30 |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 전남목포 | 지붕및벽체보수 | 300,000 |
| | 31 | 여수구청년회관 | 전남여수 | 건물 도색 | 30,000 |
| | 35 | 진주문산성당 | 경남진주 | 강당건물연목이상해체보수 | 300,000 |
| | 2004년 | 2 | 화동구경기고교 | 서울종로 | 1~2동 보수보강공사 |
| 41 |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지붕보수공사 | 1,200,000 |
| 8 | | 대한성공회진천성당 | 충북진천 | 성당 이전복원 | 400,000 |
| 55 | | 충북도청본관 | 충북청주 | 벽면 및 지붕보수 | 300,000 |
| 6 | | 내덕동청주상고구본관 | 충북청주 | 지붕보수 | 100,000 |
| 7 | | 옥천삼양리옥천천주교회 | 충북옥천 | 건물균열, 우수관 보수 | 60,000 |
| 58 | | 진천덕산양조장 | 충북진천 | 지붕보수 | 24,000 |
| 34 | | 구나주경찰서 | 전남나주 | 지붕보수 | 180,000 |
| 44 | | 나주노안천주교회 | 전남나주 | 지붕보수 | 45,000 |
| 2005년 | 2 | 화동구경기고교 | 서울종로 | 외벽보수 | 300,000 |
| | 41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건물보수 | 1,000,000 |
| | 17 | 광주서석초등학교(본관, 체육관) | 광주동구 | 지붕,외벽보수 | 40,000 |
| | 21 | 철암역두선탄시설 | 강원태백 | 시설물보수 | 200,000 |
| | 57 | 옥천죽향초등학교구교사 | 충북옥천 | 건물보수 | 90,000 |
| | 7 | 옥천삼양리옥천천주교회 | 충북옥천 | 건물 보수 | 20,000 |
| | 56 | 대한통운제천영업소 | 충북제천 | 지붕및외벽보수 | 100,000 |
| | 58 | 진천덕산양조장 | 충북진천 | 지붕및외벽보수 | 80,000 |
| | 9 | 청주우리에능원 | 충북청주 | 지붕및창호보수 | 30,000 |
| | 44 | 노안천주교회 | 전남나주 | 지붕및구조체보수 | 94,000 |
| | 32 | 여수애양병원 | 전남여수 | 건물보수 | 48,000 |

| 연도 | 지정 | 문화재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합계 |
|-------|-------|-------------------|------------|------------------|-----------|
| 2006년 | 35 | 진주문산성당 | 경남진주 | 벽체및바닥보강 | 104,000 |
| | 89 | 평창동박종화가옥 | 서울종로 | 사랑채, 안채, 행랑채지붕보수 | 200,000 |
| | 41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건물보수 | 1,000,000 |
| | 10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대전중구 | 지붕보수 | 180,000 |
| | 95 | 광주수창초등학교본관 | 광주북구 | 건물도장보수 | 12,000 |
| | 161 | 춘천소양로천주교회 | 강원춘천 | 지붕보수 | 100,000 |
| | 21 | 태백철암역두선탄시설 | 강원태백 | 시설물보수 | 100,000 |
| | 22 | 철원노동당사 | 강원철원 | 노동당사보수 | 300,000 |
| | 65 | 제천염업초생산조합구사옥 | 충북제천 | 지붕및외벽보수 | 200,000 |
| | 172 | 전주신흥고등학교강당및본관포치 | 전북전주 | 강당흡통보수 | 20,000 |
| | 115 | 여수장천교회 | 전남여수 | 창호 및 방수보수 | 50,000 |
| | 122 | 구곡성역 | 전남곡성 | 수화물창고보수 | 120,000 |
| | 147 | 거창경덕재 | 경남거창 | 안채 지붕보수 | 170,000 |
| | 2007년 | 231 | 서울창전동공민왕사당 | 서울마포 | 설계비 |
| 3 | | 정동이화여고심슨기념관 | 서울중구 | 기념관 보수 | 200,000 |
| 41 |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조적및 마무리공사 | 1,500,000 |
| 159 | |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 광주남구 | 벽체균열보수 | 200,000 |
| 10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총청지원 | 대전중구 | 조명공사 | 200,000 |
| 103 | | 울산연양성당본관및사제관 | 울산울주 | 벽체방수 | 100,000 |
| 25 | | 철원농산물검사소 | 강원철원 | 지붕보수 | 160,000 |
| 161 | | 춘천소양로천주교회 | 강원춘천 | 창호및 벽체보수 | 100,000 |
| 108 | | 흥천읍사무소 | 강원흥천 | 지붕 보수 | 100,000 |
| 7 | | 옥천삼양리옥천천주교회 | 충북옥천 | 지붕보수 | 160,000 |
| 64 | | 군산동국사대웅전 | 전북군산 | 기와변와보수 및 소화전보수 | 300,000 |
| | | 군산신흥동구히로쓰가옥 | 전북군시 | 지붕보수 | 180,000 |
| 181 | | 익산구익옥수리조합사무소및창고 | 전북익산 | 사무소 보수 | 80,000 |
| 179 | | 원불교익산성지 | 전북익산 | 대각전보수, 공회당 보수 | 100,000 |
| 211 | | 익산춘포리구일본인농장가옥 | 전북익산 | 가옥보수 | 140,000 |
| 213 | | 정읍진산동영모재 | 전북정읍 | 지붕보수 | 100,000 |
| 214 | | 정읍관청리조재흥가옥 | 전북정읍 | 지붕보수 | 200,000 |
| 71 | | 구소록도갱생원신사 | 전남고흥 | 신사보수 | 50,000 |
| 236 | | 고흥구죽동우편소 | 전남고흥 | 건물보수 | 150,000 |
| 228 | | 곡성단군전 | 전남곡성 | 담장 및 외삼문보수 | 100,000 |
| 44 | | 나주노안천주교회 | 전남나주 | 창호보수 | 22,000 |
| 123 | |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 전남순천 | 건물보수 | 200,000 |
| 32 | | 여수애양교회 | 전남여수 | 지붕보수 | 110,000 |
| 118 | | 함평군월호리282번지가옥및창고 | 전남함평 | 지붕 및 벽체보수 | 140,000 |

| 연도 | 지정 | 문화재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합계 |
|-------|-----|------------------|-------|------------------|---------|
| | 218 | 봉화유곡리김직현가옥 | 경북봉화 | 지붕보수 | 300,000 |
| | 147 | 거창경덕재 | 경남거창 | 대문채보수 | 60,000 |
| | 203 | 거창정장리최남식가옥 | 경남거창 | 가옥보수 | 120,000 |
| | 234 | 남해덕신리하천재 | 경남남해 | 기와보수 | 100,000 |
| | 198 | 구마산헌병분견대 | 경남마산 | 지붕보수 | 140,000 |
| | 148 | 산청금서면민재 호가옥 | 경남산청 | 번와보수 | 140,000 |
| | 193 | 구진해해군통제부병원장사택 | 경남진해 | 사택보수 | 80,000 |
| | 200 | 창원소답동김종영생가 | 경남창원 | 건물보수 | 200,000 |
| | 37 | 함양구임업시험장하동함양지장 | 경남함양 | 건물보수 | 100,000 |
| | 38 | 남제주강병대교회 | 제주서귀포 | 지붕보수 | 100,000 |
| 2008년 | 134 | 동선동권진규아뜰리에 | 서울성북 | 담장및대문해체보수,옹벽,조경 | 34,560 |
| | 268 | 최순우옛집 | 서울성북 | 마루 및 창호보수, 기와고르기 | 13,440 |
| | 84 | 원서동고희동가옥 | 서울종로 | 활용방안 및 보수정비 설계 | 96,000 |
| | 89 | 평창동박종화가옥 | 서울종로 | 연목이상, 번와보수, 수장공사 | 90,240 |
| | 3 | 정동이화여고심슨기념관 | 서울중구 | 일부분 | 96,000 |
| | 41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 부산서구 | 정문 및 담장경계석 | 768,000 |
| | 336 | 삼척하고사리역 | 강원삼척 | 지붕, 벽체 | 67,200 |
| | 22 | 철원노동당사 | 강원철원 | 보호각건립 | 384,000 |
| | 273 | 제천염연초생산조합수납취급소 | 충북제천 | 지붕 | 576,000 |
| | 272 | 홍성고등학교강당 | 충남홍성 | 건물 지붕, 창호, 벽체보수 | 240,000 |
| | 183 | 군산신흥동구히로쓰가옥 | 전북군산 | 외벽보수 | 192,000 |
| | 61 | 김제농업기반공사동진지부죽산지소 | 전북김제 | 지붕보수 | 144,000 |
| | 212 | 정읍영주정사및영양사 | 전북정읍 | 사당 단청 및 벽체보수 | 48,000 |
| | 276 | 정읍나용군생가및사당 | 전북정읍 | 사랑채,사당지붕,담장보수 | 192,000 |
| | 28 | 진안성당어은공소 | 전북진안 | 지붕보수 | 192,000 |
| | 227 | 고흥풍양농협 | 전남고흥 | 지붕보수 | 144,000 |
| | 68 | 구소록도갯생원사무분관및강당 | 전남고흥 | 강당 지붕 및 천정보수 | 192,000 |
| | 70 |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 | 전남고흥 | 창고 보수 | 57,600 |
| | 74 |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교사 | 전남고흥 | 학교 지붕, 벽체보수 | 192,000 |
| | 340 | 구동본원사목포별원 | 전남목포 | 건물보수 | 960,000 |
| | 114 | 목포양동교회 | 전남목포 | 지붕보수 | 67,200 |
| | 30 |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 전남목포 | 지붕 및 천정보수 | 44,160 |
| | 43 | 목포구청년회관 | 전남목포 | 건물보수 | 96,000 |
| | 62 | 목포정명여자중학교구선교사사택 | 전남목포 | 지붕보수 | 76,800 |
| | 132 | 구보성여관 | 전남보성 | 지붕보수 | 288,000 |
| | 119 | 영광법성리구기꾸아여관 | 전남영광 | 건물 지붕 및 벽체보수 | 230,400 |
| | 131 | 장흥기양리48번지가옥 | 전남장흥 | 지붕 및 담장보수 | 153,600 |

| 연도 | 지정 | 문화재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합계 |
|-------|-----|------------------|-------|-----------------|-----------|
| | 117 | 함평천주교회 | 전남함평 | 지붕보수 | 96,000 |
| | 274 | 오지호생가 | 전남화순 | 사랑채 보수 | 144,000 |
| | 290 | 경주구서경사 | 경북경주 | 지붕보수 | 288,000 |
| | 257 | 봉화척곡교회 | 경북봉화 | 명동서숙 지붕 및 담장보수 | 96,000 |
| | 256 | 청도풍각면사무소 | 경북청도 | 지붕 및 벽체보수 | 192,000 |
| | 293 | 청도이호우·이영도생가 | 경북청도 | 안채 보수 | 57,600 |
| | 277 | 거제학동진석중가옥 | 경남거제 | 지붕보수 | 192,000 |
| | 147 | 거창경덕재 | 경남거창 | 안채기단, 대문채 | 134,400 |
| | 234 | 남해덕신리하천재 | 경남남해 | 하천재 기와번와 | 144,000 |
| | 35 | 진주문산성당 | 경남지주 | 지붕 및 마루보수 | 96,000 |
| | 37 | 함양구임업시험장하동함양지장 | 경남함양 | 연목이상 해체보수, 기와번와 | 96,000 |
| 2009년 | 84 | 원서동고회동가옥 | 서울종로 | 안채및사랑채 해체보수 | 400,000 |
| | 3 | 정동이화여고심슨기념관 | 서울중구 | 건물원형복원 등 | 1,000,000 |
| | 246 | 인천선린동공화춘 | 인천중구 | 공화춘 건물 보수 | 240,000 |
| | 330 | 부산정란각 | 부산동구 | 정란각 보수 | 80,000 |
| | 349 | 부산초량동일식가옥 | 부산동구 | 건물 보수 | 260,000 |
| | 15 | 대구동산병원구관 | 대구중구 | 현관(porch)이전 | 50,000 |
| | 94 | 조선대학교본관 | 광주동구 | 중앙5개 박공부분 방수공사 | 200,000 |
| | 17 | 광주서석초등학교 | 광주동구 | 체육관 및 별관외벽 방수 | 100,000 |
| | 95 | 광주수창초등학교 | 광주북구 | 본관 외벽보수 | 80,000 |
| | 103 | 울산연양성당본관및사제관 | 울산울주 | 지붕도색 | 60,000 |
| | 295 | 남양주팔당역 | 경기남양주 | 기와번와 및 창호보수 | 30,000 |
| | 298 | 삼척도경리역 | 강원삼척 | 지붕공사 | 100,000 |
| | 141 | 삼척천주교성내동성당 | 강원삼척 | 벽체 미장 등 보수 | 40,000 |
| | 22 | 철원노동당사 | 강원철원 | 도지매입 및 주변정비 | 800,000 |
| | 166 | 구태백등기소 | 강원태백 | 외벽 및 창문보수 | 100,000 |
| | 371 | 횡성성당 | 강원횡성 | 지붕도색 및 종탑내외부 보수 | 30,000 |
| | 273 | 제천염연초수납취급소 | 충북제천 | 지붕 및 벽체보수 | 300,000 |
| | 321 | 서산동문동성당 | 충남서산 | 종탑 보수 | 40,000 |
| | 325 | 고창조양식당 | 전북고창 | 지붕 보수 | 260,000 |
| | 374 | 구조선은행군산지점 | 전북군산 | 실시설계 | 70,000 |
| | 183 | 군산신흥동구히로쓰가옥 | 전북군산 | 내부수장공사, 대문 및 담장 | 200,000 |
| | 208 | 군산임피역사 | 전북군산 | 지붕해체 및 창호보수 등 | 140,000 |
| | 403 | 김제부거리옹기가마 | 전북김제 | 가마 정비 | 100,000 |
| | 61 | 김제농업기반공사동진지부죽산지소 | 전북김제 | 부속창고 해체 및 보수정비 | 150,000 |
| | 179 | 원불교익산성지 | 전북익산 | 지붕,벽체 등 보수 | 120,000 |

| 연도 | 지정 | 문화재명 | 소재지 | 사업내용 | 합계 |
|----|-----|---------------|------|-------------------|---------|
| | 211 | 익산춘포리구일본인농장가옥 | 전북익산 | 가옥내부 정비 | 40,000 |
| | 188 | 임실오수망루 | 전북임실 | 망루 보수 등 | 60,000 |
| | 214 | 정읍관청리조재흥가옥 | 전북정읍 | 행랑채 및 별채보수 | 260,000 |
| | 66 |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 | 전남고흥 | 검시실 보수 | 70,000 |
| | 222 | 곡성삼기우체국 | 전남곡성 | 지붕보수 등 | 60,000 |
| | 341 | 윤동주유고보존정병옥 가옥 | 전남광양 | 변형가옥 보수 | 80,000 |
| | 121 | 구례구방광초등학교교사 | 전남구례 | 건물 보수 | 300,000 |
| | 30 |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 전남목포 | 건물보수 등 | 140,000 |
| | 29 | 구호남은행목포지점 | 전남목포 | 활용계획 수립, 실시설계 | 60,000 |
| | 43 | 목포구청년회관 | 전남목포 | 건물내부 및 주변정비 | 150,000 |
| | 114 | 목포양동교회 | 전남목포 | 창호 복원공사 | 260,000 |
| | 132 | 구보성여관 | 전남보성 | 건물지붕, 벽체, 창호 등 보수 | 500,000 |
| | 127 | 순천구남장로교회 | 전남순천 | 건물안전진단 실시 | 30,000 |
| | 224 | 순천별량농협창고 | 전남순천 | 외벽도색 | 8,000 |
| | 32 | 여수애양교회 | 전남여수 | 흙통교체보수 | 30,000 |
| | 290 | 장흥에양리8번지 | 전남장흥 | 건물지붕 및 내외부 보수 | 340,000 |
| | 275 | 화순농협동부지점 | 전남화순 | 내외부 벽체보수, 옥외소화전 | 70,000 |
| | 274 | 화순오지호생가 | 전남화순 | 안채 보수 | 60,000 |
| | 290 | 경주구서경사 | 경북경주 | 수리보고서 발간, 문화재안내판 | 160,000 |
| | 291 | 구군위성결교회 | 경북군위 | 지붕 및 벽체보수 | 120,000 |
| | 235 | 울릉도도동리이영관가옥 | 경북울릉 | 건물보수 | 300,000 |
| | 373 | 포항오덕리근대 한옥 | 경북포항 | 사랑채 및 방앗간채 보수 | 300,000 |
| | 356 | 거제초등학교본관 | 경남거제 | 지붕보수 | 80,000 |
| | 234 | 남해덕신리하천재 | 경남남해 | 대문채 보수정비 및 주변정비 | 80,000 |
| | 35 | 진주문산성당 | 경남진주 | 성당 보수 | 73,000 |

5.3.2 修理事例

표 54. 등록문화재 수리 사례

| 지정 | 등록문화재명 | 위치 | 구성방식 | | 수리년도 | 비고 |
|-----|-------------------|------|------|------|------|----|
| | | | 구조 | 재료 | | |
| 33 | 여수애양병원 | 전남여수 | 조적 | 석재 | | |
| 66 |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 | 전남고흥 | 조적 | 벽돌 | | |
| 68 | 구소록도갯생원사무본관및강당 | 전남고흥 | 조적 | 벽돌 | | |
| 70 |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 | 전남고흥 | 조적 | 벽돌 | | |
| 74 |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교사 | 전남고흥 | 가구 | 목재 | | |
| 94 | 조선대학교본관 | 광주동구 | 조적 | 벽돌 | | |
| 115 | 여수장천교회 | 전남여수 | 조적 | 석재 | | |
| 116 | 함평천주교회 | 전남함평 | 조적 | 벽돌 | | |
| 123 |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 전남순천 | 조적 | 석재 | | |
| 159 |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 광주남구 | 조적 | 벽돌 | | |
| 222 | 곡성삼기우체국(구삼기면사무소) | 전남곡성 | 조적 | 벽돌 | | |
| 227 | 고흥풍양농협(구풍양지소금융조합) | 전남고흥 | 조적 | 벽돌 | | |
| 236 | 고흥구녹동우편소 | 전남고흥 | 일체 | 콘크리트 | | |
| 275 | 화순농협동부지점 | 전남화순 | 조적 | 벽돌 | | |

가) 여수애양병원

여수 애양병원은 1999년 역사관으로 수리 보존되어 일반인에게 당시의 의료기구와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본채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유리로 된 방풍식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 보수공사는 부식된 지붕 처마의 마감재를 해체한 후 신재로 교체하였고 지붕의 처마 및 박공부에 지붕흡통을 설치하여 우수 시 빗물의 배출량을 늘렸다. 또한 전면의 깨진 유리는 동일한 재료로 수리하였고 외기에 의해 오염된 유리면의 외부를 청소하였다. 출입구 부분의 천장은 누수 방지를 위하여 외부지붕면에 우레탄 방수처리를 하였다.



여수애양병원 지붕의 처마
출처 : 본인촬영 2009.



여수애양병원 지붕 박공
출처 : 본인촬영 2009.



여수애양병원 출입구
출처 : 본인촬영 2009.

그림 83. 여수애양병원 현황사진

표 55. 여수애양병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 | | | | | 수리재료 |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처마마감재 부식 | 처마흡통 및 선흡통의 설치 | 함석판 | | | | |
| | | | | | | 동판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처마마감재 부식 | 낙수받이돌 설치 | 회강석 | | | | |
| | | | | | |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유리의 파손 | 유리교체 후 청소 | 유리 | | | | |
| | | | | | | 유리 | | | | |
| 벽체부 | 내부 | 천장 | 전체 | 천장누수 | 우레탄 방수 | 우레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형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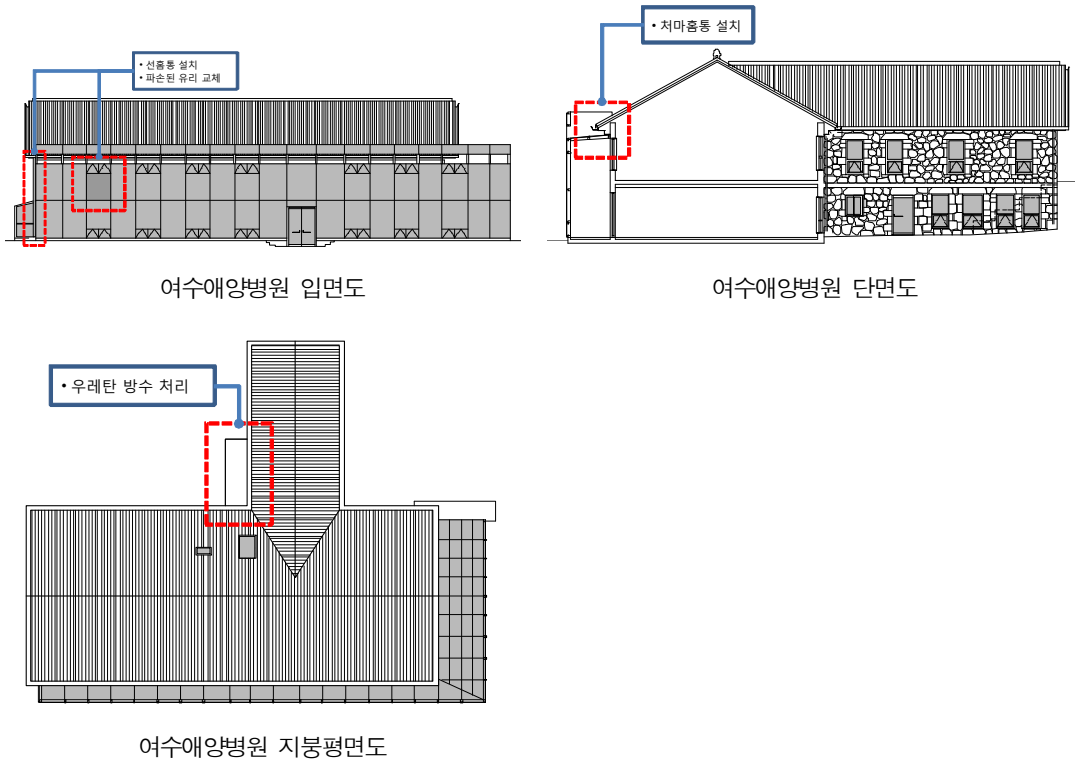


그림 84. 여수애양병원 보수부위

나)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은 배면 지붕의 누수로 인해 처마 서까래가 부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붕 용마루가 일부 탈락되었으며 측면 박공의 철관 몰딩이 부식되었다. 특히 우천 시에 지붕면 사이로 누수가 심하여 내부 목부재의 부식을 일으켜 벽체에 얼룩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붕부의 가구도 노후되어 박공, 처마막이, 서까래, 장선 등의 부식이 심하였고 외부 지붕재 상부에는 개관이 있으나 내부에는 없어 빗물의 침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부벽체는 시멘트 몰탈위 페인트 마감되어 있는데 지붕의 누수로 인하여 도장면이 얼룩져 있고 몰탈면이 균열, 탈락되었다. 외부벽체는 1.0B의 조적벽체로 하부는 우수에 의한 훼손이 심하였고 좌측면 창호하부의 벽체 줄눈 또한 일부 훼손되어 있었다. 천장은 반자틀 위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역시 누수로 인하여 부식되고 일부 파손되었다. 목재의 창과 문은 보존상태가 불량하였고 정면 출입문은 하부 궁판이 파손되어 뒤틀림이 심하고 상하인방은 지붕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외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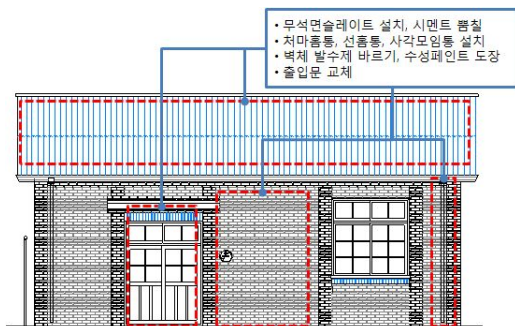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창문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구 소록도갱생원 검시실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그림 85. 구 소록도 갱생원 검시실 현황

누수로 인하여 부식되었으며 배면, 좌측면 창호는 뒤틀림이 심하며 유리창은 일부 탈락되었다. 수리공사의 범위는 노후된 지붕의 교체, 부식된 목부재 및 창호의 보수, 주변의 배수로정비가 실시되었다. 그 중 지붕부의 공사는 석면슬레이트를 해체한 후 서까래와 장선을 80% 교체하고 개판을 설치하였으며 처마막이 또한 80% 교체하였다. 지붕재료로 무석면슬레이트를 설치한 후 슬레이트용 수성페인트를 3회 뽐칠하였고 정면과 배면의 처마홈통, 사각모임통, 선홈통을 설치하였다. 외부의 수장 및 미장공사는 벽돌세척과 발수제 코팅 및 차양면 수성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였고 내부의 경우 페인트긁어내기, 천장합판 철거 후 재설치, 천장 및 벽체 수성페인트 도장, 벽체 및 바닥 시멘트 몰탈 보수 등이 실시되었다. 창호는 원형을 재현하여 교체하였다.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 입면도

그림 86.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 보수부위

다)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

강당의 벽체는 적벽돌 네덜란드식 쌓기로 조적되어 있는데 강당 좌측면에 상층기둥에 하중

표 56. 구 소록도갱생원검시실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노후에 따른 파손 |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무석면슬레이트 설치, 수성페인트 뿜칠 | 석면슬레이트 | | | | 변경 |
| | | | | | | 무석면슬레이트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일부 | 노후에 따른 파손 | 정면,배면 처마흙통, 선홈통 사각모임통 설치 | PVC | | | | 개선 변경 |
| | | | | | | 동판 |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전체 | 누수에 의한 얼룩 | 벽돌면 세척후 발수제 바르기, 수성페인트 도장 | 적벽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원형 |
| | | | | | | 기존재료 | 기존재료 | 수성페인트 | 발수제 | |
| 벽체부 | 내부 | 벽체 | 전체 | 누수에 의한 얼룩 | 페인트긁어내기, 수성페인트도장, 시멘트몰탈보수 | 적벽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원형 |
| | | | | | | 기존재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일부 | 부식 및 탈락 | 창호교체 | 목재창 | 목재문 | | | 원형 재현 |
| | | | | | | 목재창 | 목재문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황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구 소록도갱생원 복도외부 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소록도갱생원 강당배면 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소록도갱생원 강당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그림 87. 구 소록도 갱생원 사무본관 및 강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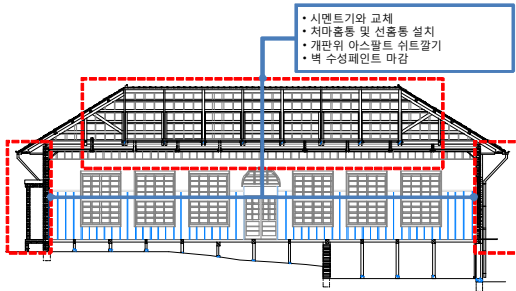
에 의한 벽체의 균열이 발생되었고 외부의 벽체는 하부를 중심으로 오염되어 지의류가 자라고 있었다. 내부는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는 징두리판벽처럼 합판 위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바닥은 장마루위 매트가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의 페인트는 일부 탈락되어 있었다. 목재의 창호는 시간경과로 인한 일부 파손된 곳이 발견되었다. 목조 트러스의 지붕틀은 연목, 처마막이 개관이 부식 파손되어 있었고 처마흙통, 선홈통이 탈락되어 있었다. 지붕의 재료는 시멘트기와로 일부 탈락되어 우수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당으로 진입하는 복도는 역시 적벽돌의 네덜란드식쌓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다. 내벽은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바닥은 테라조, 천장은 합판 위 페인트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페인트는 탈락되어 있었다. 창호, 지붕틀, 지붕은 강당과 같은 보존상태를 보였다.

표 57.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외부충격으로 파손 | 시멘트기와교체 | 시멘트기와 | | | | | 변경 | |
| | | | | | | 시멘트기와 | |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처마흙통탈락 | 처마흙통 및 선흙통설치 | 함석판 | | | | | 개선 변경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일부 | 처마개판 부식및탈락 | 개판위 아스팔트시트깔기 | 목재 | | | | | 원형 재현 | |
| | | | | | | 목재 | 아스팔트시트 |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전체 | 오염및균열 | 벽돌세척 후 발수재바르기 긴결철선보강 | 적벽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원형 | |
| | | | | | | 기존재료 | 기존재료 | 수성페인트 | 긴결철선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일부 | 파손및탈락 | 교체 후 수성페인트 도장 | 목재 | 수성페인트 | | | | 원형 재현 | |
| | | | | | | 목재 | 수성페인트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 단면도

그림 88.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 보수부위

라) 구소록도갱생원식량창고

1939년 소록도 3차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먼저 시작된 공사가 선착장 공사이다. 이듬해인 1940년 선창 바로옆에 당시 환자들에게 운반해 와서 식량을 보관하던 창고로 사용되는 곳에 새롭게 창고가 완성되었다. 식량창고는 바다에 접하고 있어 선박을 정박하고 바로 하역 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효과와 더불어 병사지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는데 시간적 여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식량창고의 지붕은 석면슬레이트로 우측정면의 지붕이 파손되어 누수가 심하고 용마루 슬레이트가 일부 탈락되었다. 창고 상부의 지붕면(석면슬레이트)의 파손으로 인해 개관이 드러나 있고 일부는 탈락되어 있다. 개관사이로 우수가 인입되어 개관주변 목부재가 부식되었고,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외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기둥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그림 89. 구 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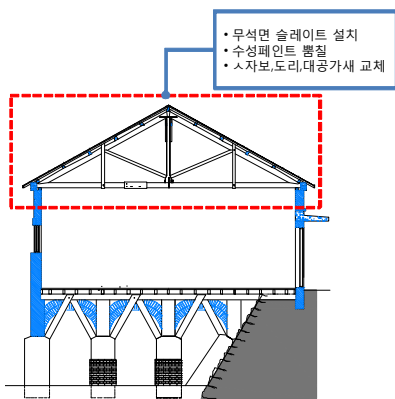
우수 인입에 의해 바닥 장마루 장선 등 주변 부재에 피해를 입었다.

내부 시멘트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되어 실리콘 및 시멘트 모르타르를 보수한 흔적이 있다. 내부벽체 하부는 일부 시멘트 모르타르가 탈락되어 내부 조적벽이 드러나 있었다. 벽돌 외부는 일부 훼손되어 있고 시멘트 몰탈 보수한 흔적이 있었다. 창고 상부의 지붕면(석면슬레이트)파손으로 인해 우수가 인입되어 창고 내부 장마루는 부식되어 있고 주변 부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호의 유리창은 탈락되어 있고 창틀은 부식에 의해 이완되어 있었다. 창틀 및 울거미는 페인트가 훼손, 탈락되어 있고 방충망 일부는 찢겨져 있었다.

표 58.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노후에 따른 파손 |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무석면슬레이트 시공, 수성페인트 뿜칠 | 석면슬레이트 무석면슬레이트 | 수성페인트 | | | 변경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일부 | 우수인입에 따른 목부재 부식 | 서까래, 개판, 보, 사자보, 달대공, 빗대공, 밀둥잡이, 도리 교체 | 목재 | 목재 | | | 원형재현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황재료재현 |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 단면도

그림 90.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 보수부위

마)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보수사업

성실중고등성경학교의 지붕은 좌우측면 지붕면이 파손되고 용마루 일부가 탈락되어 누수가 심하였다. 처마홈통 또한 부식되고 일부 유실되었다. 천장가구는 목구조, ‘사’자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측면부의 처마도리는 부식되어있고 파손되어 개판 및 지붕면 박공이 탈락되어 있었다. 서까래, 개판, 처마막이가 전반적으로 부식되었다. 내부 벽체의 재질은 외벽고 회벽바르기로 벽체가 노후되어 파손이 심하며 특히 정면벽체의 훼손이 심각하였다. 현관좌우측 회벽 및 비닐판벽이 탈락 훼손되었다. 외부는 비닐판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과 측면의 부식이 심하다. 특히 쭈때가 부식되었고 바닥면쪽 쭈때가 심하게 부식되어 일부 파손되었다.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정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좌측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그림 91.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 현황

벽체 하부도 부식이 심하고 변형되어 일부 탈락되고 들떠 있었다. 천장은 반자를 마감으로 현재는 누수로 인하여 천정합판이 부식되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다. 장마루로 구성된 바닥 역시

표 59.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 | | | | | 수리재료 |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일부 | 노후에 따른 파손 |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무석면슬레이트 설치, 수성페인트 뿜칠, 아스팔트시트방수, | 석면슬레이트 | | | | |
| | | | | | | 무석면슬레이트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노후에 따른 파손 | 처마흙통 및 선흙통 설치 | PVC | | | | |
| | | | | | | 동판 | | | |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일부 | 우수인입에 의한 부식, 파손 | 도리, 박공, 서까래, 개판, 반지들, 달대, 달대받이 교체 | 목재 | | | | |
| | | | | | | 목재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기둥 | 일부 | 노후 및 누수에 의한 부식 | 기둥교체 | 목재 | | | | |
| | | | | | | 목재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전체 | 노후 및 누수에 의한 파손 | 외벽고회바르기 | 대나무 | 짚 | 흙 | 강회 | |
| | | | | | | 대나무 | 짚 | 흙 | 강회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일부 | 노후 및 누수에 의한 파손 | 비늘판, 짚대,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교체 | 목재 | | | | |
| | | | | | | 목재 | 프라이머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노후 및 누수에 의한 파손 | 창호교체 | 목재 | | | | |
| | | | | | | 목재 |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황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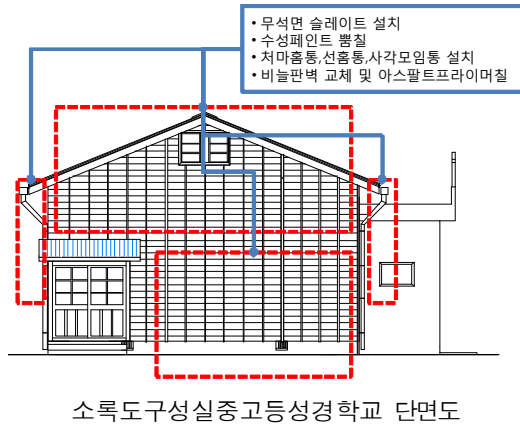


그림 92. 소록도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보수부위

누수에 의하여 부식 및 변형 되어있고 마루바닥의 마감재가 들떠있는 상태이다. 목재 재질의 창호는 부식되어 뒤틀림이 심하고 일부창호는 탈락되어 합판으로 막혀있다. 유리는 탈락되거나 파손되어 있고 유리하부는 일부 도색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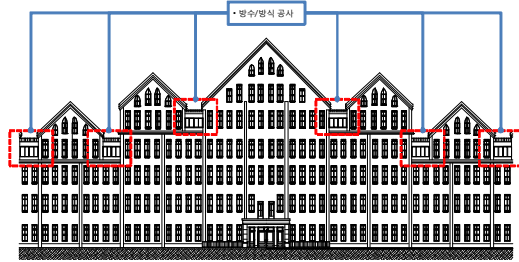
바) 조선대학교본관

조선대학교 본관의 지붕은 철골트러스구조에 골슬레이트잇기로 마감되어 있으나 초기에는 박공의 사면에 스페니쉬기와 잇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박공지붕을 연결하는 평지붕은 골강판으로 마감되어 있다. 벽체는 소성 적벽돌을 조적식으로 쌓아올리면서 내부에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벽돌쌓기법은 영국식쌓기, 네덜란드식쌓기, 이를 응용한 변형쌓기법으로 되어있으며 벽체 위로 수성페인트마감을 하였다. 내부벽체의 표면에는 누수의 흔적이 보인다. 기둥은 벽체와 연결되어 부축벽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크기는 1150mm×960mm이다. 모든 창들은 본관 신축 당시 목재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샷시창으로 모두 교체되어 있다. 지붕면에서 벽체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창틀사이로 투입하여 내부벽체의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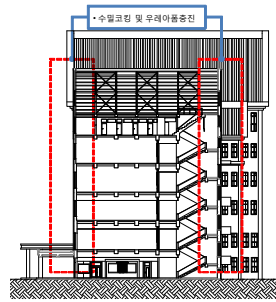
표 60. 조선대학교본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일부 | 지붕누수 | 평지붕방수공사 | 골강판 | | | | |
| | | | | | | 기존재료 | 방수제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전체 | 적벽돌보호 | 적벽돌 크리닝 후 방수도장 | 적벽돌 | 수성페인트 | | | |
| | | | | | | 기존재료 | 수성페인트 | 플리우레아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창틀고정재 탈락 | 창틀주변 코킹충진 | 알루미늄 | 플라스틱 | | | |
| | | | | | | 기존재료 | 기존재료 | 폴리우레탄계 | 우레아폼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벽체누수 | 벽체복구 | 적벽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 | | | | | 기존재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도장면 들뜸 | 수성페인트미감 | 적벽돌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 | | | | | 기존재료 | 기존재료 | 수성페인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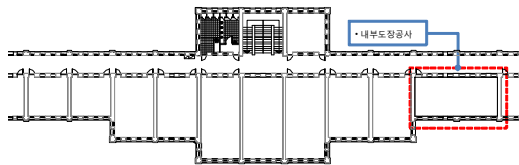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원형추정 | | 변경추정 | | 원형재현 | | 현황재료재현 | |



조선대학교본관 입면도



조선대학교본관 단면도



조선대학교본관 평면도

그림 93. 조선대학교본관 보수부위

사) 여수장천교회

여수 장천교회의 보수공사는 지붕틀 및 슬레이트 철거 후 동판을 설치하였고 목재처마를 보수하고 정면 캐노피도 보수하였으며 물받이 및 흠통을 교체하였다.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맞배지붕에 대한 동판잇기는 골합석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종탑부는 평잇기로 시공하였는데 동판잇기 시 지붕골이 충분히 겹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슈트방수를 시공하였다. 2층 지붕합판 T=24mm 설치, 2층 지붕틀 30% 교체(30×30)하였다. 지붕공사에 따른 내부 반자틀 해체 후 재설치 및 천정지로 마감하였다. 지붕틀 교체는 지붕을 해체하여 부식재를 확인후 교체하도록 하였다. 동판처마흠통 설치(Ø135 반원), 동판선흠통설치(Ø100), 정면 캐노피 부분 교체·보수(2개소), 창호교체, 전면 종탑부 하부창호 1개소, 목조 창틀 조합페인트 3회, 교체 목부재 조합페인트 3회 등을 실시하였다.



여수 장천교회 우측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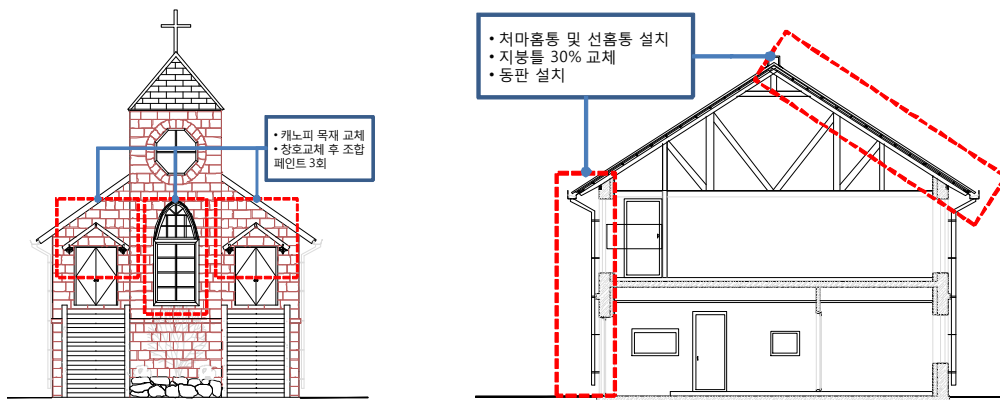


여수 장천교회 지붕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여수 장천교회 정면캐노피 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그림 94. 여수 장천교회 현황



여수장천교회 입면도

여수장천교회 단면도

그림 95. 여수장천교회 보수부위

표 61. 여수장천교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슬레이트 노후 | 석면슬레이트 철거 후 동판설치 | 석면슬레이트 | | | | 개선 변경 |
| | | | | | | 동판 | 시트 | 내수합판 | |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일부 | 지붕틀 노후 | 지붕틀 일부교체 | 목재 | | | | 원형 |
| | | | | | | 목재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처마미감재 부식 | 처마흡통 및 선흡통 설치 | 함석판 | | | | 개선 변경 |
| | | | | | | 동판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캐노피목재 부식 | 캐노피목재 교체 | 목재 | 유성페인트 | | | 원형 |
| | | | | | | 목재 | 유성페인트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일부 | 종탑하부 목재창호 부식 | 종탑하부목재창호 교체 후 유성페인트 | 목재 | 유성페인트 | | | 원형 |
| | | | | | | 목재 | 유성페인트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원형추정 |  | 변경추정 |  | 원형재현 |  | 현황재료재현 |  |

아) 함평천주교회 보수공사

함평천주교회 1층 내부는 각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 내부는 칸박이벽 없이 좌, 우 대칭인 평면으로 외벽으로만 구성되어있다. 몸체 부분의 벽돌 규격으로 보아 근대 및 일제강점기의 양식 조적조에 사용된 벽돌크기와 거의 비슷하여 건축연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벽돌 규격에 따른 부분별 벽체 두께를 예상해보면 부분별 건축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1.0B쌓기를 하였으며 쌓기 방법은 길이켜와 마구리켜를 번갈아 쌓는 것으로 보아 영식쌓기라고 할 수 있다. 벽체의 줄눈상태로 보아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벽체를 그라인딩 한 후 벽체에 페인트칠을 한 흔적이 보인다. 벽체 균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듯 보인다.

창호 종류는 매우 적으며, 재료에 따라 목재와 알루미늄스틸 창으로 나눌 수 있다. 특징은 동, 서측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 각 측면에는 서로 동일한 형태의 창과 문이 같은 높이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고 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알루미늄스틸의 기성품들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이미지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함평천주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창호는 그 교

체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립당시에는 서양식 목재오르내리창에서 알루미늄스틸 창호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표 62. 함평천주교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지붕재노후 | 슬레이트 철거 후 동판설치 | 석면슬레이트 | | | | | |
| | | | | | | 동판 | 시트 | 내수합판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줄눈의 파손 | 줄눈 보수 | 시멘트몰탈 | | | | | |
| | | | | | | 시멘트몰탈 | | | | | |
| 벽체부 | 외부 | 필로티 | 전체 | 원형복원 | 철근콘크리트공사후 화강석붙임 | 철근콘크리트 | 벽돌/화강석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원형추정 | | 변경추정 | | 원형재현 | | 현황재료재현 | |

지붕의 구조는 목조트러스로 구성되며 왕대공 지붕틀로 되어있다. 왕대공 상부의 접합은 왕대공과 ‘人’자보와 맞춤을 하고 좌우로 달대공이 맞춤되어 있어 삼각형태를 이루며 상호 보완하는 구조이다. 천정바닥은 목조 반자틀로 이루어져 있고 합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구조체를 이루는 목부재의 부식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듯 보인다. 지붕마감은 옛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석면슬레이트로 되어있다. 지붕은 30°에 가까운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처마선을 따라 동판 처마홈통이 있고 합각부에는 동판후레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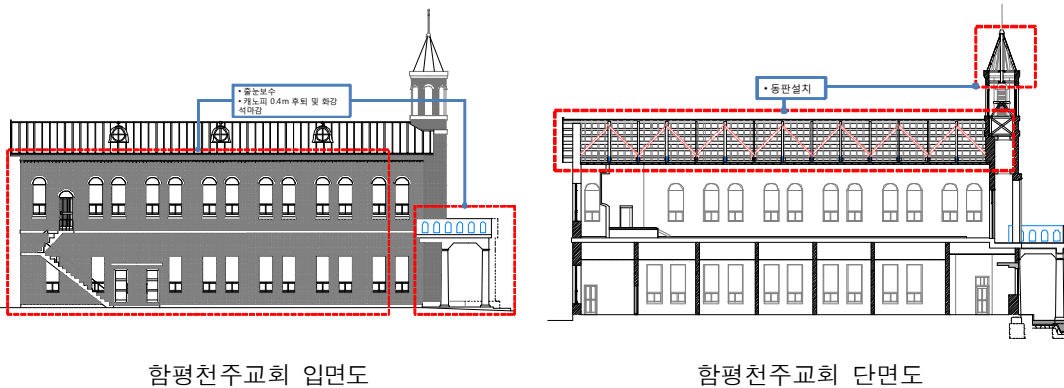


그림 96. 함평천주교회 보수부위

종탑부는 탑신, 종실, 첨탑 등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 층일 경우 정면 및 좌,우측 모두 같은 비례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2층에 설치되어진 종탑부는 전체적으로 수직적 효과를 주고 있다. 탑신부는 반원아치의 출입구가 있어 개방감을 주고 종실은 8개의 반원아치형태의 알루미늄 그릴로 된 창호가 있다. 이는 타종시 멀리까지 소리의 전달을 위한 것과 환기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첨탑부분은 각 꼭지점에서 높이 100mm,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서 8각형의 삼각뿔형태를 이루며 지붕의 마감은 동판잇기를 하였다.

자)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순천 매산관은 준공 후 77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데 내부 벽체와 외부 석재에서 균열과 부분 침하, 지붕 골조 파손 및 처짐이 발생되었고, 2층 교실 바닥 처짐에 따른 기둥 보강, 지붕에서 누수 흔적이 나타났다. 교실 지붕 트러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이나 일부 부재의 목재 갈라짐 및 파손, 용이 부위에 대해서는 목재 및 철관 덧댐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자도서관 지붕 트러스 하현재의 경우 천창주변 ‘ㄱ’자보가 파손되어 처짐이 발생되었고, 트러스의 하현재에서도 처짐이 발생한 상태로서 이는 일시적인 과도한 설하중이 천창주변에 적재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트러스 하현재하부에 철골 형강기둥으로 보강하고 천창주변의 파손된 ‘ㄱ’자보를 철관으로 덧댐 보강조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순천매산관 전경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순천매산관 지붕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순천매산관 우측면 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그림 97. 순천 매산관 현황

2층 교실 바닥 골조의 경우, 2학년 5반과 7반의 천장 명에는 철골형강으로 중앙에 1개만 배치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4반의 천장 명에는 각형목재와 원형목재로 중앙에 2개가 배치된 상태로서 각형목재 명에서 허용전단력을 초과하여 구조적

문제점이 내포된 상태이지만 해당 명에의 하부에 원형강관으로 기 보강된 상태를 고려할 때 작용 전단력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의 진동은 명에 및 장선의 구조와는 별도로 바닥 목재 마루 및 합판에 의해 다소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구조물은 바닥 및 지붕 골조가 목조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목재의 부후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전기선이 노후화된 상태로 천장 속에 노출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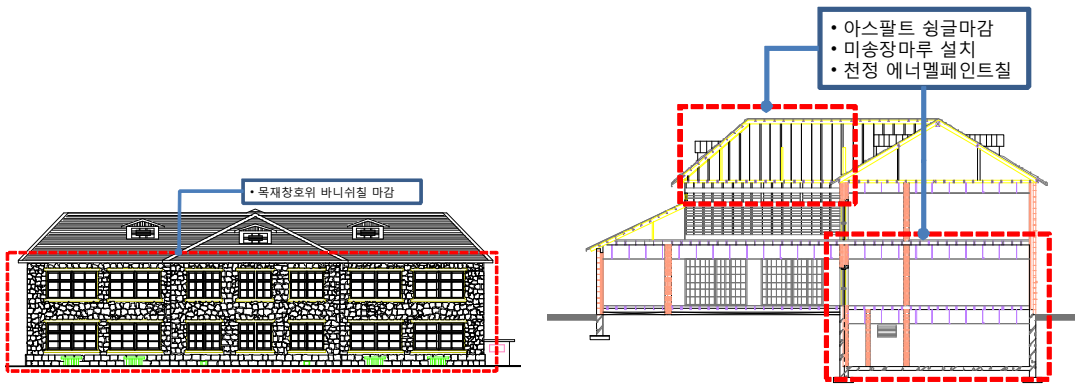
표 63.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일부 | 목재부식 및 파손 | 강관트러스설치 및 강판보강 | 목재 | | | | |
| | | | | | | 강관 | 강판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지붕누수 | 목조지붕틀 위 아스팔트싱글마감 | 목재 | | | | |
| | | | | | | 기존재료 | 아스팔트싱글 | | | |
| 벽체부 | 내부 | 기둥 | 일부 | 비단처짐 | 기둥철거 후 재설치 | 목재 | | | | |
| | | | | | | 목재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노후에 따른 복원 필요 | 기존 목재창호 위 바니쉬칠 마감 | 목재 | 유성페인트 | | | |
| | | | | | | 기존재료 | 바니쉬 | | | |
| 벽체부 | 내부 | 천장 | 전체 | 누수에 의한 화재 위험 | 천장 배선정리 및 유성페인트 도장 | 합판 | 유성페인트 | | | |
| | | | | | | 합판 | 유성페인트 | | | |
| 바닥부 | 내부 | 바닥 | 전체 | 진동현상 및 누수현상 | 기존 장마루철거 후 내수합판 설치 후 미송장 마루널 설치 | 장마루 | | | | |
| | | | | | | 내수합판 | 미송장마루널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형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보수내용은 1, 2층 정면 교실 및 복도 내부 수장재를 교체하였다. 바닥은 통행시 울렁거림과 진동현상 및 일부 누수현상이 있는 기존 장마루를 철거하고 기존 바닥틀위에 내수합판(12T) 설치후 미송장마루널(12T)을 깔았다. 벽은 복도와 교실사이 합판벽에 기존과 같이 에나멜페인트칠을 하고 몰탈벽위에는 기존과 같이 수성페인트를 마감하였다. 천장은 기존 천정을 철거후 배선정리 및 기존과 같은 합판천정재위에 에나멜페인트칠 마감을 하였다. 창호는

기존 목재창호위에 바니쉬칠로 마감하였다. 구조보강으로 1층 기둥 4개소 철거후 1층 천정 장선보강하였다. 이 사항은 기둥 철거여부 및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공사시행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였다. 목조지붕틀 보수는 10곳에 대하여 시행하였는데 현재 목조지붕틀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곳으로 지붕창을 중심으로 누수에 의한 목재부식 및 파손현상이 발견되고 있어 지붕창 6개소 및 경사재지붕틀 4개소를 보수·보강하였다. 목조 지붕틀 보수시 보강하고자 하는 부재하부에 강관 트러스를 제작 설치하고 누수 및 파손목부재 부위에 강관(4.5T)을 길이 1500mm이상 대고, 그 하부에 구조용 강관을 대어 보수하였다. 창호외부 인방재 균열 및 부식철근단면 복구, 외벽 줄눈몰탈 균열부위 보수하였고 전기배선이 노출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선을 정리하였다.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입면도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단면도

그림 98.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 보수부위

차)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외국인 선교사가 배유지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건축물로 192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5년 완공된 건물로서 층수는 지상1층, 2층으로 본래 전라도 선교의 개척가 유진벨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며 구조적 의장적인 훼손이 심한 커티스메모리얼홀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보수하고 자문회의를 통하여 수리공사방향을 결정하며 벽체 균열부 관련 공사 시 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하였다.



수피아여고 커티스 메모리얼홀 정면 출처 : 본인촬영 2007.

수피아여고 커티스 메모리얼홀 좌측면 출처 : 본인촬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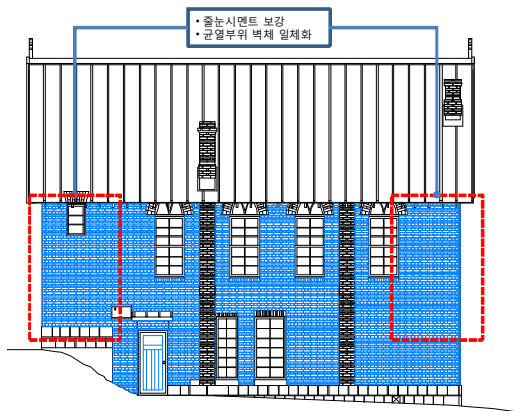
수피아여고 커티스 메모리얼홀 내부 출처 : 본인촬영 2007.

그림 99.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커티스 메모리얼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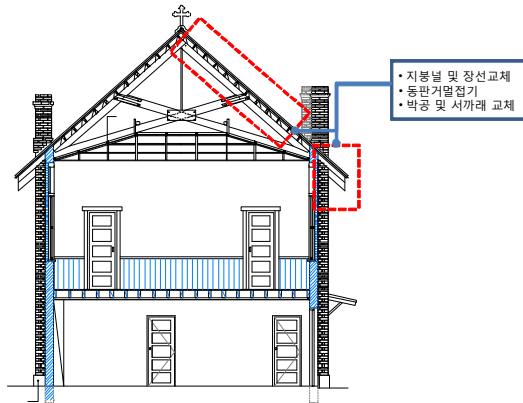
표 64. 광주수피아여자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목부재 부식 | 노후된 서까래 교체 | 목재 | | | | | |
| | | | | | | 목재 | | | | |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전체 | 목부재 부식 | 지붕널, 장선, 박공 교체 | 목재 | | | | | |
| | | | | | | 목재 | |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노후에 따른 수리필요 | 기존 지붕슬레이트 철거 후 동판거덜접기 | 석면슬레이트 | | | | | |
| | | | | | | 동판 | 시트 | 내수합판 | | | |
| 벽체부 | 내부 | 기둥 보 | 일부 | 구조보강 | 보강을 위한 H형강기둥, 보, 베이스플레이트 | 철골 | | | | | |
| | | | | | | 회색벽돌 | 시멘트몰탈 |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노후에 따른 복원 | 긴결철선으로 균열부위 벽체일체화, 줄눈 시멘트몰탈 보강 | 기존재료 | 시멘트몰탈 | 철물 | 발수제 | | |
| | | | | | | 목재 | | | | | |
| 바닥부 | 내부 | 바닥 | 일부 | 2층 마루널 노후에 따른 부식 | 장마루 및 멩에 교체 | 목재 | | | | | |
| | | | | | | 목재 | | | | | |
| 기초부 | 내부 외부 | 지반 | 일부 | 전체적인 부동침하 | 시멘트밀크그라우팅 | 시멘트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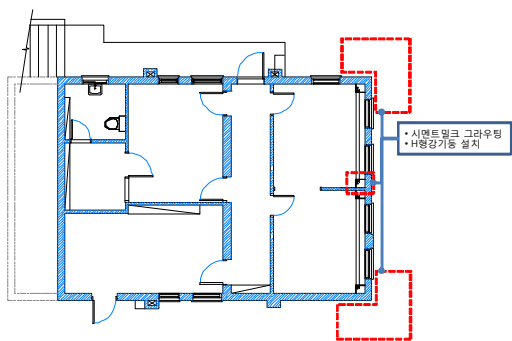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원형추정 | | 변경추정 | | 원형재현 | | 현황재료재현 | |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입면도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단면도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평면도

그림 100. 광주구수피아여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 보수부위

카) 곡성삼기우체국 보수

곡성 삼기우체국의 지붕 상태는 시멘트기와 잇기가 일부 변형되어 우수 시에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었으며 내부로 유입된 우수는 지붕구조의 부식을 일으키고 누전의 위험이 커진다. 처마부에 선홈통은 PVC재질로 되어 있으며 우측면 선홈통은 일부 파손되어 있다. 처마홈통 및 선홈통은 노후되어 처마홈통과 선홈통간 조립이 밀실하지 못하여 우수 시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우측편 추너부의 개관은 부식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로 인해 기와잇기에 쓰였던 회반죽 및 보토가 천정판위에 쌓이고 실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천장은 지붕 누수로 인해 천정이 부식되어 있고 누수로 인한 누전의 위험도 상존하였다. 암면텍스판은 일부가 뒤틀려 있으며 탈락의 위험이 있었다.



곡성삼기우체국 정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곡성삼기우체국 지붕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곡성삼기우체국 배면 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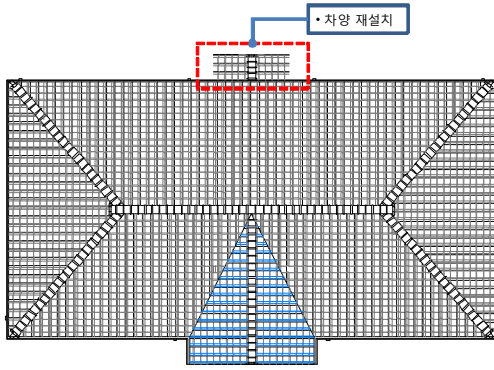
그림 101. 곡성삼기우체국 현황

벽체는 정면과 측면은 블록벽 쌓기 되어 있고 배면은 각재위에 합판을 덧대어 페인트 뽀칠 마감 하였다. 배면의 차양은 소실되었고 소실된 차양사이로 내부의 각재 및 합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였다. 알루미늄 재질의 창은 목조틀 위에 코킹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목재창 이었던 것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며, 방범창 또한 우체국의 도난방지를 위해 나중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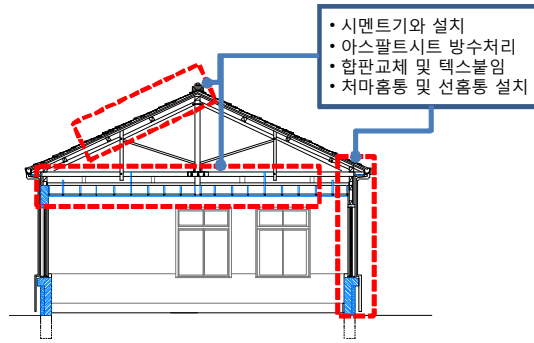
표 65. 곡성삼기우체국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 | | | | | 수리재료 |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전체 | 처마미감재의 부식 | 처마흡통 및 선흡통의 설치 | PVC | | | | |
| | | | | | | 동판 |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일부 | 개판의 부식 | 아스팔트시트 방수 | 아스팔트시트 | | | | |
| | | | | | | |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일부 | 기와잇기의 변형 | 시멘트기와 교체 | 시멘트기와 | | | | |
| | | | | | | 시멘트기와 | 수성페인트 | | | |
| 벽체부 | 내부 | 천장 | 전체 | 천장누수 | 합판교체, 텍스붙임 | 합판 | 암면텍스 | | | |
| | | | | | | 합판 | 암면텍스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차양탈락 | 배면차양 복원 | 목재 | 시트 | 시멘트기와 | | |
| | | | | | | |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황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곡성삼기우체국 지붕평면도



곡성삼기우체국 단면도

그림 102. 곡성삼기우체국 보수부위

타) 구 풍양금융조합

구 풍양금융조합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축되어진 듯하다. 구조는 조적조 벽체와 목조트러스의 합석지붕으로 되어 있다.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벽체의 균열이 진행되었고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면 창호 상인방 일부가 탈락되었다. 지붕은 합석을 이어 그 위 페인트칠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었다. 벽체 역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전반적으로 균열이 진행되었고 특히 배면 오른쪽 벽체와 좌측 오른쪽 벽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일직선을 그리며 균열이 생겼으며 왼쪽 출입문 상부로 잔 균열이 진행되었다. 벽체 외부표면에는 분홍색, 내부표면에는 백색의 페인트가 마감되어 있으나 표면미장 탈락이 심하였다.



구 풍양금융조합 정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풍양금융조합 좌측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구 풍양금융조합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8.

그림 103. 구 풍양금융조합 현황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합석 위 파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다. 처마내밀기가 짧아 우수의 대책마련으로 처마 끝에는 홈통이 달려있으나 부식이 심하였다. 내부 구조는 상부 슬래브 위

에 목조 트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부재의 부식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듯 보인다.

주출입구 문은 유리문으로 되어있으며 배면 문은 2개소로 플라스틱 문으로 되어 있었다. 창호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나 사진에서 확인되듯 현 창호는 변형되어진 것이므로 판단 된다. 본 건물은 좌측에는 농협으로 우측에는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면부에는 금고영역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천정부의 모서리부분에 파손이 심하였다.

표 66. 구풍양금용조합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지붕부 | 내부 | 지붕 | 일부 | 지붕틀의 노후 | 지붕틀 교체 | 목재 | | | | |
| | | | | | | 목재 |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지붕미감재의 노후 | 기와 및 슬레이트 철거 후 동판 설치 | 석면슬레이트 | 시멘트기와 | | | |
| | | | | | | 동판 | 시트 | 내수합판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일부 | 콘크리트벽체의 균열 | 콘크리트벽체 균열부위 에폭시 충전 | 콘크리트 | | | | |
| | | | | | | 기존재료 | 에폭시 | | | |
| 벽체부 | 외부 | 벽체 | 일부 | 콘크리트의 탈락 | 콘크리트 탈락부위 모르타르 시춤 | 콘크리트 | | | | |
| | | | | | | 기존재료 | 시멘트몰탈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전체 | 벽체표면의 탈락 | 수성페인트 도장 | 수성페인트 | | | | |
| | | | | | | 수성페인트 |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원형의 창으로 복원 | 원형을 추정하여 목재창으로 교체 | 알루미늄 | | | | |
| | | | | | | 목재 | | | | |
| 기초부 | 내부 외부 | 지반 | 일부 | 배면의 부동침하 | 시멘트밀크그라우팅 시공 | | | | | |
| | | | | | | 시멘트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황재료재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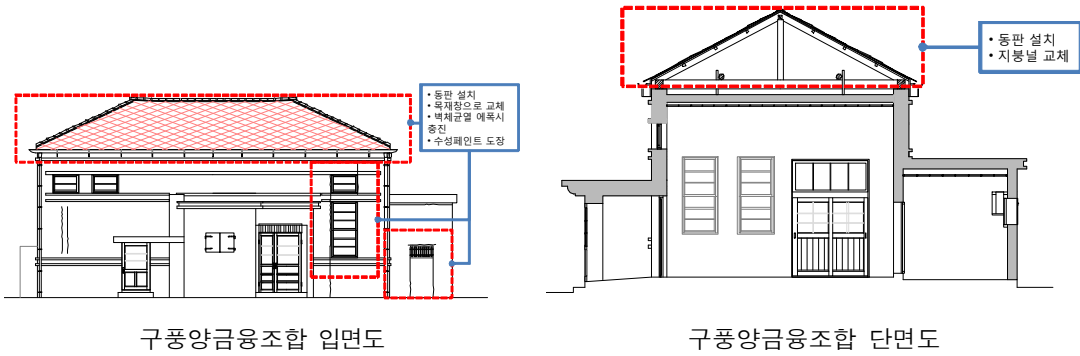


그림 104. 구풍양금용조합 보수부위

파) 구녹동우편소 보수정비공사

녹동우편소 건물은 부정형으로 북측에 덧댄 칸이 있으며 본채와 덧댄 칸이 한 지붕아래 구성되어 있다. 기초부는 줄기초 형태이며 줄기초 상부에 벽체를 구성하고 일부 목재판벽을 덧댄구간도 보인다. 줄기초 상부에 기둥을 설치하고 목가구를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로 짜여 있다. 대부분의 벽체는 외벽은 벽과 벽돌벽 및 기존벽체에 목재판벽을 덧댄 형태인데 내부 벽체는 방을 구획하기 위하여 일부 합판벽을 덧댄 부분도 있다. 동북측면과 북서측



구 고흥녹동우편소 전경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구 고흥녹동우편소 내부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구 고흥녹동우편소 정면현황
출처 : 본인촬영 2007.

그림 105. 구 고흥녹동우편소 현황

면의 일부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미송장마루 깔기로 되어 있다. 실의 구성을 보면 연탄보일러를 설치한 부엌이 동측과 북측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당초에 우편업무를 위한 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부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편업무를 위한 공간은 남측 정문으로 들어서는 공간으로 추정된다. 북측 덧댄 칸은 주거를 위한 부속건물로서 본채와 한 지붕아래에 있으며 실의 구성은 방과 세면장, 화장실로

표 67. 구녹동우편소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노후부분의 보수 | 슬레이트와 함석 철거 후 동판 평잇기 | 석면슬레이트 | 함석판 | | | |
| | | | | | | 동판 | 시트 | 내수합판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창호 | 전체 | 창호의 노후 | 기존의 창호 형태로 교체 | 알루미늄 | 목재 | | | |
| | | | | | | 알루미늄 | 목재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전체 | 노후부분의 보수 | 외역고 회바르기 시멘트벽돌벽체 보수 목재판벽 보수 | 시멘트벽돌 | 목재판벽 | | | |
| | | | | | | 대나무/짚 | 흙/강회 | 목재판벽 | 시멘트벽돌 | |
| 바닥부 | 내부 | 바닥 | 전체 | 주거공간의 확보 | 전기히팅판넬 위 장판지 마감 | 시멘트몰탈 | 장판지 | | | |
| | | | | | | 전기히팅판넬 | 장판지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 |
|----|------|------|------|------|--|------|--|--------|--|
| | | 원형추정 | | 변경추정 | | 원형재현 | | 현황재료재현 | |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거를 위한 북측마당에는 장독대와 우물이 위치하고 있다. 입면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벽체와 창호, 지붕이 있는데 벽체마감은 회벽과 시멘트 몰탈, 시멘트몰탈이 뽀칠로 되어 있으며, 창호는 나무유리창이 대부분이며 동측 부출입구는 목재살문으로 되어 있다. 창호는 동측창호 상부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덧댄창이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슬레이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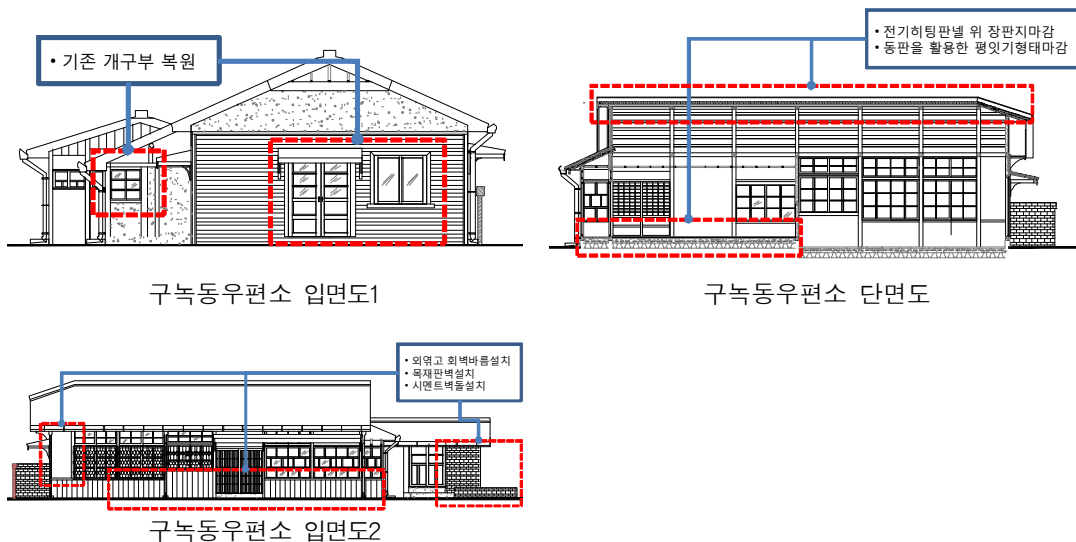


그림 106. 구녹동우편소 보수부위

주재료이며, 일부 차양형식으로 덧댄부분에 석면타일과 함석을 사용한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형태에 따라 꺾인 지붕이며 남측 주출입구의 지붕면은 사다리꼴 형태의 박공면을 형성하고 있어 특이하다. 주변은 본체의 동측과 남측으로 낮은 벽돌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같은 부지내에 블록조의 창고가 2동 위치하고 있다.

하) 화순농협동부지점 보수공사

화순농협동부지점의 내부벽체는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 우진각지붕으로 구성된 본체 벽체의 상태는 1967년 지붕보수 후 대체로 양호해 진 것으로 판단되나 배면의 증축부에서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증축부 외부의 지붕 상부에는 본체와 같이 지붕의 테두리를 두른 처마홈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임시의 처마홈통만 설치되어 바람이 동반된 호우 시에 지붕 하부를 타고 내부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빗물이 유입된 곳은 내부의 수성페인트가 습기에 의해 부풀어 올라 들떠 있는 상태이다. 외부벽체는 백색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나 도색 후 시간이 경과

표 68. 화순농협동부지점의 수리에 따른 재료선택과 변경여부

| 부위 | | | | 수리원인 | 수리내용 | 원형재료 | | | | 원형 여부 |
|-----|----------|----|----|----------------|----------------------------|-------|-------|--|--|-------|
| 부위 | 내외 | 상세 | 범위 | | | 수리재료 | | | | |
| | | | | 재료1 | 재료2 | 재료3 | 재료4 | | | |
| 지붕부 | 외부 | 지붕 | 전체 | 기와파손으로 누수 | 기와고르기 및 파손기와교체 | 시멘트기와 | 수성페인트 | | | |
| | | | | | | 시멘트기와 | 수성페인트 | | | |
| 지붕부 | 외부 | 처마 | 일부 | 우수의 넘침으로 내외벽훼손 | 처마홈통, 상자홈통, 선홈통의 교체 | PVC | | | | |
| | | | | | | 동판 | | | | |
| 벽체부 | 내부 | 천장 | 전체 | 노후에 따른 교체필요 | 기존 천장재 해체 후 흡음텍스 설치 | 석면천장재 | | | | |
| | | | | | | 석고보드 | 흡음텍스 | | | |
| 벽체부 | 내부 외부 | 벽체 | 일부 | 벽면의 얼룩/곰팡이 | 페인트제거 후 시멘트몰탈 보수, 수성페인트 도장 | | 수성페인트 | | | |
| | | | | | | 시멘트몰탈 | 수성페인트 | | | |
| 바닥부 | 내부 | 바닥 | 전체 | 인조석물갈기 부분파손 | 바닥청소 후 데코타일 시공 | | | | | |
| | | | | | | 데코타일 | | | | |

| | | | | | |
|----|------|------|------|--------|-------|
| 범례 | 원형재료 | | 수리재료 | | |
| | 원형추정 | 변경추정 | 원형재현 | 현형재료재현 | 신재료사용 |

하여 그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외부 벽체 상부의 수평코니스, 수직창의 인방과 하부 창대, 선홈통의 뒷면에서 그 오염도가 높게 파악되었다.

천장은 1967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섬목의 반자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mm 하부에 다시 목재의 반자들이 설치되고 외부에 석고보드가 설치된 구조이다. 지붕틀은 신축당시의 지붕틀이 아닌 1967년의 보수 당시에 설치하였거나 보수한 왕대공지붕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종도리에 설치된 2곳의 상량문과 목재의 가공수법, 사용된 철물 등에서 그 근거가 관찰된다. 바닥에는 인조석물갈기로 시공되어 있다. 바닥은 약 100mm의 차이로 두 종류의 레벨이 존재하는데 인조석물갈기의 형태도 각기 상이하여 시기상으로 두 차례의 시공이 행하여졌거나 이 높이 차를 연결하는 경사로 지점에 공간을 구획하는 설치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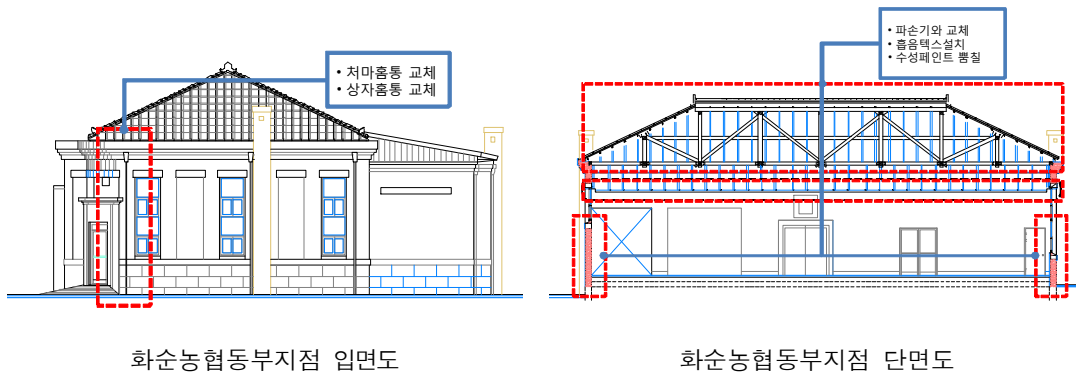


그림 107. 화순농협동부지점 보수부위

5.3.3 修理에 의한 變化

한국근대건축의 기술적인 변화는 대부분 수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그 원인은 건축당시의 재료수급의 문제, 부대설비 성능의 개선으로 대별된다. 특히 외관을 형성하는 지붕과 벽체 그리고 벽체의 창호 등은 건축물 외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리과정 상에서 재료선택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근대건축 중 최근에 보수되어 수리 이력이 남아 있는 14곳을 대상으로 수리 현황을 부위별로 나누어 수리의 원인과 과정, 원래의 재료와 수리재료, 원형의 훼손여부 등에 대하여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가) 건축부위별 수리현황

기초 및 지정공사는 구 풍양금융조합과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정 부위를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을 24개소 추진하였다.

내부바닥은 구 녹동우편소와 같이 일부의 실을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은 전기히팅판넬 위 장판지마감을 하였다.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에서는 누수가 발생할 경우 목재가 부식되므로 내수합판 설치 후 미송장마루널을 깔았고, 타일은 무석면타일로 교체하였으며, 지하층은 도기질타일마감하였다. 학교시설의 소록도 구 성실중고등성경학교는 바닥면쪽 쫄대가 심하게 부식되어 교체 후 프라이머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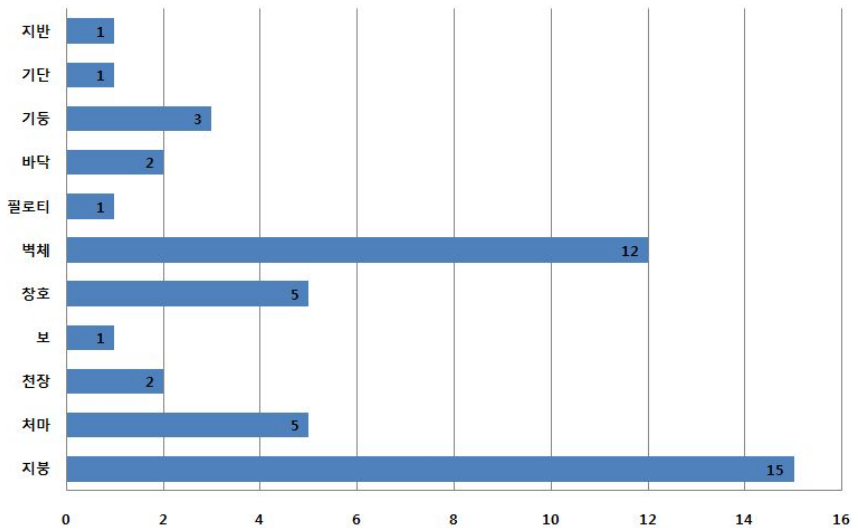


그림 108. 부위별 보수현황

누수현상에 따른 수리공사로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은 누수로 인하여 몰탈면이 균열되어 벽돌 세척후 발수제를 바르는 공사를 하였고, 「조선대학교본관」은 내부벽체에 누수 흔적이 보여 고압세척으로 바탕면 정리 후 폴리우레아로 방수도장을 하였고, 「화순농협 동부지점」은 빗물이 유입되어 내부의 수성페인트가 습기에 의해 부풀어 올라 들떠 있어 페인트를 긁어내어 제거하고 모르타르를 보수하였다.

벽체와 관련된 수리공사는 「순천매산중학교매산관」은 벽체 균열에 따른 에나멜페인트칠과 몰탈벽위에 수성페인트 마감공사를 하였고, 「풍양금융조합」은 연약지반으로 인한 벽체의 균열을 보수하고 철근이 노출되는 단면을 복구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구소록도 갱생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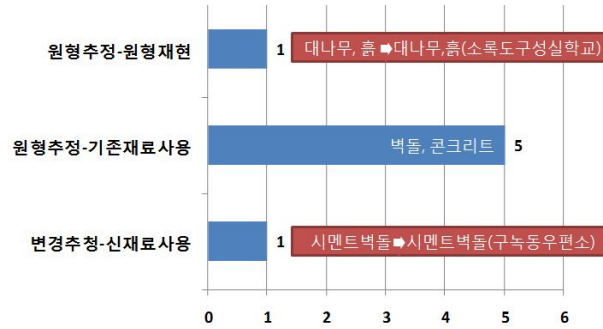


그림 109. 벽체의 수리 시 재료변경 여부

무분관 및 강당」은 상층기둥의 하중에 의한 벽체의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부위를 긴결철선으로 보강하였고 매 2단마다 치장줄눈을 파취하여 긴결철선으로 균열부위 벽체를 일체화 시켰다 또한 오염된 외부벽돌을 세척하고 외벽에 발수제를 바르는 보수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구소록도성실중고등성경학교」는 외벽고 회벽바르기 벽체가 노후되어 전면 교체하였고 파손된 비닐판벽은 교체 후 아스팔트 프라이머칠을 하였으며, 부식이 심한 외벽의 비닐판벽도 교체후 아스팔트 프라이머칠을 하였다. 「화순농협농부지점」은 오염 및 부식이 심한 외벽면 페인트를 긁어내어 제거하고 중성화로 인하여 부식이 심한부분과 탈락된 부분에 모르타르를 보수하였다. 줄눈의 균열에 의한 결함현상을 보면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커티스메모리얼홀」은 치장줄눈을 파취하여 긴결철선으로 균열부위 벽체를 일체화하였고 훼손된 줄눈을 시멘트 몰탈 보강하였다.

결함원인은 주로 누수에 의한 균열, 벽체의 훼손, 줄눈의 균열로 대별되며 이 결함에 대한 보수 방안으로는 주로 긴결철선으로 일체화 또는 세척 후 모르타르 보수, 줄눈보수, 발수제 바르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수에 의한 결함으로 「구풍양금융조합」은 합석을 이어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누수가 되어 동판을 사용하여 주변의 기와와 유사한 형태로 보수하였고 내수합판을 깐 후 쉬트방수 처리하였다. 「여수애양병원」은 외부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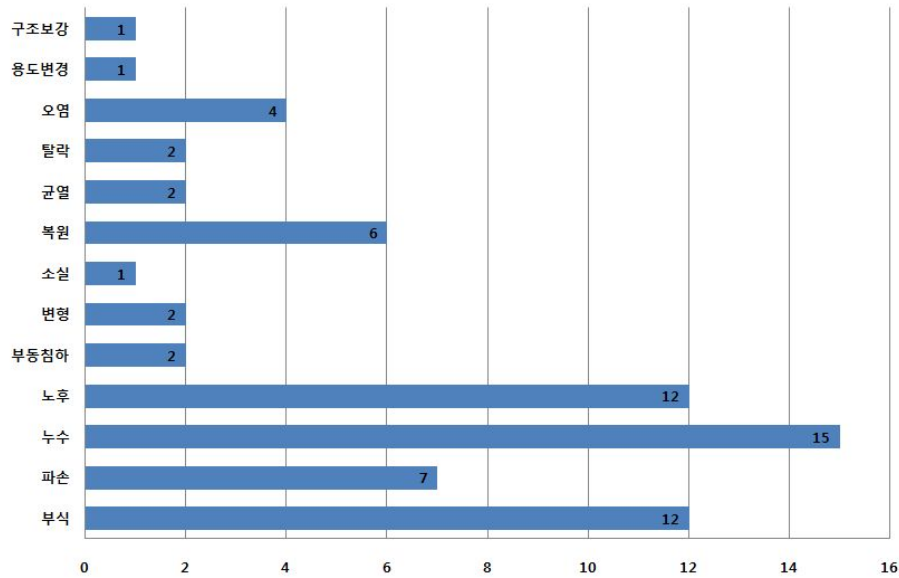


그림 110. 수리의 원인

면에 우레탄 방수처리를 하였고, 「곡성삼기우체국」은 시멘트기와 잇기가 일부 변형되어 우수 시에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개관을 교체하고 시멘트기와로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개관위 아스팔트 시트방수, 시멘트기와위 조합페인트칠을 하였다. 「구소록도갯생원검시실」은 처마부의 지붕재가 일부 균열 파손되어 누수로 인한 지붕재 부식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석면슬레이트를 해체하고 무석면슬레이트로 교체 설치하였으며 수성페인트를 뿔칠하였다. 「구소록도갯생원사무본관및강당」은 시멘트기와가 일부 탈락되어 우수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멘트 기와를 교체하고 개관 위에 아스팔트 슈트깔기를 하였다. 「구소록도성실중고등성경학교」는 지붕면이 파손되고 용마루 일부가 탈락되어 누수가 심하여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무석면 슬레이트 교체 설치하였으며 수성페인트 뿔칠 및 개관위 아스팔트 시트방수처리 하였다. 「구소록도갯생원식량창고」는 지붕의 파손에 따라 누수가 심하여 석면슬레이트 해체 후 무석면 슬레이트 교체 설치하였으며 수성페인트 뿔칠하였다. 「조선대학교본관」은 빗물이 창틀사이로 투입하여 내부벽체의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평지붕 골강관 위 방수/방식공사를 하였다. 「화순농협동부지점」은 빗물이 유입된 곳은 내부의 수성페인트가 습기에 의해 부풀어 올라 들떠 있는 상태이므로 이완 또는 변형된 지붕면 기와고르기를 하였고 파손 또는 중성화가 심하게 진행된 기와는 동일규격, 동일색상의 기와로 교체하였다. 또한 「순천

매산중학교매산관」은 아직 누수 피해는 없으나 목조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목재의 부후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목조 지붕틀위에 아스팔트 싱글마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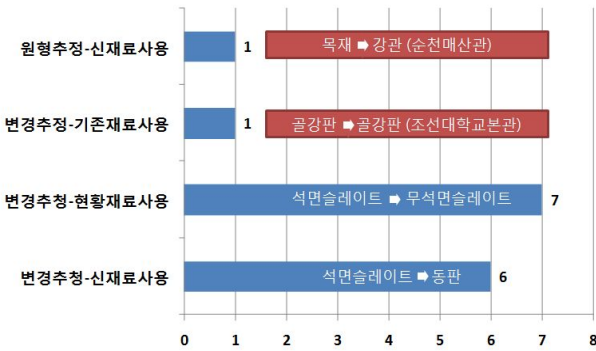


그림 111. 지붕재의 수리에 따른 재료변경여부

수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슈트방수를 시공하였다.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커티스 메모리 얼홀」은 합판을교체하고 수성페인트를 도장하였다.

흡통의 수리는 「곡성삼기우체국」은 동판처마흡통과 동판선흡통설치를 하였고,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은 처마흡통, 선흡통, 사각모임통을 설치하였으며, 「구소록도 사무본관및 강당」은 동판 처마흡통 및 동판 선흡통을 설치하였다. 「화순농협동부지점」은 부식이 심한 금속재 처마흡통 및 상자흡통을 동판접기공법으로 교체하고 변형으로 누수의 우려가 있는 PVC선흡통을 동판선흡통으로 교체하였다.

지붕부위 결함발생은 누수, 지붕재의 부식 및 훼손, 흡통훼손 등으로 대별된다. 지붕재료가 노후화됨에 따라 지붕누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바로 결함부위 손상으로 인한 재료의 부식과 훼손을 가져오며, 이는 또다시 심한 누수현상을 발생시킨다. 보수사업내용에는 지붕부위보수 내용중 누수에 의한 보수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누수에 대한 보수내용으로 무석면 슬레이트 교체 설치, 방수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수장 및 미장공사는 주로 수성페인트 마감과 그 이외의 마감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수성페인트 마감으로는 「구풍양금융조합」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탈락된 벽체의 표면에 수성페인트칠을 하였고,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은 차양면에 수성페인트 도장을 하였다. 「곡성삼기우체국」은 휴게실, 창고, 보일러실의 용도로 쓰이는 곳에는 합판교체하고 합판위

지붕재의 부식 및 훼손에 따른 수리공사로 「여수애양병원」은 부식된 지붕처마 마감재를 해체하여 보수하였고, 「여수장천교회」는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맞배지붕에 대한 동판잇기는 골함석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종탑부는 평잇기로 시공하였는데 동판잇기 시 지붕골이 충분히 겹쳐 누

수성페인트 도장을 하였다. 「구소록도갱생원사무본관및강당」은 내부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후 수성페인트 도장을 하였고, 「조선대학교본관」은 복도벽체를 단면복구 하고 벽체에 지정색으로 수성페인트 마감하였다. 또한 천장에도 지정색으로 수성페인트 마감하였다. 그 이외의 마감방법으로는 「곡성삼기우체국」은 우체국 용도로 쓰이는 곳은 합판교체 후 텍스를 붙였고, 화장실의 용도로 쓰이는 곳에는 경량절골천정틀을 설치하고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을 설치하였다. 「구소록도갱생원검시실」은 벽체 및 바닥에 시멘트 몰탈로 보수하였고 「구소록도성실중고등성경학교」는 비닐판벽위 아스팔트 프라이머 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수장 및 미장공사시 보수형태는 주로 수성페인트 마감을 하여 보수 하였고, 몰탈 마감과 발수제를 도포하여 보수하기도 하였다.

창호와 관련한 보수는 주로 제작설치를 통한 원형유지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문틀에 코킹마감과 우레아 폼을 충전하는 등의 보수를 하고 있다. 설비와 관련한 보수는 누수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선을 정리하고 전선 및 전등설비를 교체하는 형태가 있다. 또한 화장실 세면기와 양변기를 교체하는 등의 형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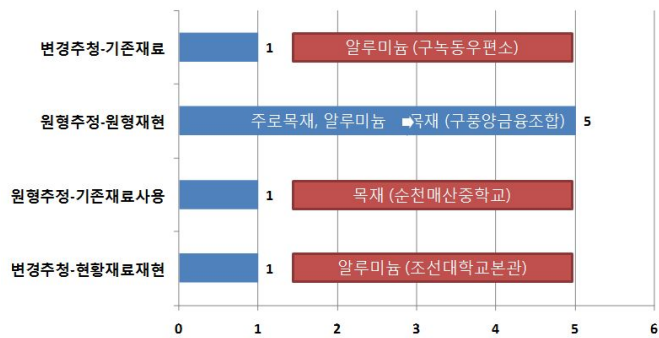


그림 112. 창호재의 수리에 따른 재료변경 여부

나) 종합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각 부위별 수리형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부위별로는 지붕, 벽체, 창호의 순서를 보이는데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와 누수가 가장 큰 수리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수리의 원인으로서는 과거의 수리로 인하여 원형이 훼손된 경우 원형으로 복원하고자 수리하는 경우도 6건으로 파악되었다. 원형을 변화시키는 주된 재료로는 지붕 부위에 주로 쓰이는 동판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설치되었던 골슬레이트나 기와를 대신하는 재료로 최근 활용도가 높은 동판은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높지만 기존의 형태를 제대로 살리는 재료로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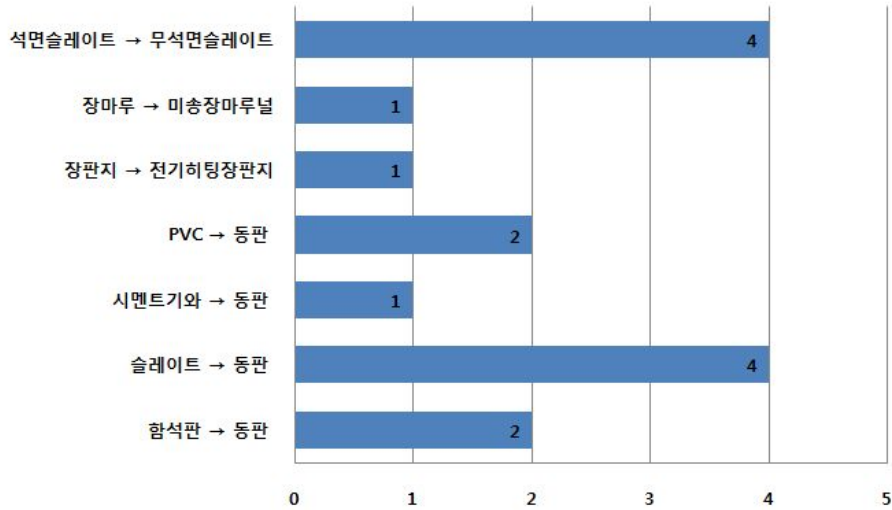


그림 113. 수리재료의 변화 양상

표 69. 부위별 수리내용

| 수리부위 | 수리내용 | |
|---------|---|---|
| 기초 및 지정 | 시멘트 밀크 그라우팅 | 해체 후 재설치 |
| 내부바닥 | 전기히팅판넬위 장판지마감 비닐무석면타일 미장장마루 깔기마감 | 전기온돌판넬설치 도기질타일마감 |
| 기둥 | H형강설치 | |
| 벽체 | 페인트면 긁어내기 모르타르 보수 수성페인트 뿜칠 줄눈보수 바탕면정리(고압세척) 방수도장(폴리우레아) | 발수제 바르기 긴결철선으로 벽체 일체화 원형 복원(기성 적벽돌 기계절삭) 오염부위 세척 철근노출 단면 복구 보수 평지붕 골강판 위 방수/방식공사 |
| 처마 | 마감재 신재보충 교체 | |
| 지붕틀 | 교체보수 | |
| 지붕 | 동판잇기(기와가락이음) 동판잇기(골함석형태) 동판잇기(평이음) 우레탄 방수처리 흡통설치 지의류 제거 세척 중성화방지제 도포 조형물감싸기 | 기와고르기 아스팔트 시트방수 동판거머접기 내수합판깔기 조합페인트풀칠 무석면슬레이트설치 수성페인트뿜칠 침투성방수제도포 발수제 도포 |

| 수리부위 | 수리내용 | |
|-----------|---------------------------------------|-------------------------------------|
| 천장 | 천정지마감 PVC천정재마감 수성페인트 도장 | 에나멜페인트마감 흡음텍스 설치 |
| 수장 및 미장공사 | 수성페인트마감 벽지마감 발수제 열경화성수지천정판설치 | 아스팔트 프라이머 칠 물탈마감 벽돌세척 텍스붙임 |
| 창호 | 제작설치 및 원형유지 문틀 코킹마감 | 문틀 우레아 폼 충전 |
| 설비 | 전기선 정리 전선 및 전등설비 교체 | 화장실 세면기, 양변기 교체 |

6. 登錄文化財의 保全 方案

6.1 制度 및 政策의 轉換

한국의 문화재 보호정책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멸되어가는 문화유산을 살리기 위한 보존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재산이라는 의식과 남겨진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및 정체성 고취라는 하나의 보존 목적이 당위성이었고 이를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동원하여 통제하였다. 이러한 문화재는 공개되어 선조의 문화적 업적을 후대에 알리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라는 개념에서는 소유자 임의의 개조와 변경은 문화재의 훼손으로 규정되며,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해 허가사항의 제도적 규제를 통해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보수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지정문화재의 경우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며 잘 보존되고 있으나 근대건축은 전통적인 지정문화재와 달리 다수의 등록문화재가 존재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가 상존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주체와 소유자·사용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근대건축의 대부분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로서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의 경제적인 목적이 상실되면 새로운 경제논리에 의해 고쳐지거나 완전히 제거되고 신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근대건축과 관련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이를 제지하거나 규제하지 못하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근대건축의 경제논리에 의한 소멸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주요부분을 보존하면서 새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은 서로 상충적인 관계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활용적인 측면도 고려한 보존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전환의 측면에서 첫째, 지정 및 등록기준 개정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중간적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둘째, 부분보존의 원칙에 입각한 보존방식의 다양화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마

지막으로 활용을 위한 법규 및 운용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루었다.

6.1.1 指定 및 登錄基準의 改定

가) 문제점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속에 위치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과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그 실효성이 평가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보존지구 지정이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거나 건축법상 기존 건축물의 멸실이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면 근대건축을 포함한 근대유산의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상의 등록문화재 규정은 지금과 같이 완화된 형태로 존재해도 근대유산의 보존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존지구의 지정이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와는 법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사실상 지정문화재 위주로 운용될 수 밖에 없고¹⁰³⁾ 건축물의 멸실이 신고제로 운용되어 신고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 현실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등록 예고 중인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두지 않을 경우 일반법인 건축법에 의거하여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근대유산이 철거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된다.¹⁰⁴⁾

철거 예방을 위한 강제 규정은 위와 같이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들은 근대건축의 지속적인 보존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이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그리고 동일 부지 내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등의 각종 혜택이 철거 후 신축으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에 효력 발생한 문화재보호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은 주요 근대건축들이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또한 도심지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토지의 절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는 기존의 근대건축을 보존하는데 크게

103) 보존지구는 문화재·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성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일종인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 문화자원 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유산이 소재한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신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치지와는 상충되고 있다.

104) 김수정, 등록문화재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학연구, 2005, p.70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넓은 부지 내의 한 쪽에 등록문화재인 근대건축물이 자리하여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수혜를 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이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영구히 변경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받아 근대유산을 보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방향인 등록문화재의 등록 반대나 철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¹⁰⁵⁾

이와 같이 근대건축의 보호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는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재산권리의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공공건축물 위주로 선별되어 등록문화재로 등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들의 철거 시도에는 아무런 정책적 대응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제도에 가깝다. 실제로 전체 등록문화재 452건 중 개인 소유는 소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학교법인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즉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등록에 반해 공공연히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다.

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과 개선방안의 사이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상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은 그대로 두고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 제도 안에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강제적 수단을 적용시키거나 등록문화재 제도를 없애고 문화재 지정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위의 두 논의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 제기된 두 분야의 주장들을 비판하는 관점이 아니고 각각의 개선방안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때 근대유산 보존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05) 김수정, 위와같은 논문, p.71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의 해결로 접근하는 방식은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 신고제의 허가제로의 전환과 근대유산 소유자들에 대한 개발권 양도제¹⁰⁶⁾ 또는 용적률 보상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러한 두 제도가 일반법에 도입되면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건물 멸실의 허가제 전환으로 인하여 커지는 규제 못지않게 반발의 폭 또한 커질 것이고 동시에 초래될 건축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도 감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발권 양도제와 용적률 보장제의 도입은 근대건축 뿐만 아니라 지정된 모든 건축문화재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초래되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문화재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제한규정 등과의 충돌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은 긍정적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의 정책에 의해 도입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의 차원에서 근대유산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장되고 있는 부분은 현행 등록문화재제도에 보다 강제적인 보존 수단을 도입하거나 등록문화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문화재 지정제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제도가 다소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보완대책에 대한 강구가 없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큰 흠을 남기는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문화재보호법의 틀 내에 존치시키되 다양한 근대유산의 보존을 위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등록된 등록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는 철거에 대한 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 사전 신고제의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이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106) 개발권양도제(TDR) 또는 개발권이전제란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한 뒤 개발권만을 거래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손익을 조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고도제한이 있다면 그만큼 토지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고자 2005년 9월 제한적으로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하였다.

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근대유산을 보존하도록 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등록문화재 등록 당시에는 등록, 보존에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변경될 때 철거 신고를 함으로써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근대건축을 비롯한 근대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을 추진하던 도중 기습적으로 철거되어 버리는 사태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지정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그 적용범위를 등록문화재 추진대상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등록을 위해 문화재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가지정의 효과가 즉시 발생할 것이고 그 사이 유산을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사태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가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지정의 등급과 보존의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가능해진다. 여기서의 가지정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한시적 조치이므로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되는 가지정 검토 단계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과 시·도지정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가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므로 가지정의 권한은 문화재청장에게 집중시키고 가지정 기간 동안 지정등급을 결정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시·도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1.2 保存方式의 多樣化

현존하는 한국근대건축의 보존방식은 다양하다.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례』, 2006에서는 해당 유산의 보존 방식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보존 유형과 방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근대건축의 보존 방식을 3가지로 대분류하고 각각 세분하여 한국근대건축의 보존 계획 수립 시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0. 한국근대건축의 보존유형 분류

| 구분 | 보존방식 | | 내용 |
|-------|------|--------|---|
| 보존 장소 | 현지보존 | | 건축물의 신축당시의 장소에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 |
| | 이축보존 | | 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장소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식 |
| 보존 범위 | 전체보존 | | 건축물의 남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식 |
| | 부분보존 | 외관보존 | 외벽 전체 또는 부분을 보존하거나 현관 또는 외부 창과 창틀 등을 보존하는 방식 |
| | | 내부변경보존 | 건축물의 활용방법에 따라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 |
| | | 내부보존 | 실내공간의 구성이 보존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마감재, 조명기구, 가구, 창호 등 실내요소를 보존하는 방식 |
| | | 외부변경보존 | 외부 마감재료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내부공간은 보존하고 외부공간을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식 |
| | | 이미지보존 |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 또는 한 부분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특징적 이미지를 보존하는 방식 |
| 보존 상태 | 원형보존 | |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건립당시 그대로 보존되는 방식 |
| | 증축보존 | | 건축물의 활용에 따른 수요공간을 수평과 수직 또는 내외부로 증축하여 보존하는 방식 |
| | 원형복원 | 전체복원 |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의 전체를 신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 |
| | | 부분복원 | 멸실 또는 훼손된 건축물의 일부분을 신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식 |
| | 개수보존 | | 노후화로 인한 안정상의 문제로 개수 및 보수하여 보존하는 방식 |

6.2 修理技術과 紀錄의 아카이브화

건축물은 사용상에서 자연적 인위적 파손이 발생하고 이 파손을 수리함으로써 그 수명이 유지되고 연장된다. 역사적인 건축물들도 수리에 의해 보존 및 활용되는데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건축문화재의 수리계획은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여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도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건축물의 가치는 의장, 공법 못지 않게 역사적인 중요성이 담긴 최초 건축 당시에 쓰였던 벽돌, 석재, 기와 등의 건축부재를 가능한 많이 남기는 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역사적인 건축문화재의 수리는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여러 차례의 수리는 수리하는 시대, 수리참여자, 건축물의 파손상태 등의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 동원된다.

이러한 건축물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장래의 수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수리의 내용과 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보존 및 이전을 위하여 수리계획과 당시의 시공법 등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 속에 당시의 기술은 도태되거나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리기술과 자료의 집적 방안에 대하여 기록관리 및 수리특기시방서의 작성, 수리전문인력의 확충, 수리기술 집적과 수리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등으로 한국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6.2.1 修理技術에 관한 記錄管理

가) 기록관리의 문제점

근대건축의 수리과정상에서의 기록은 업무와 절차가 안정되어 있고 과정 중에 파생되는 기록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 방식의 면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문화재 수리 규범에 의하면 “문화재수리 대상물은 수리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수리의 절차와 처리 방법 등의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을 법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기관의 기록관에서 관리하고 그 중 영구보존기록은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한국근대건축을 비롯한 등록문화재의 수리 기록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수리업자가 각각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 단계별, 주체별 기록에서 나타나듯 수리에 관련된 기록은 동일 단계에서 제작되는 것일지라도 해당 업무단계와는 무관하게 분산되어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된 기록들은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되고 이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와 관련된 기록들과 함께 수집되므로 특정 문화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기록의 이용 시 해당 기록을 찾기 어렵고 분실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국가보조사업의 주체가 문화재청이지만 국고보조사업 대상 확정 후에는 사업발주부터 완료까지의 실질적인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팀이다. 이 기간 동안에 작성되는 모든 근대건축의 수리 기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 수리업자에 의해 작성되고 각종 기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발주를 하는데 문화재수리업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승인요청을 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며 공사완료 후에는 설계도서와 함께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각각 제출하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¹⁰⁷⁾

설계의 발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업자 사이에 오고 가며 작성된 일반기록과 도면기록 및 시청각 기록들은 사업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현존하는 건축물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건축물의 원형 및 변경사항들의 구체적인 형상은 물론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건축물들도 연구할 수 있어 건축문화재 관리업무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환경 및 시설의 부족으로 사업과정 중에 생긴 도면 등의 기록을 제외한 완료보고서만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나 완료보고 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재수리업자는 사업결과와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에게 사업의 완료 보고를 하고, 이때 설계도서와 발행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문화재청은 간행물로 발간된 보고서와 설계도서를 받아 관리하는데 결국 건축문화재와 관련된 기록을 사업결과물에 해당하는 일부만 관리하게 되며, 내용에 대한 기록과 최종결과물에 대한 기록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또한 실제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중요기록에 대한 분실의 우려가 있다.¹⁰⁸⁾

107) 강수나의 1,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p.36

108) 위와 같은 논문, p.38

한국근대건축의 수리 기록은 문화재관리업무의 안정된 절차와 생산 기록에 대해 규정을 통해 기본적인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록의 관리 프로세스 상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이는 기록의 작성 및 등록과정에서의 비체계성, 소규모공사 등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추진하는 관행, 기록관리 인수인계의 애매함,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 목록화 작업의 비체계성 등 이 해결해야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록관리의 방안

한국근대건축의 수리 기록들이 건축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차후 문화재 관리의 이력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기관에 국한되지 않는 관리체계 및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실측 및 설계 단계에서의 기록관리의 방안으로 통합적인 기준 없이 생산되어 이관된 실측 및 설계단계의 기록들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수리업자가 통합적으로 실측 및 설계단계의 기록들을 작성하기 전에 통일된 규정과 지침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술적 요소와 지침서가 만들어져야 하고 도면·사진·동영상 기록을 작성할 때에도 통일된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 및 수리완료 단계에서의 기록관리 방안으로 공사의 중요도를 떠나서 수리보고서 제출의무의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공사의 이력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하며 작성된 기록에 대해서는 차후관리를 위하여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보수 및 복원기록을 비롯하여 해당 건축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검색을 통한 이용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개선을 통한 기록관리 방안으로 현행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지침서에는 도면, 사진 등의 기록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기록작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에 통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통합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되고 일관된 기록의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근대건축의 기록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록관리의 세부 지침안

문화재수리규범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 등의 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고서로 남긴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기록관리의 세부 지침을 일반적인 건축문화재의 수리 및 보수공사의 공정별로 분류하여 각 공정상에서 작성해야 할 각종 기록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근대건축을 비롯한 건축문화재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목록화 등의 관리방식이다. 현재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는 문화재에 대한 소재과목과 관리현황 등의 기본적인 검색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목록과 서비스되고 있는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여러 이용자들이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되거나 검색하는 권리이자 기회이며 수단이 되는 “접근”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실측과 설계단계 중 작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와 감독공무원은 합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의 수행일정, 참여자 명단, 참여자별 역할, 연락처 등의 기본 기록 내용과 자료조사 계획, 실측도면 작성 범위 및 방법, 기록용 사진의 촬영 범위, 위치, 구도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혁 및 문헌수집 단계에서의 자료수집은 건축적 배경, 지리적 특성, 건축물 배치, 인문·역사적 배경, 증언, 기록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양식 및 특징 등 현황조사의 내용에는 배치에 대한 공간구성 및 특징, 건축적 특성 분석, 각 실별 용도 및 특징, 건축물 노후 및 훼손상태, 변형 및 수리실적 등, 건축물의 사용현황, 조경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측조사 시에는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속건축물, 민속유물, 수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실측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형측량 및 전체현황배치도, 대지 중·횡단면도 등의 실측도면을 수록한다.

도면작성은 건축문화재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므로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 현상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과 기준이 없으며 제목만으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색인목록은 도면명, 분류번호, 생산연도,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목, 쪽 표시, 전자문서의 여부 등인데 이 항목으로는 도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기준이 없이 생산되어 이관된 실측 및 설계단계의 기록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획득하기 이전부터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는 실측 및 설계단계의 기록들을 작성하는 이전부터 일관되고 통일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보고와 함께 수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수리보고서에는 해당 수리공사에 대한 기록은 물론 과거의 수리내용을 함께 수록해야 한다. 이렇듯 공사 이력을 남기는 것이 향후 건축문화재를 관리할 때에 공사지침의 중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건축문화재에 대한 기록들은 후대에 전승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축문화

표 71. 기록 관리의 세부 지침 안

| 단계 | | 기록관리 사항 |
|-----------------|----------------|--|
| 지정 및 등록단계 | | - 기본적인 건축 사양 및 특징 |
| 실측 및 설계단계 | 작업계획 수립 및 업무협의 | - 과업수행일정, 참여자명단, 역할, 연락처 - 자료조사 계획 - 실측도면 작성 범위 및 방법 - 기록용 사진 촬영 범위와 정확한 위치 및 구도 |
| | 연혁 및 문헌 수집 | - 건축적 배경, 지리적 특성 - 건축물과 관련된 인문, 역사적 배경, 증언, 기록 - 건축물에 남아 있는 기록 및 명문 - 관련문헌 및 연구자료 - 소장자료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료의 검색 |
| | 현황조사 | - 건축물의 배치 - 건축적 특성, 각 실별 용도(과거와 현재) - 건축물의 노후 및 훼손상태 - 건축물의 변형 및 수리실적 - 조경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
| | 실측조사 | - 현황의 정확한 실측 - 부속건축물, 민속유물, 수목 등에 대한 조사 - 상세도면 작성을 위한 실측야장의 작성 |
| | 도면작성 | - 실시도면에 준하는 건축도면 - 도면의 분류체계 정비 |
| 공사 및 수리완료단계 | | - 과거의 수리기록을 포함한 수리보고서 - 공사기준, 관리방법, 공사절차 등의 이력정보 |

재의 보존 및 활용에 맞는 공사기준, 관리방법, 공사절차 등의 이력정보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리보고서나 기록화보고서의 작성시에도 구체적이고 통일된 형식 및 지침이 필

요하다.

문화재의 수리는 건축주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따르게 되는데 시방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설계도서 중의 하나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그 설명이 부족한 수리 내용에 대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술하여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후자는 일반화된 시공기술이 아닌 경우 별도로 특기하는 시방서이다.

근대건축의 보수과정에서는 절차와 그 범위 등이 기존의 목구조 중심인 전통건축의 수리시방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수리과정에 관한 시방서의 마련이 절실하다. 근대건축은 양식, 기술, 재료에 있어서 전통적인 목구조 형식과 다른 양식, 기술, 재료의 특성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전통건축의 보수규범은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과거의 양식에 맞추어 신축하거나 역사적 고찰 및 관련된 문헌을 통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형식이다. 그 예로 경복궁내 건청궁과 승례문의 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현재 사찰 등지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현상의 수리 및 복원 대신 사찰 전성기 때로 복원하는 방법도 보인다. 이러한 보수의 유형은 1972년 세계유산조약이 체결되기 전 나타난 현상이었다.

근대 서구양식건축의 보수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은 실제 보수시에 적용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원형유지 및 보존을 위한 학술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에서 연혁은 물론이고 양식적 건축적 특징에 관한 학술적 검증은 문화재 지정당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의 수리에서는 수리업자에 의해 바뀌어버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에 건축물이 신축될 때에 적용된 기술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존치시키기 위한 구조의 강화책으로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위 두 가지의 상반된 원형보존의 원칙과 과학적 기술 접목에 의한 불가피한 원형의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근대건축의 수리 전 현황조사 및 분석 단계와 보수설계의 단계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의 수행단계로 문화재의 수리에 대한 일반시방서는 물론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기시방서의 정밀한 작성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2.2 修理 專門人力의 擴充

건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진행되는 건축물의 보수와 정비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최대한 원형으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근대건축을 포함한 건축문화재의 수리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르게 그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합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서만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된 문화재청의 인정 자격은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가 있다.

그러나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관련된 기술자·기능자·업자의 기술업무 영역에 있어 근대건축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전통적인 한식의 목공과 석공뿐으로 근대에 외국의 영향으로 건축된 한국근대건축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근대건축의 수리과정 상의 문제점은 최근 시행된 몇몇 등록문화재의 보수공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대부분 한국의 전통방식의 건축기술이 몸에 밴 문화재수리업자들이 외국의 영향을 받은 근대건축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수리하기에는 기술적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도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한국근대건축의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통건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들에 의해 수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향후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내용에도 근대사를 비롯한 근대건축의 구조 및 수리의 분야도 확장하여 다룸으로써 근대건축의 실무자 양성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문화재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와 개화기 이후인 근대에 건축된 것이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대건축과 관련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므로 현재의 전통건축 관련 기술에 의한 보수 실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한국근대건축 보수공사는 지붕 및 지붕가구의 보수, 창호의 보수 및 교체, 벽돌의 부분 교체 및 조적벽의 보수 등이 대부분이므로 위에 세 부분인 지붕, 벽체, 창호에 관한 수리기술자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기술자의 양성이 가능한 기관으로는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해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있다. 한국전통

표 72. 근대건축의 수리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분야

| 근대건축의 수리 실무분야 | | 업무내용 | | 필요 |
|-----------------|-----------|-------------|------------------------------|----|
| 목조 트러스 지붕 | 목조 트러스 | 양식,설계 | 양식상, 구조형식상의 체계, 구조원리, 결구의 특징 | |
| | | 보수,제작 | 목조트러스 보수를 위한 해체, 수리, 제작 | ○ |
| | 지붕 | 재료,마감 | 기와, 슬레이트 등의 지붕마감재에 대한 실무지식 | ○ |
| 조적 벽체 | 내부 | 내부마감 | 조적벽체의 마감재 유형 및 시공방식 | |
| | | (공통) 조적술 | 벽돌의 종류별 조적벽체의 쌓기 방식 및 기술 | ○ |
| | 외부 | 보존처리 | 풍화에 의한 벽돌 훼손과 구조적 성능 악화의 예방 | ○ |
| | | 보수,제작 | 조적벽체의 부분적 보수를 위한 기법 및 벽돌제작술 | ○ |
| 목재 창호 | 목재 금속재 | 양식,설계 | 창호 양식의 분류, 디테일 설계 | |
| | | 보수,제작 | 창호의 보수, 복원을 위한 제작, 창호철물 제작 | ○ |

문화학교의 교육과정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과 동법 제18조10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및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관계자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과정에 상당한 교육과정으로서 “전통문화사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교육의 커리큘럼에 전통건축 및 조경학과군, 전통미술공예학과 외에도 근대건축의 교육과정도 설치하거나 기존의 학과에 전공으로 편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結論

이상과 같이 이론고찰과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연구대상 59곳을 중심으로 용도별,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기술하고 변용현상과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며 수리현황과 수리원인을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적인 공간의 변용과 기술과 재료적인 변화 즉 수리 후 발생하는 근대건축의 변화사례와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근대건축의 도입은 동서양이 접촉하는 결절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동일한 입장이거나 근대건축술의 전파경로 상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건축의 형성은 개항장의 조계지를 토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공관 계통의 건축, 둘째는 선교사를 통해 들어온 서양인의 종교건축 과 교육시설, 셋째는 외국인의 상사 건물 및 주택, 다음으로 일본인에 공공건물이다. 이와 같은 각각의 건축물은 설립자의 국적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구미 각국의 전통적 건축양식이 표현되게 되었다. 서구 각국의 공관은 르네상스 내지 절충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종교건축은 고딕복고양식을, 일본을 통한 건물은 대부분 목조의 의양풍(擬洋風)이나 르네상스풍의 절충주의 건물이고, 후기에 오면서 정규교육을 받은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양식주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결국 우리 근대건축의 형성기로 볼 수 있는 조계지에는 다양다종의 건축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 내륙의 주요도시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국 근대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물의 건립시기와 용도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립시기의 구분은 외세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개항기를 시작으로 한일합방과 해방 등 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용도의 구분은 근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조사하여 종교, 교육, 주거 등으로 그룹지어 그 용도별 특성을 고찰하였다. 건축적 특성은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된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각 평면형태, 건축물의 구조, 구성재료, 지붕가구, 지붕형태 등을 조사하고 비교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근대 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평면형태, 구조, 지붕가구, 재료 등을 조사하여

건립시기와 용도를 파악하여 시기의 경우 개항과 일제강점 해방 등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구분하였고 용도의 경우 종교시설, 업무시설, 교육시설 등 문화재청에서 종래 건조물 등록문화재를 등록할 때 분류한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평면변용의 유형은 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 단위 공간의 개수가 증가하는 분할과 역으로 공간의 개수가 감소하는 통합, 면적과 실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축소 그리고 벽체의 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조정으로 나눌 수 있었고 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에 덧붙여 실을 추가하는 부가와 기존의 실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변용의 유형은 부가, 확장, 통합, 분할, 축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대상건축물에서 발생한 변용의 유형별 빈도는 부가형 33, 분할형 18, 통합형 11, 확장 7, 축소 5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용은 하나의 유형뿐만 아니라 증축과 조정, 분할 및 통합 등의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부가에 의한 증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교육시설은 분할에 의한 공간의 조정이 변용의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업무시설은 부가를 통해 실과 면적을 증가시키고, 분할하여 실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변용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기타시설 중 상업시설은 부가, 확장, 통합이 고르게 나타나고 공공시설은 분할의 방법으로 변용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입면의 변용은 창호, 지붕, 외벽, 출입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색상을 바꾸는 소극적인 경우에서부터 재료를 바꾸거나 형태까지도 변경시키는 등 다양한 입면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변용의 원인으로 내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의 내구년한과 소유권자의 상황성으로 생각되고 외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판단해 볼 수 있었다. 내구년한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는 입면변용의 원인이 되었으며 건립당시에 사용된 재료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타 재료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소유자의 상황성과 외적인 측면의 사회구조 변화는 상호 영향을 주면서 건물의 변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분석대상 등록문화재 14건에 대한 부위별 수리빈도는 지붕, 벽체, 창호의 순서를

보이는데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와 누수가 가장 큰 수리의 원인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수리의 원인으로서는 과거의 수리로 인하여 원형이 훼손된 경우 원형복원을 목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원형을 변화시키는 주된 재료로는 지붕부위에 주로 쓰이는 동판과 기존의 재질과 상이한 창호 등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설치되었던 골슬레이트나 기와를 대신하는 재료로 최근 활용도가 높은 동판은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높지만 기존의 형태를 제대로 살리는 재료로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섯째, 근대 서구양식건축의 보수에 대한 학술적인 검증은 실제 보수시에 적용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원형유지 및 보존을 위한 학술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에서 연혁은 물론이고 양식적 건축적 특징에 관한 학술적 검증은 문화재 지정당시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의 수리에서는 수리업자에 의해 바뀌어버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건축물이 신축될 때에 적용된 기술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거나 존치시키기 위한 구조의 강화책으로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국근대건축을 원형의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대건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기술인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향후 전통건축과 구분되는 근대건축에 대한 전문가 및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내용에도 근대사를 비롯한 근대건축의 구조 및 수리의 분야도 확장하여 다룸으로써 근대건축의 실무자 양성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1. 강대민, 부산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1997
2. 김기환, 부산건축의 시대사적 구분, 건축역사학회
3.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5. 윤일주, 양식건축 80년사, 야정문화사, 1972
6.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건축가, 기문당, 2000
7. 나루미 구니히로, 도시디자인 연구회 역, 도시디자인 수법, 발언, 1997
8.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05
9.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10. 원정수, 공간, 1989
11.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12. 한국건축가협회, 한국현대건축총합(1.,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기문당, 1994

학위논문

1. 김은주, 한국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활용을 위한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 김동식,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 윤승준, 근대건축물의 재사용에 따른 보존과 재생의 방법 및 기준 -전시실로의 변경중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 박용철, 근대건축물 보존규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송혜영, 부산일본전과거류지의 형성과 변화에서 나타난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해양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7. 이재인, 건축물 분류에 관한 연구(건축계획과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규정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 박근수,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구성방안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9. 윤보기, 한국근대건축의 보전과 활용계획에 관한 연구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현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권홍순,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활용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2. 정이순,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 고주환, 한국 근대양식 건축물의 보존을 위한 보수기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4. 전민중,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등록문화재 Incentive 제도 실효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5. 고훈, 근대건축물 미활용 실태 분석과 요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 염용래, 근대건축의 보존과 재생활용의 디자인수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 조신혜, 근대건축물의 실내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 윤성훈, 해외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수법 및 용도변화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9. Steven Tiesdell, Taner Oc, Tim Heath, Revitalizing Historic Urban Quarters, Archirecture Press, 1996
 20. Wayne O. Attoe, Historic Preservation, in A. J. Catanese & J. C. Snyder An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ew-Hill book Company, 1979

학회지 및 보고서

1.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83
2. 김정동, 한국의 서구건축 인식단계, 대한건축학회, 1986
3. 김봉렬, 근대 건축 형성기 영국과 독일의 건축이론 비교 연구, 건축역사연구, 1992
4. 김정동, 동·서 근대건축의 전이와 역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논문집, 1992
5.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 206편의 참고 문헌, 건축역사연구, 1992
6. 김정동, 대전의 근대건축 목록과 유형조사 연구, 건축도시환경연구, 1993
7. 김정동,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건설기술의 역할에 관한 소고, 건축도시환경연구, 1993
8. 조홍석외2인, 지방 중소도시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환경연구, 1999
9. 조홍석외1인, 충남 근대건축의 형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1999
10. 조홍석외1인, 근대 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NT운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0
11. 김문덕, 네델란드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2001
12. 김정신, 교회건축 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과제,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13. 이혜민,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위한 현황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2
14. 김진안외2인,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2003
15. 한수형외1인, 대전지역 근대 건축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2004
16. 김정동, 이상과 1930년대의 동경, 건축역사연구, 2004
17. 이완건,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5
18. 김정동, 프랑스의 '역사적 모뉴먼트(문화재)'제도에 관한 소고, 대한건축학회, 2005
19. 키미지마 카즈히코, 동경의 근대건축물 현황과 보존방식, 서울학연구, 2005
20. 이토타케시, 도쿄에 있어서 근대건축보존의 성립과 전개, 서울학연구, 2006

21. 김수정, 등록문화재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배재대학교 공학연구, 2006
22. 김종현, 등록문화재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공학연구, 2006
23. 이주형,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6
24. 전병옥, 근대건축문화재의 전시용도 활용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25. 양준모, 근대건축물 보전 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26. 고훈, 근대건축물의 미활용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
27. 강성원,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 2008
28. 강수나,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09

공문서

1. 문화재청, 20세기초 건축물 실측 조사 보고서, 2000. 6
2. 부산광역시, 임시수도기념관 실측조사 수리 보고서, 2001

정기간행물

1. 도영주, 윤일주, 1910년 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부산광역시사편찬 위원회, 향도부산21, 1963
2. 이광태, 동아대학교 석당도서관, 월간 이상건축, 이상건축26, 1994. 10

저작물 이용 허락서

본인이 저작한 학위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하에 대학교에 저작권을 위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와 아카이빙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를 허락함
2.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논문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을 허락함
3. 저작물에 대한 이용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기간을 계속 연장함
4.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함
5. 배포, 전송된 학위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함
6. 소속대학은 학위논문 위임 서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확인함
7. 소속대학의 협약기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논문 제공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조건부 동의() 반대()

※ 조건부 동의 및 반대인 경우 사유 및 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조건 :

저작자 성명 : 이 봉 수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009년 12월 21일

이름 : 이 봉 수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